# 建铁土

大韓建築士協會誌

春発日学: 1967年 3月23日 登録番号 州 シー1251 月刊[建築士] 発行日午: 1978年 59月31日 毎月1|回発行 通答 第111号

1978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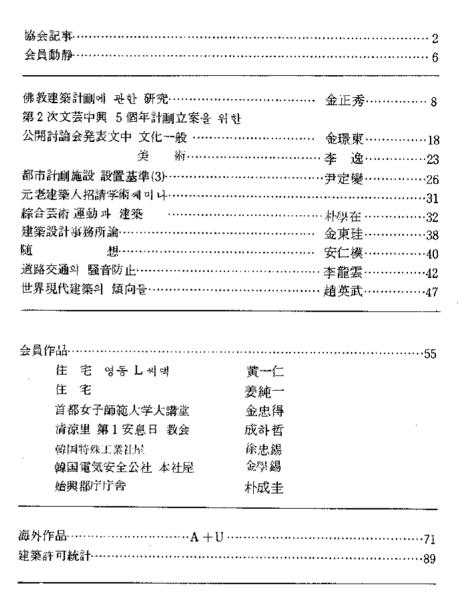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 刑建築士

1978.5

目 次



編纂委員会

〈昌慶宮明政殿 天井〉 李朝光海君 8年(1616) 에

建立한 宮殿建築으로

厳古의 遺構에 속하는 建物

로서 室内部의 우물天井에서 도 中央間上部 天蓋의 모습

이다. 正方形으로 짜른 区劃

内에 小形料棋을조밀하게配

置하고 안으로 좁혀 가면서

다시 8 角形을 만들어 5出目 遊遊률 内向시켰으며 그 内

部空間에 如意珠를 中心으로

雙鳳과 浮雲을 彫刻하였다.

(사진, 韓國美術全集에서)

表紙説明

委員長 俞 景哲委員 安箕 泰

- 〃 呉昌熙
- 〃 尹道根
- ″ 李璟的
- " 李文輔
- 〃 鄭日榮
- ″ 黄一仁

発行人兼 編輯人・姜 奉 辰/登録番号・第斗-1251号

登録日字・1967年3月23日/月刊「建築士」

発行日字・1978年5月31日/通巻111号

発行所・大韓建築士協会/住所・서울特別市 鍾路区 瑞麟洞 89番地

〈非売品〉

電話:73-9491~2

印刷人: 申 基 徽 (合同社) 中区 忠武路 3 街 59-8 266-2583

### 우리의 覺悟

한알의 밀이 죽을때 밀은 좋은 식물이다.

- ① 가을에 싹이 나지만 추위를 이기고 자라 나는 不屈의精神 이 좋다.
- ② 꽃이 화려하지 않고 마음이 흐믓하게 検索하여 좋다.
- ③ 두꺼운 꺼풀이나 二重 피부를 가자지 않고 率直하여 좋다.
- ④ 겉치례없이 속이 회고 단단하여 貞節美가 좋다.
- (5) 씨의 中心이 갈라져 거룩을 象徵하여 보기에도 중다. 이렇게 좋은 식물이 세번죽어 그 使命을 다한나.

#### ① 및은 땅에 묻혀 죽는다.

땅에 떨어진 한알의 밀은 聖經에서 예수를 비유한다. 우리는 그처럼 될수는 없으나 그 떨어져서 죽어 부흥되는 精神은 모든 宗教에서 그려하 듯이 우리도 次元은 달리하지만 배워야하고 実践하는 마음 갖임을 가져야 하리라 믿어진다.

비록 적은 単位의 일이지만 떨어져 땅속에서 축을때 새 生命이 나오고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協会도 남모르는 좋은 犧牲없이 새로운 発展의 契機는 이루워지지 않는다고 본다.

全国 1,800(1級 847, 2級 896名)余名의 会員数를 가지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자란 (問題点도 많았지만) 裏面에는 숱한 精神的,物質的 희생이 있었음을 알고 이에 同参하는 자의 隊列에 合流하여야 하리라 믿어진다.

아직도 우리의 周囲에는 한말 그대로를 자랑하고 뒷전에 앉아서 또는 앉혀져서 서로를 탓하는 일은 없어지고 있는지? 집성 "땅에 묻혀서 희생 의 寬寂을 쏟을때가 다가왔다.

#### ② 밀은 부서져 죽는다.

밀은 자기의 使命을 다하기 위하여 子先 가루가 되고 물에 엉져져야하 리라 본다.

잘 엉겨질수록 질기고 강하다.

이것은 惠乱中에 더 잘 다져지는 団結을 의미한다. 初創期 건축사 問題가 있을때처럼 어려울수록 合心하여 打開못한것이 우리를 富者로 또 는 弱者로 만들었다. 우리는 이제 뜻을 合쳐 하나로 궁치는 곳에 全会 員과 이어지는 建築人의 前途가 開拓되리라 믿는다.

#### ③ 밀은 불에 익어 죽는다.

아무리 잘 개어진 반축도 구어지거나 익어질때 재맛이난다. 내知識, 学 閥, 技術, 財産, 그리고 名誉등이 아무리 훌륭하다해도 道徳의 불로 익어지고 구어지지 아니하면 비린내나는 생가루와 같다. 날것은 祭物이 될수 없듯이, 우리는 익어있지도 못하면서 自己의 過去와 現在, 그리고 率 順히(子孫을 建築人으로 成長시킬時 医師나 薬師와 比較조차 할수 없음을) 被岸의 불로만 생각하는것이 탈이다.

結論 죽어서 열매뱆는 밀처럼 우리는 새로운 建築像을 살리기 위해 땅속에 숨어 희생의 쓴잔을 마시자.

俞 景 哲

# 統一主体國民會議 第二代 代議員 当選

지난 5月18日 제 2대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차지한 본 협회 회원 대의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金 光 鎬

1936. 전남 4: 조선공대 도사계획과 해 남군청 건설과 건설부 건축과 건설연구소 現 김광호설계사무소 전남 전남 해남읍



#### 申吉雄

1944. 서울作, 한양공대 선축공학과 대한건설문제연구원 동부경찰서 대공지도위원 공화당제 3지구당 운영위원 명 홍일건축기술공사 성동 제 7 구



#### 徐 廷 珉

1937. 전난 生. 전납공대 건축공학과 전납재해대책위원회 이사 반공연맹광주시 운영위원 광주시 서구청 방위협의위원 선납 체육회 이사 전남고등학교 육성회 회장 堄 동양건축설계사무소 전남



#### 安 永 潴

1937. 서울 生 한양공대 건축공학과 김수근 건축연구소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숙명여대 가정대 강사 뭔 삼애건축공합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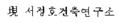
성북 제5구



#### 徐 廷 澔

1932. 서울生 중앙대 대학원 한국유신학술원강사 서울특별시민방위교관

광주서구 제1구



관악 제 5 구



#### 呉 顯 煜

1936. 서울生 한양공대 건축공학과 육본공명감실 건설과 한전 건설과 건축과 現 동부건축연구소

성동 제 5 구



#### 成一永

1938. 서울生 한양공대 건축공학과 R. M. Towill 토건회사 근무 서울청년화의소 상임부회장 용산경찰서특별방위위원회 회장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現 통진건축설계사무소

용산제 3구



#### 李 春 洙

1930. 충북 生

한양공대 건축공학과 육군공병부대 대대장 서울시청 건축과 건축계장 現 창도사 건축설계사무소

서대문 제 8 구



全 遇 大

1945. 충북 生 대전공업고등학교 건축과 협성건축 태평송합건축 現 기술공단 대건

서대문 제 7 구



崔相爀

1934. 서울 生 한양공대 건축공학과 **児** 최상혁건축연구소

동대문 제 8 구



鄭祥鳳

1935. 경북生 한양공대 건축공학과 공군본부 시설국 계획과 <u>명</u> 신진엔지니어링

성북 제 4 구



崔 成 南

1939. 충남生 충남공대 건축공학과 충남교위산하 교육청 영전과 건설부 건축과 現 광진건축기술공사

영등포구 제 6 구

### 月間協会動静

#### 제10회 이사회 개최

일 시:1978, 5. 2. (화) 14:00시

장 소:협회 회의실

부의안건 : 1) 예산조정승인에 따른 임시총회 개최의 건

2) 경북자부 판내 분소 조정의 건

3) 기타사항

참 석:회 장, 강봉진

총무이사, 검두섭

이 사: 박우하, 유경철 장종율 한영수

감 사:최춘화, 양상규

# 제 5 회 편찬위원회 개최

장 소:협회 회의실

부의안건: 1) 4월호 회지 합평및 5월호 회지

편집계확(안) 검토

2) 기타사항

일 시: 1978, 5, 23(화), 17:00자

참 석:외원장. 유경철

워 원. 안기태 오창희. 윤도근 이문보

#### 제11회 이사회 개최

일 시:1978, 5. 22(월). 16:00시

장 소:협회 회의실

부의안건:1) 건축사법 시행병 개정건의

2) 월정회비 미납자 조치의전

3) 제 2 회 임시총회 개최에 관한건

4) 기타사항

참 석:회장 강봉진

총무이사, 김두섭

이 사. 박우하, 유경철, 장총율 '한영수,

감 사. 최준화, 양상규

#### 제 1회 건축연구 위원회 개최

일 시: 1978, 5, 6(토), 13:00시

장 소:협회 회의실

부의안건: 건축사법 사행령 개정(안) 심의안건

참 석:위원장, 박우하

위 원. 구윤회. 안인모. 이봉로, 이명환. 최창규. 한규봉,

취필정.

총무이사, 김두섭

#### 서울특별시支部

# 会員 庶政刷新일 職務教育実施

지난 5월 12일 15시 본화회의실에서 임직원 48명이 참 석한 가운데 78년도 서정쇄신및 식무교육 강화를 위한 교 육과 겸하여 5. 18실시되는 통일주체국민회외대의원 선 격에 따른 참여도 제고를 위해 서울시지부 주관으로제도 강연을 갖인바 있다.

### 제주지부 농촌주택 개량사업

본혁 제주지부에서는 취락構造 改善을 위한技術指導協 議会를 열고 建築士들이 道内를 순회 대상 제마음 별로 취락구조 개선도를 하기로 결의했다.

## 충북지부 새마을사업전개

충북지부에서는 재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소속 여직원과 당지부소속 회원 사무실 여직원 일동이 마음을 같이하여 임일찻집을 열어 마련된 성금으로 충북 청원군 남섯면 소 재 (고아원) 현양원을 찾아 불우 고아들과 다파및 중식을 같이하고 성금 120,000원을 전달 당지부 회원들뿐만 아 니고 많은 도민의 사름을 덜어주었다.

#### ☑ 建築3团体会長 朝餐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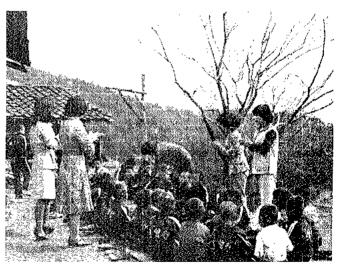
지난 5月22日 建築学会 愼武晟会長이 招請한 , 建築家協 会長 韓鼎燮氏의 本協会 康奉辰会長이 参席 新任人事 哭 建築界의 全般的인 当面問題들을 갖이고 意見을 나누었으 며 다음 機会에는 本協主催下에 3 団体 任員 및 会長団의 拡大 간담을 갖기로 合意하였다.



教育에 앞서 激励를 하는 金萬盛支部長



会議을 主宰하고 있는 金白教支部長



고아원을 찾아 고아들과 한때를 즐기는 여직원들

# 會員動静

#### 서울지부회원 사무소이전

	성 1	경	명 창	'소 재 지	전 화	등록빈호	면허번호	월, 일
김		영	 김 영건축사	영등포구영등포동 2 가143-1	64 - 1360	1 -44	250	
김	잁	영	동신건설공사	성 동구구의 동252 - 16	44 - 2335	1 -270	874	
김	윤	중	범한건축공단 _	판악구봉천동 <b>41</b> 9- 3	87 - 5177	1 -624	651	
01	종	성	서울건축사무소	강서구화곡동13-3	602 - 4406	2 - 108	386	
01	강	수	현대설계용역주식회사	영등포구당산동 5 가11- 1	64 - 6400	1 -314		
강	주	열	신건축사무소	용산구원효로 2 가 1 - 74	712 - 6626	1 - 309	588	
박	상	수	(주) 천일건축기술단	충구을지로 4 가310-68	20 - 0381	1 - 386	1006	
한	충	잂	강동건축연구소	중구삼각동115	74 - 7881	2 -277	19	
주	영	백	강동건축설계사무소	중구올지로 1 가101	"	1 -413	994	

#### 서울지부 전입회원

정	해	주	환경설계연구소	마포구노고산동57-26		393	1 - 793	
신	형	범	경진종합기술연구소	관악구사당동147-2	51 - 4269		1 - 793 54	
					51 – 4362	1 - 12	34	i
채	출	선	교우건축채희선건축설계	중구수표동27-1	20 - 1888	1 - 623	1473	
김	재	경	삼협건축연구소	중구태평로 1 가62 — 2	74 - 8753	1 -88	4	
유	기	조	범진건축연구소	강서구화곡동165 브복 2	602 9255	2 - 209	881	
점	의	용	삼덕건축연구소	"	"	2 - 224	776	
구	자	권	미성건축연구소	중구을지로 3 가291-16	26 - 1937	1 -431	1069	
백	광	윤	삼신건축연구소	총로구 <b>관</b> 철동25	27 - 1248	1 -330	642	
백	종	성	신정건축기술공사	관악구사당동342-10	51 - 4601	2 - 360	317	
조	성	롱	우원건축 <b>연</b> 구소	종로구세종로111	72 - 0197	1 -672	1317	
윤	태	현	태 건축	관악구봉천 7동399- 7	88 - 4236	1 - 200	732	
전	병	수	영동제 일합동	강남구논현동129-214	58−281€	2 <b>-47</b> 7		
			남양건축설계사무 <i>소</i>					
01	중	문	용산건축사무소	용산구원효로 2 가 1 -49	712 - 6980	1 - 146	530	
김	명	선	김명선건축연구소	강서구화곡동162 - 2	63 - 0889	2 - 263	1205	

#### 서울지부 재입회

최 순 남     중앙종합엔지니어링     중구배평로 2 가305     22-3836     792     1-390       신 정 환     대용건축기출공단     관악구사당동 9-22     59-6931     465     1-609
---

#### 경기지부회원 사무소이전

양	하	섭	양하십건축설계사무소	안 <b>양</b> 시안양 6 동 505 <b>-</b> 8	2 -3315	1 - 13	254	5. 3
김	용	만	정동건축연구소	안 "	"	2 - 15	1797	"
퀀	영	근	내외건축설계사무소	"	"	2 - 14	449	"
01	창	두	유진건축사합동사무소	인천시북구부평동109	5 -2155	1 - 60	1217	4. 14
김	주	경	"	"	"	2 - 62	430	"
01	면	술	"	"	"	2 - 61	600	17
1		l						

#### 경기지부 전입회원

최	인	현	0.000 4 5 4 4 1 77	인천사남구중의 1 통379-3032		2 - 64	296	4. 27	
					<del></del> _			٠	,

#### 충남지부회원 사무소이전

성 명	명 칭	소 새 기	전화번호	등록번호	면호변호	월,일
이 광 춘	이광춘건축설제사무소	금산군금산읍상리179	3330			4. 15

#### 경북지부회원 사무소이전

			· · · · · · · · · · · · · · · · · · ·	18.188.1			ı		
강	신	원	십우건축기술공단	대구시충구동문동19-4	44 – 1615	1 -38	1 -147	5.	3

#### 전남지부회원 사무소이전

공정	갑	1 11년	동남건축설제사무소	광주시동구계림동505- <b>1</b> 6 광주시동구광산동41			61	4, 2 <b>4</b>
민	폭 성	신 기	삼우건축공사 조양건축연구소	* ተላቴተኛ산ቴ41 "	2 - 5688	1 - 2 $2 - 45$	174 1815	5. 6
임	8 종	기	대우건축연구소	<b>"</b>		2 - 51	1691	"
					l i			i

#### 충남지부 전입회원

|--|

#### 충남지부 재입회원

0.1		이숙수지소사레하므기	네 -) 사기를 받아야	0 +111		+00	4 20
임	- ∤	\$P\$正位专复例作于4.	대전시선화중348-3	2 - 1111	z-51	108	4. 29

#### 서울지부 신입회원



본 적:서울

성 명:박 영 호

소 재 지: 영등포구당산동121-131

전 화:63-9281

면허번호: 1 - 1525

등록번호: 794

년.월.일:4. I9

#### 경기지부신입회원



본 적:충남

성 명:최 인 현

명 칭 : 공영건축설계공사

소 재 지 : 인천시남구중의 1 동379-

전 화:

3032

면허번호 : 2 - 296

등록번호 : 64

년월일: 4. 15

#### 전남지부 신입회원



본 적:전남

성 명:이 영

명 청:삼약진축설계사무소

소 재 지 : 목포시 호남동 1 번지

전 화:

면허번호: 2 - 587

등록번호: 6

년.월.일:4.18

# 충남지부 신입회원



본 적:충남

성 명:이 필 종

**칭**:이필종전축설계사무소

소 재 지 : 대전시중구은행동138

전 화: 2 - 2058

면허번호: 1 -906

등록번호: 29

년, 월, 일: 4. 29

# 佛教建築計画에 관한 研究

堂、房、楼、閣、庵子、門、石造物、佛具

金 正 秀

延世大学校 産業大学院長

#### 神閣・相師堂・経堂・庵子

#### (1) 神閣

한국은 古来로 山神, 龍神, 日月, 星宿 等等을 받들어 왔는데 佛教가 들어오면서 인러한 土俗信仰이 佛教로 転 向되어 天神은 釋帝桓因으로 檀君山皇은 独聖 또는 山神 으로, 日月・星宿은 藥師 左右補処인 日・月光보살과 薬 師七佛의 化身인 七星神仰으로, 諸天・山天・龍神 等은 八関会의 祭典으로 바뀌었다.(\*) 이라하여 韓国内의 各寺 케에서는 山神閣, 七星閣 等等의 많은 神閣을 볼 수 있으 며 이러한 神閣에는 各各 다음과 같은 神檀이 모셔져 있다.

神檀의 種類와 配置——神閣하나에 神檀이 하나인 것이 보통이라 할 수 있으나 때에 따라서는 神閣하나에 여러 神檀을 安置한 경우도 있다. 神檀의 構造는 簡易한 佛檀 을 설치하고 小佛像을 安置하기도 하나 大部分의 実例을 보면 簡易한 佛檀을 설치하고 順画를 壁에 걸어서 佛像을 代身하는 것이 常例이다.

神閣의 種類에는 大略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七星閣 —— 磁盛光如来像과 左右補処 日光・月光 両善 薩기타가 表示된 七星順両를 奉安한다.

山神閣(山王壇) (山張閣) —— 閑寂山王大神 等 諸山神順 画号 奉安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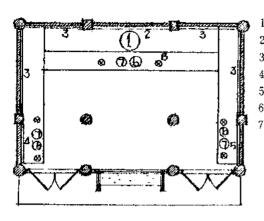
独聖閣(独聖殿, 天台閣) ——独修禅定邦畔尊者是 為始 한 独聖幀画 또는 塑像, 安置 三聖閣 —— 独聖壇、七星壇、山神壇 等을 同時에 泰安 한 神閣 (例 海印寺 三聖閣)

神閣의 建築構造 — 正面 1間(3.2 m), 側面 1間(2.9 m)面積 10.7㎡(3.4坪)정도가 山神閣 等의 標準임을 第2.2表統計로써 알 수 있으며 包作은 各種이지만 翼도집이 많으며 지붕은 대개 맞배집이다. 三聖閣은 平面이 正面 3間側面 1間으로서 後面壁을 全部 祭壇으로 절게 一字로 配置하고 毎間마다 神壇 幀画를 後壁에 揭示하고 있다. 桐華寺의 七聖閣에는 七種의 七星順画가 붙은 完備한 것인데 보통은 1種의 幀画 뿐인 경우가 많다.

#### (2) 経堂(経藏)

藏経閣, 経庫, 蔵閣, 法宝殿, 大藏経楼 等으로 불리우며, 海印寺 藏経閣은 八萬大藏経의 国宝 32号의 木刻 経版<sup>11</sup>을 収藏한 韓国最大의 特殊経庫이다. 大寂光殿 後面에 位置한 이 建物은 正面 15間 側面 2間 2棟 総 364 坪이며 包作이 없는 経庫다운 간소한 건물이다. 内部中央에 1 例로 長方向의 内陳기둥이 있고, 室内에는 経版을 収藏한수 있도록 선반이 5 段으로 설치되어 있고 주위외력에 通風窓이 설치되어 있다. 이 旧建物은 文化財管理局에서 現代式 空気調和設備가 된 건물로 代置되고 있다.

梁山 通度寺의 藏経關은 大雄殿 右側 前面에 위치하며 正面 3間 側面 2間 2翼T 맞백자붕여며 두루마리로 된



七星關(서울奉元寺)

N 80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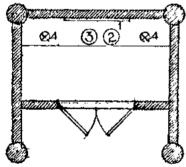
\_\_\_\_F

- 1. 山神頓畵 2. 耶畔尊者頓畵 七星幀畵 5. 茶器 6、燭 7. 喜捨函
- 1. 山神頓畵
- 3. 茶器
- 4. 烛
- 5. 喜捨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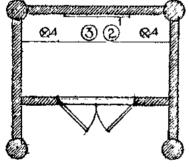
1. 耶畔尊者幀畫

3:茶 4. 烛

山神閣(桐萃寺)



天台閣(独聖閣 (桐萃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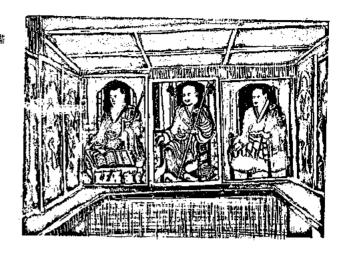


山神慎盡

- 2. 耶畔尊者頓畵
- 七星幀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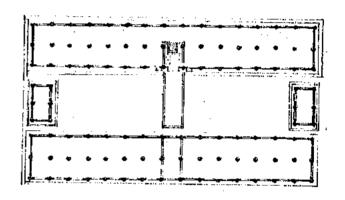
- 6. 烛
- 7. 喜捨函

三聖閣(桐萃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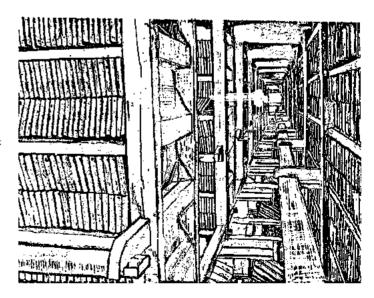


祖師殿内部

神閣



大藏絡閣平面図



大藏経閣 内部

經庫(海印寺 大藏經閣)

経巻도 보관할 수 있게선반을 室内에 장만하고 있다. 一般的 으로 室内에는 中央에 佛壇을 設置함이 慣例이다.

#### (3) 庵子

庵子라 함은 本寺 境內주변에 있는 일종의 本寺 直屬末寺이며 그 위치는 거리상으로 本寺에서 約 6 km 以內에 散在한 例를 많이 볼 수 있다. 庵子의 명칭은 庵, 院寺, 台庵의 작중 명칭이 있으며, 各 庵子의 建物의 数는 单一佛殿 또는 神閣 等에서 始作되어 大規模의 末寺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나 건축양식둥이 일정하지 않다. 陜川海印寺를 例로 그 所属 庵子를 調査한 一賢表의 集計를 보면, 各 庵子의 合計建坪은 約 20坪 정도에서 近 300坪에 達하고 있다. 海印寺의 開山이 A.D.802年으로 보아질때 그 所属 庵子의 創建年代를 調査한 同表에서, 大概 本寺가 건축된 然後에 数世紀 後부터 本寺利의 地盤이 확고해짐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나씩 증설이 되었음을 알수 있다.

#### (4) 祖師堂(祖師殿)

與影堂, 国師殿, 永慕殿 等等의 명칭으로 불리우며 宗 祖, 開山祖 또는 著名한 住持 等의 画像을 壁에 安置하고, 그 앞에 簡易한 祭壇을 마련한 殿閣이며 건물의 규모 불단 등은 前述한 神閣과 大同小異하되 다소 신각(神閣) 보다 큰 例도 많다. 室内 各壁에 여러 画像을 게시하는 것이 보통例이다.

海印寺(開山 A.D. 802)의 庵子一覧表

庵子名	 창건년도	庵子内 佛殿名	합계평수
薬水庵	A. D. 1895	煌 殿	267 坪
国一庵	A. D. 1636	七星閣	106
白蓮庵	A. D. 1605	圓通殿 天台殿 山神閣 禅室(枕汝殿)	162
希朗台	A. D. 1797	三聖殿	21
知足庵	A. D. 1935	山神閣	<i>7</i> 5
極楽殿	A. D. 1488		122
龍楽殿 表	支河 僧房		45坪
引済庵	A. D. 1945	極楽殿 表衷祠 僧房	279
顯堂庵	A. D. 1770	普光殿(비로자나불, 관세음보살(左)   지장보살(右)],七星順,十王順本應後佛順,神景順	171
三仙庵	A. D. 1895	女僧房 七星閣	206
金仙庵	A. D. 1893		50
清凉庵	A. D. 1811	大雄殿(釋尊佛象) 像	50

#### 禅堂・講堂・僧房・爐殿

禅堂, 講堂, 僧房 等은 主로 僧侶가 修道 伝道 및 日常生活을 하기 위한 곳이며 그 각각의 명칭은 일정하지 않고 다양하여 相互間을 구별하기가 힘들 뿐이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同一建物内의 前記 三者가 混合되어 있는 때도 있고 個別的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爐殿은 僧房의 일종으로서 住持 또는 各 法堂에 香火들 올리는 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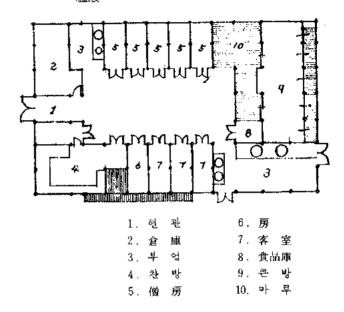
老스님이 거처하는 곳인 경우가 많다. 各 建物別 主로 常 用되는 명칭은 다음과 같다.

禅堂……一名 尋剣堂 解行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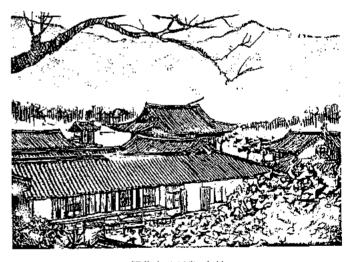
講堂……一名 無説殿 雨花楼 窮玄堂 涅槃堂

僧房……一名 寮舎体 寮舎

爐殿·····一名 爐香閣 篆香閣 凝香閣 推雪堂 焼香閣 香 爐殿



桐萃寺尋剣堂 平面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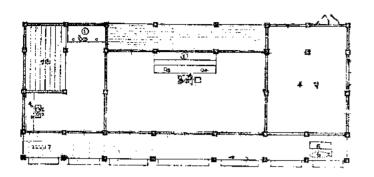


桐萃寺導剣堂 全景

禪堂

#### 建築構造

一般的으로 大雄殿 垈地보다 一段낮은 前方 中庭에 面하여 左右에 배치되는 이들 建物은 中庭左便에 寮舍体로한 例를 많이 볼 수 있으며 건물형태는 大部分의 佛寺가山中에 위치하는 관계로 안도감을 갖고 生活할 수 있도록 民家形式의 国学型 平面의 경우가 많으며 包作은 初翼工工翼工 또는 굴도리집이며 지붕은 맞배 또는 八作이다.中庭에 面한 房은 正面 4間 側面 2間 정도의 큰방으로 하



僧房(서울奉光寺) 懰房

고 中庭에 面하여 퇴간마루를 두고 있으며, 뒷채는 대개 爭問의 작은방으로 하고 있다. 이들 室内는 온돌로 하고 天障壁은 壁紙로 되어 있다. 禅堂으로 쓰이는 큰방은 內 部中央에 小佛壇을 설치하고 小佛像이 안치되며, 寮舎体 의 큰방에도 간혹 小佛像이 安置된 例를 볼 수 있다. 寮 舎体는 큰 炊事場이 있고 근처屋外에 石槽를 설치하여 炊 事用水 便用에 편하게 하고 있다. 炊事場에는 대개 큰 가 마솥이 여러개 질려 있어서 寺利 全体人員의 炊事를 할 수 있을 뿐아니라 祝祭 等 行事時의 多人員의 炊事準備에 도 지장이 없어야 한다. 寮舎体의 큰방에서는 僧侶全員이 모여 食事를 하는데에 充分한 넓이가 필요하며, 툇마루에 는 食事時間을 알리기 위한 雲板을 걸어둔다.

- 爐殿은 대개 大雄殿 근처 혹은 其他 各 佛殿中心에 - 가 까이 설치하며 따라서 大雄殿과 같은 上段 垈地에 설치하 기도 한다. 建物形式은 二次的 佛殿形式을 많이 본 따서 正面 3間 側面 2間 以上의 翼工 8作집으로 하되 退中 루를 설치하고 실내는 온돌이며 벽천장은 벽지인 例가 많 다. 부역에 設置한 佛壇은 庵王壇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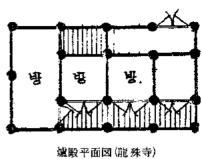
#### 楼・鍾閣 鼓楼

#### (1) 楼

寺利의 여러 문을 지나서 大雄殿과 一直線上에 놓이는 楼는 처음 축利을 찾는 사람에게 축利의 雄大함을 予告 해 준다. 下段과 中庭, 높은 垈地中間에 위치하게 되므로 밖에서는 下層은 기둥만을 가진 피로티 形式의 二層으로 보이고 大雄殿에서 보면 단충전물로 보이게 마련이다. 따 라서, 楼의 下層 中央通路를 지나 階段을 오르면 寺利 中 庭을 통하여 大雄殿을 正面으로 쳐다보게 된다.

楼의 명칭은 각 사찰마다 투이한 名稱을 사용하고 있으므 므로 一定하지 않으며(例 海印寺 九光楼, 通道寺 萬巖楼 等) 用途는 寺利 佛法儀式이나 祝祭日에 設祭에 사용되고 食堂 또는 丽天時 集会 혹은 休息処로도 이용된다.

○建築構造:원래 상하층이 벽이 없고 기둥만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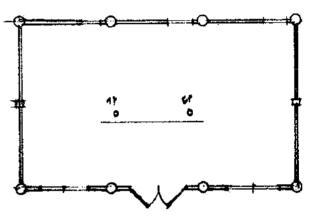


爐殿

鼓 6. 木 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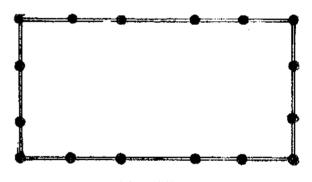
1. 阿彌陀佛 2. 香

7. 雲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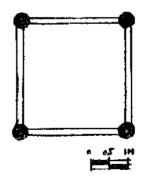


鳳停寺 華嚴辭堂 平面図

講堂



龍 殊寺 弘済樓 平面図



龍殊寺 梵鍾閣 平面図



梵鍾閣 外観(通度寺)

樓 및 鍾閣

**筆者実**測

2층에는 주위에 난간만을 돌린 것이 原形이라 할 수 있으나, 寺웨에 따라서는 2층의 一部를 壁으로 치고 鼓楼 로 사용한 경우도 있고(例 雙溪寺 八泳楼) 하층 중앙통로 를 제외한 両側을 壁을 치고 倉庫 等으로 사용한 경우 (例 水原 龍殊寺 弘済楼) 等이 있다. 正面 5間 側面 3間 2 翼工 8作지붕의 例를 많이 볼 수 있다.

#### (2) 鍾閣(梵鍾閣) · 鼓楼

鍾閣· 鼓楼는 前記한 바와같이 楼 2 층 일부를 막고 사용한 것도 있지만 大部分의 例는, 楼에 按近한 위치에 独立된 건물로 重層의 피로티型 楼를 건축하고 鍾閣과 鼓楼를 同一건물로 사용한 例가 많으며 이는 中国 定海縣 兩禅寺 A.D.1580의 例(第22図 参照)와 같이 左右側에 各各鍾閣 鼓楼를 건축하는 양식이 번잡을 피하여 2개를 합쳐 単一建物로 한 것으로 보이며 李朝時代 佛寺인 水原龍殊寺는 大雄殿 左右에 각각 鍾閣과 鼓楼를 건축하였으나이는 中国 大同의 下華嚴寺 等에서 그와 같은 例을 찾아볼 수 있다.

○ 建築構造:大体로 正面 側面各 3 間(例 梵魚寺) 또는 2 間(桐華寺 華殿寺)等으로 하되 正方形이 아닌 例도 있다. (例 観竜寺 4 間×2 間) 二翼工 8 作지붕 重層으로 하고 壁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창살을 둘리고 出入口와 内部에 간단한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下層은 普通 梵鍾(引磬, 大鍾)을 달고 上層은 大鼓 木魚 雲板이 놓인다. 하층바닥은 자연지반면을 그냥 이용하던가 博을 깔고 2층은 장마루를 깐다. (第95図 참조)鍾閣과 楼를 各各 別途로 할 때에는 鍾閣은 단층 四方 1間 정도의 작은 건물로 한다. (例 水原 竜殊寺)

#### 門과 其他建物

寺刹에는 일반적으로 約 1乃至 3種의 門이 있다. 그

例를 集計하면 (第2. 9表)와 같으며 寺刹에 따라 差異는 있지만 大体로 一柱門, 天王門, 不二門의 순서이며 때에 따라 순서가 바뀌어 一柱門, 不二門, 天王門으로 되어 있는 例도 볼 수 있다.

第2.9表 寺門의 種類

÷		名	第	1	間	第	2	f¶	第	3	門
通	度	寺	_	柱	門	天	Æ.	<b>F</b> F	不	<u> </u>	<b>P</b> 9
海	卸	寺	_	柱	門	鳳	息	門	解	脱	門
梵	魚	寺	-	柱	門	天	王	門	不	<u>=</u>	βġ
釋	E	寺	断	俗	<b>F</b> S	不	二.	門	曹	溪	PH)
雙	奕	寺		柱	門	金	剛	門	天	Ŧ	<b>19</b>
桐	華	寺	l —	柱	۴٩	護	法	門	<u> </u>		
法	住	寺	-	柱	門	解	脱	門	天	Ŧ	P5
華	嚴	4	-	柱	門	金	剛	門	天	£	[ <sup>1</sup> ]
宝	林	寺	解	脱	門	<u> </u>	Æ	<b>7</b> 4	<u> </u>		

#### (1) ---柱門(断俗門)

寺刹과 外部 俗世界와의 경계를 表示하는 一柱門은 대계 左右에 기둥 하나씩으로 지탱하고 있으므로 一柱門이라 불리우며 寺刹의 寺名 扁額이 또는 門의 이름이 붙는다. 기둥간격은 최소 3.8 m(例孤雲寺) 최대 10.24 m(例海印寺)로서 平均 6 m 內外이다. (第2.2 表 統計表 参照) 一柱門은 外部에서의 첫인상을 주는 중요건물임으로 一般的으로 包作도 內外 3 出目以上의 多包 8 作 또는 및배의例가 많다.

#### (2) 天王門(護持門, 鳳凰門)

전축형식은 正面 3 間 側面 2 間의 例가 가장 많으며 면적은 35.9㎡ (10.9坪)이다. (第2.2表 参照) 包作은 二 翼工 정도로 하고 지붕은 맞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平 面을 보면正面 3 間中에서 中1 間을 通路로 하며 左右 各 各 1 間을 外部에 面한 部分은 全部 壁을 설치하고, 室内 에 面한 部分은 창살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 内部는 일 반적으로 天障을 없이하고 바닥은 흙 또는 博이며 内部에 는 巨大한 木刻의 四大王佛像 左右 各各 二位가 다음과같 이 안치된다.

右 持国天王…… 손에 비화 楽器量 所持함.

右 增酶天王……손에 칼을 所持함.

左 廣目天王……如意珠斗 竜

左 多聞天王……宝棒과 塔을 所持함.

以上의 佛像은 幀画로 代置한 例도 간혹 볼 수 있다.

#### (3) 不二門(解説門)

寺웨의 最終門이며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不二法門을 들어간다. 뜻에서 不二門이라 하며 一名 俗世界를 이탈 하고 淸浮한 佛法道場으로 들어간다 하여 解脱門이라고도 한다.

建築構造는 一般的으로 天王門과 平面 및 構造가 大同 小異하지만 일반적으로 天王門에 比하여 間数도 若干많고 包作도 柱心包 多包等으로 하여 加一層 精密한 경우를 많 이 볼 수 있다. (例 梵魚寺 不二門 內外 3 出目) 左右에는 各各 文殊善薩의 獅子乗像 및 普賢善薩의 象騎乗像, 童子 像 等이 안치되며 때에 따라서는 이들 佛像을 幀画로 代 置하기도 한다.

#### (4) 其他建物

○舎利堂-一名 糾骨堂으로 통하며 一般 教人들의 遺骨을 보관하는 곳이다. 大部分의 特利은 舎利堂을 갖고있지 않으며 火葬場 近処의 寺刹에서는 유골을 一時 保管을 의뢰받는 경우가 많어서 솜利堂을 필요로 한다. 위치 및 구조에 관한 慣例는 없고 일반불전에 준비며 간소하게 건축하고, 室中央에서 佛壇을 장만하여 불상을 안치하되 양측벽에는 여러 段의 선반을 만들어 부치고 遺骨箱을 올려놓을 수 있게 한다.

#### 石浩物

佛寺에서 石造物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열거할 수 있다. 石塔,石浮屠,石燈및石床,幢竿支柱,石碑,石橋, 石槽.

#### (1) 石塔 및 石浮層

石塔은 印度의 都波에서 起源된 佛舎利塔이 오랜時日을 経過하는 사이에 그 形態가 変化한것이며, 따라서, 寺 利建築에 있어서는 가장 重要한것의 하나라할수 있다. 塔은 三国時代에 있어서는 大雄殿 前面 中庭에 大規模 1塔式으로, 木造, 博造 或은 石造로 九層塔을 設置한 例을 불수있었으나 그後 雙塔으로 変하였다고 高麗時代에는 無塔

寺刹로 変하였다고, 李朝時代에 다시 1 塔式이 出願하였 을때는 그位置가 中門바깥으로 変化한 것을 불수 있다. 現存 韓国의 石塔을 分類하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韓国塔姿의 種類

- (計) 博塔型
- (라) 木浩塔型
- (中) 伝統型(新羅 釋迦塔型)
- (叶) 特殊塔型
- (다) 百済塔型
- (가) 博塔型: 印度의 영향을 받은 前記한 中国 高層建物型塔中 四角形에 해당하며 芬皇寺塔 系統을 발한다. 但, 時日이 경과함에 따라 一般 伝統型에 가까워짐을 볼 수 있을.
- (나) 伝統型(新羅 釋迦塔型):韓国의 塔姿形式을 어떤面에서는 代表한다고 할 수 있는 固有의 伝統的 形態의 塔姿로서 그 発生起源은 博塔을 配造로 模倣할려는 데서 생겼다고 할 수 있으며, 途中에 百済形式이 若干 加味되었다고 보여진다. 高麗末期에는 木造塔의 영향까지 받게된 것으로 본다.
- (다) 百済塔型: 木造塔의 영향을 받은 石造塔으로서 彌 靭寺塔을 비롯하여 목조건축의 軽決한 모습을 나타낸 定 林寺塔型으로 고려후기에는 伝統型에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다.
- (라) 木造塔型:日本木塔의 形態와 類似한 것으로서 후 세의 法柱寺塔을 포함한 형태를 말하며 木造建築形態 를 取한 模様의 塔을 말한다.
- (마) 特殊型: 塔 製作者의 創意性을 発揮하여 特殊形態 를 取한 塔으로 대개 木造形式의 軽決한 形態를 取한 것 이 많다.

#### 石 燈 一 覧 表

		下	台	石	** b 7	蓮花	ルムア	屋蓋石	相		輪	髙	
寺名位置	年 代	地穩石	下台下石	蓮花下台石	竿 柱石	上台石	火舎石	久 言 石	久管石	<b>坐虚</b> 和	宝輪	宝蓋	宝珠
彌勒寺(華山)	600~640	4角	4 角	4 角円	不明	8 角有	8角4窓	8角	不明	不明	不明		
佛国寺		4角	欠	8 角円	8角	8 角	8角4窓	8 角	円柱		球		
開仙寺址	868~891	8角	欠	鬥	円鼓腹形	8角角	8角8窓	16角	門	欠	球	3.5 m	
華 殿 寺	886~887	欠	8 角	円	円鼓腹形	円	8角4窓	8角	<b>P</b> 3	円	殔	6.36 m	
法住寺	800初	4角	欠	8 角円	双獅子	8 角円	8角4窓	8角	欠	欠	球		
浮 石 寺				8 角円	8 角	8 角円	8角4窓	8角	円	欠	欠	高2.97 m 地台石의 : 巾1.33 m	
法住寺四天王	800初	8角	8角	8 角円	8角	8 角門	8角4窓	8 角	欠	欠	欠	3.9 m	
宝林寺	868~870	4 角	8角	8 角円	8角	8 角円	8角4窓	8角	円	8角	蘇	3.12 m	
白丈庵(南原)	約 900	8角	16角	16角円	8 角	8 角円	8角4窓	8 角	門	欠	球	高5 m   由1.49 m	
遠願寺址	約 850	4角	欠	円	8角	8 角円	8角 想	8 角	不明	不明	不明		
平均	600~900	4~8角		8角	8角	8角	8角	8角	円		球		

#### 傳統型(新羅釋迦塔形)

義城古塔里 5層石塔慶北 義城部 金城面 塔里、	新羅統一初期
高山寺址 3層石塔····································	A. D. 686(A. D. 660~680)
感恩寺址 双塔 慶北 月城 龍堂里	A. D. 682
羅原里 5翘石塔	
九黄里 3層石塔	A. D. 710
佛國寺 釋迦塔	A.D.730
篡項寺址 東 3層石塔金泉	A.D. 758
中原 塔平里 7層石塔中原 塔平里	A. D. 785~789
南山里寺址 西 3 層石塔慶州 南山里	A. D. 790~810
山清 冷觀里 3層石塔	A. D. 890~910
実相寺 3層石塔全北 南原郡 山内面 立石里	A.D. 826
<b>黄烧谷寺时 3層石塔 慶州 博物館内</b>	新羅末期
慶州 石窟庵 3層石塔慶州	A. D. 865
閉心寺址 5層石格 醴泉郡 醴泉邑 南郡祠	A. D. 1010
净船等址 5層石塔景福宮內	A. D. 1031

#### 墴 塔 型

芬皇寺 模博塔	A. D. 634
安東 新世洞 7層博塔安東 新世洞	新展初
安東 造塔洞 5 層塔安東 造塔洞	新羅初
松林寺 5層塔慶北 茶谷郡 東明面	新羅末
安東 東部洞 5層略安東 東部洞	新羅末
慶州 西缶里 3 層模埤絡慶州 西缶里	A. D. 790~810
月南寺 模榑塔	

#### 特 殊 塔 型

争惠寺di 13層石塔····································	A. D. 660~680
慶州 佛國寺 多宝塔	A. D. 730
求禮 華嚴寺 四獅子格·····-소南 求禮郡 馬山面 황전리	新羅末期
月精寺 八角九層石塔~~~~~ 江原 平岩里 珍舊面 東山里	高麗初期
敬天寺址 多層石塔 서울 星福宮内 - 景稿	A. D. 1348
萬福寺座 5層石塔全北 南原脇 南原邑 王享里	A. D. 14세기
國覺寺後 多層石塔서울 종로 탑골공원내	A. D. 1467

#### 百 済 塔 型

扶餘 定林寺址 5 層石塔扶餘	A. D. 660以前
<b>吒仁 5潛石塔····································</b>	고려초기
類能山 格忠南	고려초기
<b>獨</b> 勒寺址 塔······	A. D. 660頃

#### 伝統型(高麗以後 木塔型 加味時代)

無 量 寺 5層 石 塔 忠南 扶舽郡 外间面 萬里	고려초기
眷願寺du 5層石塔····································	고려호기
開城 南溪院寺址 7層石塔開城市 덕암리 (現 서울景福宮)	A. D. 1296

#### 木 塔 型

黄龍 9層塔(現 基礎是)慶州	A. D. 553
廣通 普済寺 7磨塔 開城	高麗 太祖
法住寺 (人相殿	1624 重創

石浮屠는 그寺利과 関係되는 歷代의 高僧들의 死後 그 舎利를 安置한 탑을 말하며, 石塔과 같은 形態이나 一般 的으로 塔身이 球形에 가까우며, 寺利 内外 各処에서 볼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寺制 境外 遇히 멀지않은 위치에 集団으로 大量 안치한 例도 볼 수 있다.

#### (2) 石燈(光明台, 長燈) 및 石床

石遊은 또한 燈籠이라고도 하며 俗雕山 法住事 事跡에 「燃燈閣…石獅子光明台一座,鋼鉄光明台一座」라 하였으니 閣이라 불리우는 木造의 石造 銅 또는 鉄製 等이 있음을 알 수 있다. 石燈의 위치가 대개 정원에 설치되는 것을보 아도 기름을 태워서 一般 정원屋外 照明用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天王教에서 常夜燈이 祭壇 中央線上에 크리스도彫像을 비쳐줌으로써 아직 예수께서 온 世上을 비쳐준다는 것을 나타냄과 한가지로, 佛国寺의 경우石燈이 大雄殿의 須爾壇上의 釋迦如来佛像 中心線上 前面과 石塔사이의 中心位置에 놓여있어서 釋迦塔, 多宝塔 및佛像을 다같이 비쳐줄수 있는 것을 보아도, 燈括因縁経을 비롯하여 佛教経典内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이부처님의 真理를 비쳐줌으로서 衆生을 깨우치고 善한 길을 택하게 한다는 等의 여러 깊은 뜻을 內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石燈의 各部名称은 別図와 갑다.(\*\*)

韓国에서는 現在 全国各地에 約 254個의 石燈이 있다고 하며 그중에는 約1割 정도의 陵墓石燈을 제외하면 大部 分 佛寺에 安置된 것 들이다. 이들중 重要石燈에 対한 — 賢表를 만들어 集計를 한 것은 別表와 같다. 이 集計는 서적 및 実際踏査 等을 通한 것이다.

以上의 集計에 따라 分類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 (1). 石燈은 그 外觀上 竿柱石의 形態에 따라 一般型 丹鼓腹形雙獅子 其他의 特殊型으로 分類할 수 있다.
- (2). 一般型은 大部分 8 角形이 標準이며 下台石 및 屋蓋石部分만이 4 角 8 角 16角 等의 変化를 発見할 수 있다.

石燈 앞에는 石床이 놓이며(例 佛国寺 大雄殿 石燈) 石床은 큰祭를 차릴 때 大香爐를 놓고 梵香을 하는데 쓰인다. 石床은 一名奉爐台 或은 - 石으로 불리우며, 佛国寺의 경우 그 크기는 四方 13.5m角으로 하여 石燈에 부쳐서 設置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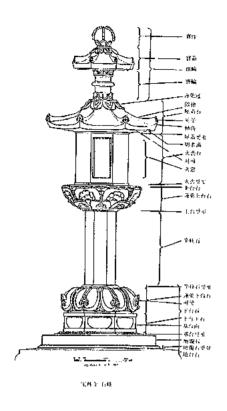
#### (3) 幢竿支柱

높이 3 及至 4 m의 石柱 한쌍을 支柱라 하고 中央에 設置하는 기둥을 幢竿이라 한다. 設置位置는 一定하지 않으나 대개 中庭 한쪽 또는 特利入口 等에 설치하여 4月8日 釋尊 誕生日 等의 大行事 때에 掛佛 또는 기를 거는데 사용된다. 掛佛앞에는 祭贖을 屋外에 임자로 장만하고 여러인과가 모여 축제 행사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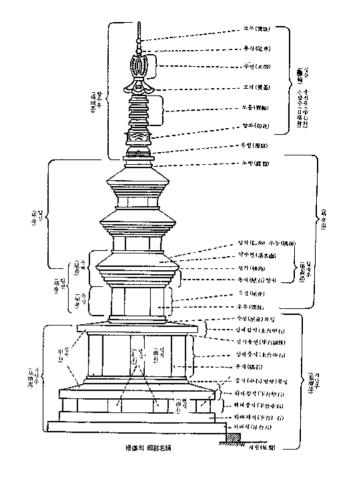
甲寺는 鉄幢竿이고 羅州 東門 밖에 있는 石幢竿의 例도 있다.(<sup>6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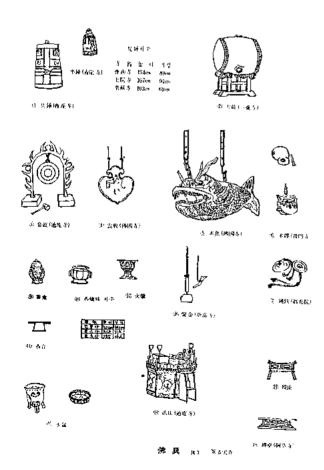
#### (4) 石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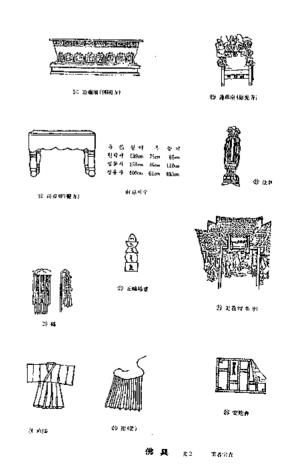
寺利沿革 等이 記入된 石碑는 一柱門 近処에 設置하며 佛殿 石塔 宗祖 等의 史蹟 等이 設縁된 石碑는 各各 그 近処에 설치됨으로 그 위치는 一定하지 않다. 石碑는 台 둘 둘거북 等의 등위에 설치한 것이 많이 보여지며 중요 한 石碑는 碑閣을 건축하여 그 內部에 보존한 例도 많이



發揮石龍과 各部名稱 資料:原列與,與同五級科 非大度數







#### 있다. (例 通度寺 碑閣)

#### (5) 石橋

中国의 寺利은 대개 寺利入口에 面하여 大規模의 蓮池를 둔 例를 많이 볼 수 있다. 修道者는 蓮꽃에 싸여서 極楽往生을 한다. 함 各種 佛像이 蓮華座임을 보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佛教에서는 蓮꽃과 関係가 많음으로 蓮池를 두는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蓮池의 비치어진 더욱 장엄하게 보이는 佛寺를 바라보며 石橋를 전너 佛寺에 발을들여놓는 사람의 마음에는, 俗世의 번뇌를 버리고 안정된 깨끗한 마음으로 寺利을 방문할 수 있음을 상상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예로 보아 前述한 바와 같이 佛国寺古今創記에도 蓮池, 金河玉泉이라 하였으니 紫霞橋 白雲橋 및 安養門 앞의 七宝橋 連華橋는 그 형태가 아취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도 蓮池에 架設되었던 石橋가 아니였는가 생각된다.

#### (6) 石 槽

돌을 파서 만든 石槽는 대개 寺利 炊事場에 가까운 中庭에 놓이며 각종 음료수를 저장 공급하는데 쓰인다. 皇龍寺의 石槽는 現在 경주 박물관에 있으며 한국에서도 가장 큰 편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佛 具

各 寺刹마다 各種의 佛具가 있는데 이를 用途別로 大別 하여 보면 大略 다음과 같다.

楽器 및 信号用 佛具 佛塘用 佛具 教理象徵用 佛具建物装飾用 佛具

祈願 및 僧侶所持用 佛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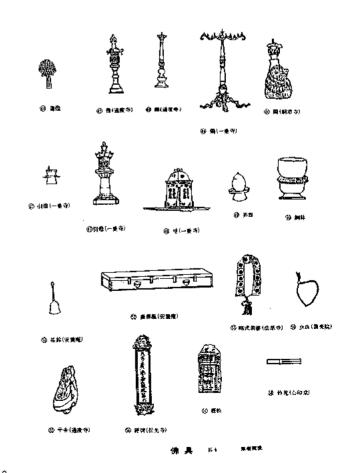
収蔵用 佛具 는 다음 表와 같으

各種 主要佛具의 各稱 및 用途는 다음 表와 같으며 그 外観形態는 別聞와 같다. 但, 여기에 表示한 佛具들은 筆 者 実査에 依한 것으로서 신흥불교종파에 기 조사한 것도 포함하였음을 追記한다.

### 佛 具(各 番号는 図面番号와 같음)

- ① 梵鍾: 철에서 대중을 모으기 위해서나 때를 알리기 위하여 치는 콘종이다. 鯨鍾, 釣鍾, 撞鍾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큰 것을 引磬이라 하고, 佛殿内에 놓이는 것 중에서 작은 것을 半鍾이라 한다.
- ② 大鼓: 큰북, 악기의 일종이고 쇠가죽으로 만들어지 며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친다.
- ③ 金鼓: 금속으로 만든 악기의 일종으로, 銅으로 만들 어 속을 비게 하고 위에서 달아드리우고 치는 기구이며 錠라고도 한다.
- ④ 雲板: 선종에서 育堂이나 부엌에 달고 대중에게 끼니 때를 알리기 위한 기구이며, 青銅으로 된 판을 구름모양으로만든 것
- ⑤ 木魚: 나무를 깍어 잉어모양을 만들어 속이 비계 파내어 불사에 쓰는 기구이며, 불전에서 염불·독경·배할 합 때나 공양할때 대충을 모을 때 사용한다.

木鐸:木魚의 일종으로 둥글게 만든 木魚 우리나라에서 는 목탁이라 한다.



- ⑦ 巍鍼: 法会에 쓰는 금속의 악기로 금속으로 만든 평 평한 접시모양 같은 것 두 개로 되었고, 각각 중앙에 끈 을 달아 좌우 손에 한 개씩 들고 서로 비벼쳐서 소리를 낸다. 우리나라에서는 '바라'라고도 한다.
- ⑧ 경쇠(醫金): 矢으로 주발같이 만들어 복판에 구멍을 뚫고 자루를 달아 노루뿔 등으로 침, 범식을 행할 때에 부전이 쳐서 대충이 일어서고 앉는 것을 인도하는 불전의 기구.
- ⑨ 香貧: 향을 담은 합으로 흔히 나무로 만들어 못칠한 다.
- ⑩ 香爐: 향을 피우는 그릇으로 흔히 금속이나 도자기 로도 만들며 모양도 가지가지이다.
  - ① 香臺: 향로를 올려놓는 臺
  - ⑫ 火爐: 숯불을 달아두는 그릇
- ③ 水盆: 물을 담고 그 곳에 꽃이나 괴석을 담아넣어 두는 그릇
  - ④ 法床: 說法하는 중이 올라와 앉는 床
- ⑤ 経机: 경전을 넣어두는 상자로서 앞과 뒤에 작기 두 개의 짧은 다리를 떤 机. 그 작은 것은 経床으로도 代用.
  - (B) 佛卓: 부처를 모신 탁자.
  - ① 須彌壇:寺院의 本殿 室内 中央正面에 보이는 佛壇
- ⑧ 前卓: 수미단 전면에 안치하는 단으로 설법시에도 사용되다.
- ⑨ 連華座:佛・菩薩이 앉혀져 있는 연화의 臺座. 華座・ 蓮華臺・華臺・蓮臺라고도 한다.
- ⑩ 位牌: 축은이의 이름을 써서 불단위에 안치하는 판 목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나무대신에 종이로 접어서 만들 기도 함.
- ② 幡:絵幡, 幢幡이라고도 한다. 불·보살의 위덕 을 表示하는 장엄도구인 깃발로 이것을 만들어 달고 복을 빌 기도 한다.
- ② 五輸塔姿:五解脱輸, 五輸이라고도 한다. 地・水・火・風・空・의 五大量 표시하는 석탑.
- ② 天蕃: 불전안에서 佛座 또는 높은 좌대를 덮는 장식 불.
- ② 直 : 스님들이 입는 옷이름으로 옛날의 偏視과 裙 가를 합하여 꿰엔 것.

- ② 裙: 승려의 허리에 둘러 입는 짧고 검온 옷이며 치마처럼 많은 주름이 있다.
- ② 安陀会: 3 衣의 1. 内衣・中宿衣・裏衣・下衣, 5 조 가사라는 뜻이며 당나라 측전무후가 축소하여 禅僧들에게 준 후로 잠살위에 입게되었다. 지금의 낙자.
- ② 五鉅 : 불교에서 쓰는 法具. 金剛杵로 요령의 자루를 하되 한끝을 오고로 한 것.
- 23 五股杵: 금강저의 五釗로 된것을 말한다. 밀교에 대한 중요한 法具. 5고는 5智·5佛·5部를 표한 것.
  - ② 三 : 세갈퀴로 된 금강저
- ③ 金剛盤 또는 金剛盤子: 金剛鈴과 金剛杵를 담는 도구이름, 쇠붙이로 만든 심장 모양의 盤으로 아래는 세발 이 붙는다.
- ① 拂麈:삼이나 집승의 털을 묶어서 자루를 한 끝에 매어달은 기구. 주로 모기·파리따위를 쫓는데 쓰는 도구. '총채'라고도 한다.
- ② 銭枚: 승려가 짚는 지팡이의 上部는 주석・ 중부는 나무・하부는 뿔・牙를 사용. 우리나라에서는 六環杖이라고도 한다.
  - ③ 座具: 바구니가 앉을 때에 까는 방석.
- ④ 香象:象爐라고도 한다. 秘密灌須道場에서 쓰는 도 구.
- ⑤ 三賓印: 선종에서 쓰는 印章 전자로 "佛法僧寶"라는 역자로 새긴 도장.
- ⑩ 佛 : 불상을 모시는 조그마한 집이며 세워만든 독 (續)좌우에 여닫는 문이 있다. 주자(廚子)라고도 한다.
- ③ 頓画:불·보살·성현들의 초상을 그린 그림.
- ③ 後奇:불・보살상의 목뒤에 있는 광명.
- ③ 華鎣(화만) ; 꽃으로 만든 꽃다발. 실로 많은 꽃을꿰거나 또는 묶어서 목이나 목에 장식하는 것.
- ⑩ 같마금강(羯啓金剛): 3 鉛杵를 一字로 교차한 것으로 밀교 특유의 法具.
  - ④ 護摩壇: 호막법을 수행하는 단
  - ④ 보성계 ⑥ 복전함 ④ 화병 ⑤ 蓮燈 ⑥ 燈
  - ④ 축대 ⑥ 인동 ⑥ 연 ⑤ 茶器 ⑤ 銅鉢
- ᠍ 揺鈴 ③ 掛佛箱 ﴿ 약식가사 ⑤ 염주 ⑤ 구유
- ⑤ 経牌 ⑧ 経帙 ⑧ 竹篦

# 보호받는 자연만이 나의 호흡맑게 한다

정정 4월호 본협인원 장종률이사 양력중(국세원 건축국)은 오기 였음을 밝힘.

# 第2次 文芸中興 5個年計画立案을 為한 公開討論会

# 文 化 一 般

#### 金 璟 東

서울大学校 教授

지난 5月 10,11 両日에 결쳐 文化公報部, 韓国文化芸術振興院 主催로 振興院 講堂에서 文芸中興에 関한 公開討論会를 갖었다.

이 討論会에서 発表된 論文中 文化一般, 国学, 民俗芸能, 文化財, 文学, 芸術, 公演芸術, 大衆文化 그 - 部만 抜萃하여 紹介코자 한다.

#### I. 序

文化一般分野에서는 1979년부터 始作是 第2次 文化中 興 5個年計画의 基本方向을 検討 定立하고 財源開発을 包含하는 制度的 基盤造成의 問題와 国際交流의 積極化 를 위한 方案을 模索하는 일을 主로 다루었다.

우리나라는 결고 험난한 歷史를 지니면서 強力한 外勢의 영향 아래서나마 独自的인 文化伝統을 지키고 꽃피워왔다. 그러나 이러한 文化民族으로서의 正体性이 오늘날만큼 흔들리게 된 때도 歷史上 드물다. 그것은 政治軍事的인 占領이나 強要때문이 아니라 세계가 하나의 経済体系로서 国際的인 相互依存度를 높이게 된 近代化의 国際的 脈絡 때문이다. 특히 交通 通信技術의 急速한 発達로인하여 全世界는 深刻한 空間概念의 変質을 経験하고 있다.

이와 같은 国際的인 近代化의 力学속에서 모든 나라들은 事実上 자기의 民族文化의 正体性에 대한 새로운 関心이 高潮되고 있거나와 2次大戰 以後에 工業化나 経済成長을 시작한 나라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民族主義的인 色彩를 되면서 더욱 活発하다. 産業革命이 西洋의 座物이기 때문에 이를 導入採用하고 있는 新進工業国들은自然히 西欧와의 接触이 深化되고 経済的 依存度가 또한 높아짐으로 해서 그 文化的 영향도 크게 받게 된다. 이러한 때일수록 経済新進国들은 文化的 正体性의 危機를 当面하기가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10餘年에 결천 史上 類例가 드문 急 敵한 経済成長을 이룩하는 過程에서 바로 이와 같은 文化的 正体性의 問題를 直面하기에 이르렀다. 그 동안은 経済成長에 汲汲한 나머지 혼히 소홀해지는 쉬운 文化芸術의 振興에 대한 関心이 事実上 低調하였던 것은 否認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輸出 100億달러, 1 人当 国民所得 1 천달러의 関門을 通過하여 経済新進国中에서 는 저만치 앞서가는 国民으로 自処하게 되었으니만큼 그 토록 엄청난 業績을 쌓은 国民다운 모습을 띄자면 역시 文化民族으로서 발돋움을 하고도 남을 때에 이르렀다고 할 반하다.

그러한 覚悟의 한 표현이 第1次 文芸中興 5個年計劃이라 하겠다. 이제 第1次 계획을 마무리짓는 단계에 들어선 때 다음에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2次計劃의 基本方向과 基盤造成策을 생각하며 또 활발한 国際的인 文化交流를 통하여 文化発展을 피하는데 寄与하고자 하는 바이다.

#### Ⅱ、基 本 前 提

위에서도 밝혔듯이 한국이 経済中進国으로 国際舞台에 나서고 있는 이때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 온 文芸振興의 意識的인 方案을 講究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基本前提를 바탕으로 하여 이에 臨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文化芸術은 本質的으로 그 자체 経済成이 있는 것으로 불수는 없으나 文化芸術이 꽃피리면 現代社会에 서는 적어도 그를 促進시키기 위한 経済的 바탕이 先行되 어야 한다. 人間의 創作活動은 궁극적으로 人生의 意味 를 이해하고 自己実現을 이룩하는 表出的인 行為이다.

그러나 日常的인 衣食住 문제를 염려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 뛰어난 창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全国民 이 経済的으로 困窮하던 時代에서 바야흐로 脱皮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제야말로 文化芸術의 창작과 文化伝統의 再創造를 위하여 인색하지 않아도 좋을 형편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사기가 지나면 어

느 정도 文芸活動 자체가 経済性을 별 시대가 울것이지만 그때까지는 적어도 国際的인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莫大한 支援이 필요하다.

둘째, 같은 論택로 사람이 衣食住의 여유가 없을때는 生計에 급급한 나머지 文芸鑑賞이란 한갖 사치스러운 活 動에 不過할 수가 있다. 하지만 상당한 経済成長을 이룩 한 오늘날에 와서는 文芸鑑賞과 文化活動에 대한 需要가 또한 늘어날 것이다. 이에 알맞는 文芸創作과 普及, 公 演, 発表, 展示 등의 供給面에서의 증가도 따라야 할 것 은 自明하다.

세째, 그러한 量的인 증대는 자칫하면 質的인 低下를 수반하기가 쉽다. 더군다나 電子媒体 또는 기타 大衆伝 達媒体의 발달로 文化芸術의 大衆化가 挑戰받게 될 때 거 가에나 商業主義까지 곁들이게 되면 文芸의 質은 상당한 試練을 겪을 수 있다. 흔히 文化의 高低을 따지지만, 高 等文化라고 만드시 芸術的인 質이나 文化的인 価値가 역 사 높은 것은 아니며 大衆文化라고 그것이 꼭 低質의 것 이어야만 할 까닭도 없다.

네배, 이와 관련하여 経済成長의 열매를 止当하게 配分하기를 期待 要求하는 社会正義의 觀点에서 볼 때 質이좋고 価値있는 文化의 惠沢은 골고루 各界各層에까지 미청수 있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経済成長과 아울려社会開発을 통한 福祉社会의 建設을 指向하고 있거니와 그 福祉의 개념 속에는 文化的인 福祉까지도 포함되어야한다. 이는 階層別, 地域別, 世代別, 男女別 기타 갖가지의 区分에 따른 隔差量 解消시키는 일을 뜻하기도 한다.

다섯째, 経済成長은 國民의 文化需要를 자극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精神生活을 貧弱하게 하고 精神健康에 有害한 결과를 초레하기도 한다.

高度成長을 통한 工業社会의 成就에 따라 일어나는 青少年層과 老年層의 疏外現象이라는가 個人主義的인 性向의 풍미, 퇴폐중조의 만연 등은 사실상 그 자체로서도 문제시 되어야 할 争点이지만 또 나아가서는 이로 전하여 国民의 統合이라는가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経済成長,社会開発 등 国家発展의 出害要素로 作用한 공산도 크다. 그러므로 文芸中興은 全国民의 均衡된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精巧化시켜 수는 구실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하여 앞날의 国家発展을 위한 새로운 혐도 용 솟음 칠수 있을 것이다.

마치막 여섯째로 그러나 가장 核心的인 것은 이 모든 面을 고려하여 추진되는 文芸振興事業은 우리民族의 文化的인 主体意識을 한총더 무령이 함으로써 世界文化의 発展에까지 貢献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点이다. 이는 文化伝統에 대한 음마른 이해에 바탕을 두고 自主的이며 独創的인 文化芸術의 끊임없는 再創造를 거쳐석만이 可能하다.

촌히 伝統이다 伝統文化다 固有文化다 하는 말들을 함 부로 쓰지만 따지고 보면 순수한 뜻의 固有文化란 있을수 없다. 한 文化単位인 社会가 伝統的으로 伝承해 온 바의 文化遺産은 항상 남의 것을 받아 들여서 그것을 우리나름 으로 適応 採用하는 가운데 創造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것이 바로 固有文化이고 그 속에는 伝統的인 要素와 새로 운 要素가 加味되어 있는 法이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文化伝統이며 앞으로의 文化伝統은 또 우리 世代로 부터 끝없이 再創造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물론 물려 받은 伝統的인 文化 가운데는 오늘을 살고, 내일을 향해 발돌음하는 우리들에게 有用한 것과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도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盲目的인 復古主義나 国粹主義的 自己民族中心思想은 禁物이다.

自主的 文化伝統의 定立開発은 바로 이와같은 伝統的 안 것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하여 그것과 外来의 것의 번 증법적인 止揚을 거쳐 새로이 창조하는 데에서 찾아야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이태을로기나 政治權力의 손길도 뻗히지 않고 그 正統性을 지켜 나가는 데에서 빛이 나게 된다. 우리가 文芸振興策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北韓文化의 非正統性을 批判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나아가서 世界에 우리의 文化的인 光彩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에도 이러한 文化正統과 自主文化의 중요성을 더 이상 강조할 수가 없을 것이다.

#### 皿. 計劃의 目標外 方向

#### 1. 基調

무엇보다도 第2次計劃의 기본목적은 第1次計劃의 기조에서 강조된 바우리의 伝統속에서 값있고 소중한 文化 遺産을 찾아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自主的인 民族文化를 創造함으로써 새로운 文化伝統을 樹立하고 文化 中興을 이룩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基盤造成에 注기해 왔거니와 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일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다음 단계로 나야가 文化創造와 文化伝播를 적극 지원하는 일에 주안을 두어야 한다.

#### 2. 重点目標

앞에서 열거한 基本前提와 基本目的을 달성하려 함에 있어서 좀더 특징적인 水準에서 重点을 두어 추구하려는 目標는 대충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첫째로 経済的 先進國의 지위를 굳혀가고 있는 이 마당에서 文化的으로도 先進國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우선 우리가 물려받은 文化遺産과 世界文化芸術을 調和있게 吸収 再創造함으로써 새로운 自主的인 民族文化를 일으키는 일에 力点을 두어야 한다.

둘째로 経済成長과 더불어 社会開発을 추진하는 이때 文化的인 惠択을 階層, 地域, 世代, 男女別의 区分을 망 라하여 골고루 享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全國民이 名実 共前 文化民族으로서의 均衡있는 生活을 누릴수 있도록 文化福祉社会를 이룩하는 바탕을 마련하여야 한다. 세째로 우리文化의 発展은 世界의 여러 文化들을 選別 受容하되 이를 積極的인 자세로 받아 들어고 그것과 우리 의 伝統的인 文化遺産을 한데 어울려 새로이 창조함으로 써 더욱 꽃필 수 있다.

한편 우리가 불려 받은 文化伝統과 또 새로이 창조하는 文化芸術을 世界에 널리 알림으로써 文化民族다운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사실 한국이 세계문화의 발전에 경제적, 기술적인 공헌을 하려는 것보다는 더 값지고 主体的인 기여는 바로 우리文化의 적극적인 전달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계획기간 중에는 文化의 国際交流를 強 化하는데에 重点的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째로 民族의 念願인 統一을 추구함에 있어서 南北의 文化的인 괴리를 올바로 인식하고 北韓文化의 虚構成과 政治的 剛一性에 대한 研究을 통하여 民族的 文化正統性을 재확인하는 일에도 注力할 것이 건요하다. 이로써 통일과업에 있어서의 主導力을 기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文芸振興事業을 推進함에 있어서 経済成長과 文 化発展의 相互期関性을 重視한 뿐 아니라 制度的으로도 各 政府单位는 불론 政府와 民間의 協力体制을 強化하고 統一된 文化政策을 추진할 수 있는 機構의 模索도필요하다.

#### Ⅳ. 基盤造成

위의 基本目標을을 達成하기 為하여 우선 그 基盤造成의 方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基 盤造成의 基本方向을 몇가지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고자한다.

#### 1. 人間資源의 問題

무엇보다도 文芸活動이란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리고 文芸振興도 사람이 해야 한다. 자금까지의 趨勢로 보아 人間資源의 問題를 이와 같은 두가지 側面에서 検討하고 그 改善策을 講究할 必要가 있다.

가. 文芸人을 為한 誘因体系

이미 文芸活動에 対한 各種 経済的支援은 推進해오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더욱 확충해야 한다.

그러나 이세부터라도 생각해야 할 것은 著作權, 印稅같은 経済的인 유인체계의 하충개선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特히 芸術分野의 境遇), 이들의 質的向上과 文芸活動에 対한 献身没入, 士気昂揚, 自負心과 矜持의 함양等을 促進시키기 為하여 새로운 誘因体系의 模索이 必要하다.

그 일예로 유럽에서와 같이 一定한 質的 位階에 의한 栄養의 賦与, 水準以上의 文芸人에 対한 年金制度의 実施 等 본后의 生活 対策과 保障策의 마련, 特殊한 人間文化 財의 特別 保護措置, 人間文化財候補制 같은것을 通하여 栄養의 賦与等을 들 수 있겠다.

이런 制度는 各 個人의 文芸活動에서의 자국만되는 것

이 아니라 새로운 世代에게 安心하고 一定한 職位를 불려 줄수·있게 하며 文芸界의 신전대사를 또한 促進할수있다.

#### 나. 새로운 人的資源의 養成

한전 새로운 人力을 養成하는 일도 時急하다. 特司 伝統的 文化遺産의 발굴, 전승, 제발에 있어서는 古典번역사, 各種 人間文化財의 후제자 等의 体系的인 訓練計劃의樹立이 속히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各種 장학制度, 교과과정의 体系化, 教育方法의 合理化 等도 건요하지만 또 앞서 指摘한 바와 같은 社会的 誘因도 必要할 것이다.

#### 中, 文芸関係 人的資源의 養成과 再訓練

아울려 文芸関係 専門家와 文芸專擔 行政要員, 立法過程에 参与하는 法務官 等의 政府要員의 積極的인 養成과 訓練도 必要할 것이다. 이는 特殊한 文芸專担 職責을 専 門化시키는 일과도 並行되어야 한다.

国立劇場, 音楽会館, 美術館, 博物館, 図書館 其他 各 文化関係部処의 行政官 等의 専門職化를 퍼한다. 必要에 따라서는 別定職制나 身分保障制을 採択하여 永久性, 持 続性, 能率性을 살리는 것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大衆媒体를 通한 文化전파의 기능을 質的으로 向上시키기 위하여 TV, 라디오 其他 언론기관의 文芸専 門家 또는 製作者, 企劃者, 作家等의 訓練과 아울러이들 의 誘因을 위한 政策的 配慮도 진요하다.

나아가서는 伝統文化의 教育, 普及을 위하여 各級学校의 教師 가운데에서 特別 教育訓練을 거쳐 이를 専担하도록 권장할 必要가 있다. 그뿐 아니라 海外旅行者들의 境遇에도 特別 教育課程을 設置하여 伝統文化와 韓国文化에 対한 基礎的인 理解를 가지고 外国에 나갑으로써 文化外交의 一翼을 担当게 하는일도 必要하다.

끝 으로 文芸批評家의 境遇에도 分野마다 専門的안 教育을 가지고 이에 입할수 있는 教育制度와 訓練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2. 制度的인 調整

文芸中與 基盤造成을 위해서 人的 資源의 問題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特히 従来의 경험에 비추어 相当히 本格的인 変革을 要하는 分野가 바로 이 制度的인 調整의 問題이다. 이 問題는 法的인 절차와도 関係가 깊은 동시에 政府組織上의 問題点과도 直結되는 것이므로 간단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도 이런 問題가 解決되지 않고봐서 効果的인 文芸振興策의 수행이 대단히 어렵다는 점은 더 강조합래야 할 수도 없는 성질의 것이다.

#### 가. 計劃樹立過程에서의 調整

어차의 文芸振興 事業도 財政的인 뒷받침을 必要로 한다면 적어도 이점에 있어서 크게 두가지 問題가 考慮 되어야 한다. 첫째는 문예중홍 計劃期間을 経済計劃期間과 맞추어 再調整하는 일이다. 문예진홍 事業의 主要部分은

経済成長의 社会文化的 結果 내지 影響을 考慮하여 이를 국복하는 일인 同時에 実際로 経済成長政策이 推進되는 동안에 갖가지 文化的인 유산들의 処理가 非合理的 으로 되는 수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고 合理的이고 体系的인 조처를 하기 위해 서는 経済計劃과 同時에 그 結果를 豫備的으로 탐사하고 検討하는 過程에서 文芸中與計劃도 樹立하는 것이 긴요 하다.

둘째는 文芸振興事業이란 단시일 안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点에 유의할 것이다. 具体的인 프로색트나프로 그램에 따라서는 1年 单位로 結果를 보고 다음것으로 연결 또는 종식될 수도 있지만 내부분의 境遇에는 中長期的인 性格을 띄고 推進하는 것이 実効를 거둘 수 있는 질이되는 것이다. 따라서 1年単位의 政府豫算体系는 相当한制約을 內包하고 있다. 이는 앞서 指摘한 文芸專門 家의養成, 保障制度의 마련과 같이 文芸活動의 連続性과長期性을 위해 반드시 調整될 必要가 있다.

事実 文芸振興事業이 지나치게 政府豫算과 直結되어 있다는 접자체도 再檢討할만한 것이다. 이는 공언급하려고하는 政府 各部処間의 分業과도 関係가 있고 地域間 자원배정 問題와도 直結되는 것이므로 果敢한 조처를 시급히 要하는 項目이다.

나. 政府組織体 单位間의 業務調整과 協力体制의 確立 지금까지의 文芸振興計劃 推進에 있어서 支障을 招来해온 制度的인 問題가운데 가장 深刻한 것의 하나는 文芸業務의 分化規象에서 招来되는 非能率이라고 할 수 있다. 文芸事業에 해당하는 業務가 적어도 文公部와 文教部로 잘라져 있을뿐 아니라 海外問題에 가서는 外務部와도 関聯되고 또 国内 各種 人口集団(가령 青少年, 老年層, 女性등)에 対해서는 保社部와도 関聯이 되며, 그밖에도 建築関係, 道路関係, 地方自治団体와의 関係등에 있어서도 各種 機関들이 直接 間接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問題의 해결을 長期的으로 보면 文芸振興関係 業務 를 管掌하는 統合機構의 設置 + 必要할지도 모른다. 그러 나 段階的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서라도 各機関의 分 業을 調整하여 有機的인 関係를 이룩하고 일의 効率을 거 둘 수 있는 調整委員会라든가 그와 類似한 機構가時急히 要請된다.

이 問題는 計劃樹立, 豫算編成의 段階에서부터 計劃施行, 評価에 이르는 모든 過程에서 항상 대두되는 것이다. 特히 現在만 해도 地方 自治団体와의 関係에서 業務遂行을 위해 利用할 수 있는 機構는 매우 빈약하다. 따라서 文芸事業의 部門別 分業의 調整統合은 勿論 地域間 人間集団別 여러시책의 計劃樹立, 施行을 統合調整하는 어떤 形態의 全体的 企劃調整機能을 専担할 機構가 必要하다.

이는 계속 研究를 要하는 問題이면서도 당장에 不可欠 한 것으로 판단된다.

現存 文芸振興委員会의 機能을 活性化 사키든가 그에 対応한 만한 委員会나 政府機構의 繁要性을 다시 強調하 는 바이다.

#### 3. 財源調達과 確保의 問題

여태까지 文芸振興事業을 위한 財源의 調達은 一部 政 府豫算과 또 受惠者頁担原則에 의거한 各種 観覧料 等에 依存하여 왔다.

그 동안 法的 節次를 밝아 資産家나 企業이 献金하는 境遇에 税制上의 惠沢을 賦与할 길을 마련하였다. 앞으 모는 이와 같은 方法으로 資源을 調達할 뿐 아니라 長期 的이 財源의 確保까지도 識光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境遇에 強調되지 않으면 안될 点이 두어가지 있다

첫째로 資産家나 企業法人体가 献金, 寄附하는 행위는 단순히 稅制中의 惠沢의 追求나 慈善事業인양 생각하는 자세에서 되어져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国民 모두가 合心하여 이룩한 経済成長의 열매로 얻은 富의 자그마한 部分이나마 社会에 되돌려준다는 義務 行為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行動을 通하여 国家的인 文化発展에 寄与할 뿐 아니라 앞으로 継続 経済成長을 이룩하는 씨를 뿌린다는 積極的인 자세에서 우리나와야한다.

한편 이러한 行為에 対해서는 그만큼의 社会的인 報價이 따르도록 配慮하는 것이 마땅하다. 비록 그것이 社会 福祉를 為한 義務行為라 해도 寬大한 寄与일 境遇에는 그 에 걸맞는 栄養나 社会的反応이 있음으로 해서 더욱 誘因 으로서나 反対給付로서의 効果가 있을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特殊한 資原을 어떤 式으로 活用하는가에 따라 이 点도 함께 考慮될 수 있다. 勿論 現在로서는 당장에 拡充해야할 各種 施設이나 誘因의 財源으로 使用될수도 있다. 이런 境遇에는 融納하는 個人이나 法人体에게 特定한 栄養 또는 特典을 부여할 수도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献納規模의 大小에 따라 이것이 지나치게 차별을 나타내서는 困難하고, 또 한편으로는 長期的인事業을 為한 基金의 마련을 위하여 大規模 資源의 공납을 利用할 必要가 생경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와 関聯하여 有数한 大衆伝達媒体를 運営하는 各 企業体에서도 이 事業이 利潤과 연결됨으로써 희생되는 文芸経験을 보상한다는 뜻에서 그 純益의 一部를 文芸振興事業에 割愛하도록 중용, 권장 또는 境遇에 따라 行政的으로 要請하는 方法도 있다. 가령 웬만한 방송시설을 갖춘 순간라면 專属 심포니 오케스트라나 劇団 발레団, 오케라团 展示場 等을 갖추고 이를 積極 支援 育成하는 方案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事業上 政治的인 地方自治制가 存在하지 않는 実情에서 各 地方의 文芸振興을 為한 豫算이나 財源의 確保는 대 우 시급하다. 中央과 地方의 統合的 연제는 勿論 緊要하 자반 이것이 비단 政府水準에서만 머물것이 아니고 또 各 地方에서는 地域別로 위에서 指摘한 바와 같은 資源調達 과 確保에 힘써야 할 것이다.

#### 4. 法規上의 整備

위에서 列挙한 및가지 基盤造成 指針에는 모두 直接 間

接的으로 法規上의 再調整 또는 整備가 要求된다. 이외 구체적인 実例는 省略하겠지만 人的 資源의 養成訓練保障 行政要員의 確保의 身分保障, 教育体制上의 強化, 機構의 調整, 財源의 調達과 確保等 모든 面에서 이를 뒷받침해 주고 積極 支援해 주는데 조금도 支障이 없도록 法制上의 調整, 整備가 꼭 必要하다.

그리고 이 問題는 다음에 言及하고자 하는 文化的 国際交流에도 該当되며 구체적인 分野마다 그러한 조처가 따라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여기에서 指摘해 둔다.

#### 5. 文芸成果의 共同享有響 위한 조처

基盤造成에서 끝으로 言及할 것은 文芸振興事業을위한 各種 物理的인 施設의 拡充을 둘 수 있다. 各種劇場, 美術館, 博物館, 図書館, 音楽会館, 展示場 等 文芸活動의 発表 또는 伝播機関을 뜻한다. 이런 施設의 拡充이 時急 하다는 것은 누구나 認定하겠지만, 이것이 各界各層의 国 民에게 均衡있게 共同으로 享有되어야 한다는 데에 焦点 을 둘 必要가 있다.

우선 地域的인 分布의 均衡을 들수 있다. 우리 나라는 그 동안 経済的인 基盤 뿐 아니라 特히 文芸分野에서 地域的 差異가 서울과 地方, 都市와 農村등에서 심각하였다는 것을 감안하여 이에 대처할 必要가 있다.

다음으로는 年台層에 따라 青少年의 정서 순화의 問題는 대단히 시급하여 老年層의 福祉를 위해서나 婦女子의 여가선용을 장려함으로써 그들의 退頹性向을 막기위해서라도 이들어 널리 항시 이용하고 즐길수 있는 시설과 艾 芸発表가 있어야 할 것은 더 강조할 必要도 없을 것이다.

境遇에 따라서 주어진 시설이 一定期間만 活用되고 長期間 遊休하지 않으면 아니될 수가 있다. 이것을 막고 항상 有用하게 年中開館할 수 있는 方法으로 地方公演이냐 展示를 義務化한다는가 企業이나 学校가 一定期間貸切하여 社員과 学生들이 계속 文芸生活을 영위할 수 있도록 義務化 내지 권장하는 方途가 있다.

그리고 運営의 妙를 살려 國立劇場 같은 것이 未分化 상태로 각분야의 단체가 起用할 것이 아니라 技能的으로 專門化함으로써 모든 施設의 活性化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적어도 2次 計劃期間 中 여와 같은 部面의 기반조성은 대충자리가 잡혀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 V. 国際的2 文化交流

궁극적으로 우리文化의 自主的인 発展은 国際무대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文化民族으로서의 위치와 직결된 다. 그리고 独創的 文芸中興은 또 한편으로 発展하는 世 界文化의 積極的인 摂取의 再創造에서 일어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우리가 世界文化의 発展에 重要한 몫을 차지 한다는 진취적인 자세가 必要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2 次 計劃期間 다에는 최소한도 우리문화의 海外 소개라는 입장에서 반성할 바를 돌아켜보고 이의 積極的 改善에 나 서야 할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側面에 서 이 問題를 다루어야 할줄 안다.

첫째로, 韓國文化의 海外소개를 合理化, 体系化, 長期 化할 必要가 있다. 이 가운데는 몇가지 구체적인 考慮事 項들이 포함된 수 있다.

우선 한국문화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소개하는 것이 가장 有用하고 効果的이며 価値있는지를 판가름하여야 한다 伝統的인 文化遺産이라고 아무거나 내다 놓는다거나 文芸創作物이라고 반드시 내어 놓을 만한 것인지를 전문가들의 자문에 의하여 면밀히 検討 평가하고 內実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소개하는 方法도 번역이나 기타 창작품의 소개에 있어 반드시 専門的이고 体系的인 解說을 수반할 것이 긴요하고 또 可能한대로 規地의 言語로 이를 풀이하고 規地의 매체를 통하여 広告하도록 規地의 知性人을 최대한 이용 할 것이다. 이 境遇 되도록 政府의 刊行物을 피함으로써 不必要한 固定觀念이나 오해를 풀 수 있고 전문가 学者들 의 입과 글을 최대로 이용할 것이 긴요하다.

한편 国内의 人力 가운데서도 海外文化소개를 專担하는 전문가도 양성할 必要가 생긴다.

그리고 이미 海外에 진열된 或은 出版소개된 文芸物을 감정하고 재평가해서 개선, 대치, 수정은 물론 더욱 확 충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韓国文化의 海外소개를 積極化하기 위하여 外国의 文化関係 言論人들을 채계적으로 초차하는 것도 진요하다.

그뿐 아니라 이미 앞에서도 喜及한 바이지만 海外에 旅行하는 各界各層의 韓国人들에게도 기초적인 韓国文芸, 伝統文化의 육산 등에 관한 교육을 安保教育처럼 의무화시켜서 民間文化交流의 한 부분을 담당하도록 권장할 것이다.

둘째로 海外文化의 受容面에서 韓国이 主催하는 音楽会, 学会, 展示会 등을 国際化하는 方案을 講究할 것이다. 적이도 아시아를 中心으로 하는 各種 学会 문화세미나 등은 韓国에서 성기적으로 主催할 수 있도록 支援하고 장려해야 할 것이다.

골으로 国際 文化交流의 政治的 行政的 側面에서 文化 協定의 多辺化의 또 그 活性化를 促求하되 可能하면 共産 圈을 포함하여 積極的인 자세로 이에 임할 것이 必要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国内에서 文化関係 各 政府单位의 参 도와 協力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단 文化協 定에 국한되지 않고 활발한 文化交流를 推進하기 위해서 國際文化交流를 長期的인 銀ඩ에서 企劇하고 調整하는 統合機構도 확보할 必要가 있다.

### 文芸中興宣言

우리는 民族中興의 歷史的 転換期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계례의 運命을 決定짓는 根源的 힘은 그 民族의 芸術的 文化的 創意力이다. 芸術이 創意力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을 찾았을 때 나라는 與한 이 新羅統一의 偉大한 業績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証明한다. 다.

우리는 질이 남을 遺産을 開発하고 民族的 正統性을 이어 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驚戒하고 分別없는 模倣行為를 배척하고 천박한 頹廃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芸術을 확고한 伝統속에 꽃피우고 우리 文化를 튼튼한 主体性에 뿌리 박게 한다. 하며

우리는 祖國의 現実을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來日을 위하여 価値意識과 史觀을 바로잡고 表現의 自由 와 文化의 自主性을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文化의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芸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身의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文化의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裝術家, 모든 文化人들은 온 国民과 同参하는 隊列에 서서 芸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 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芸中興을 이룩할 것을 宣言한다.

# 美術

### 李 逸

弘益大学校美大教授

#### 1. 序

第2次 文芸中興 5個年 計劃 立案에 즈음하여 美術分 野는 그 基本 方向을 다음 4個項目으로 접약했다.

- 1. 美術館 및 常設展示場의 問題
- 2. 美術創作 지원의 問題
- 3. 美術 国際 교류의 問題
- 4. 其他

그러나 이 4個項目은 각기 복합적인 問題点을 内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項目 相互間에도 密接하고 有機 的인 연관성을 지나고 있음을 마리 지적해 두는 바이다. 이하 각 項目別로 問題를 제기해 나가겠다.

#### Ⅱ. 美術館 및 常設展示場의 問題

美術館의 問題는 現存하는 国立現代美術館을 包含하여이 기 전립되었거나 앞으로 전립되어야 할 各 市立美術館의 問題와도 舆聯되며 또 常設展示場의 境遇도서울의 美術会館(文芸振興院 附設)을 包含하여 이 역시 美術館의境遇에 準한다.

#### 1. 国立現代美術舘

가장 基本的이요 源泉的인 問題로서 国立現代美術館에 제기되는 것이 現代美術館으로서의 명실장부한 機能의 拡充이다. 이 問題는 다시 다음의 5個 項目으로 나뉘어 전다.

- 編制 改編
- ② 美術館 専門要員의 양성
- ③ 附帶施設의 拡張
- ④ 国内外의 美術情報센터의 設立
- ⑤ 収蔵作品의 確保
- 가. 編制 改編

오늘날까지 国立現代美術館의 編制는 완전히 行政的 次元의 것으로 머물러 있다. 舘長職은 文公部의 局長級 의 行政職이며 개관(6年)이래 오늘까지 여러名의 「館長 이 바뀌었다. 따라서 美術館 運営의 一貫性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또 그뿐만 아니라 専門職이 아니기 때문에 美 術館의 機能을 允足하게 살라지 못했다. 外国의 例를 들 것도 없이 国内의 境遇를 들더라도 国立中央傳物館은 舘 長으로 부터 学芸官에 이르기까지 専門家로 구성되어 있 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現代美術館에는 学芸官 제도조차 없으며, 앞으로 이 学芸官 제도의 도입과 아울러 舘長職 도 적어도 次官級의 專門職으로 하는 機構的인 改編이 요 방된다.

나. 美術館 専門要員의 양성.

美術館 機構의 専門職化와 이에 따르는 美術館 機能의 専門化에 따라 美術館 運営의 専門要員 양성이 시급하다. 이 専門要員은 美術館의 行政的 管理을 때놓고 다음 두가 지 카테고리로 大別함 수 있다.

- ① 現代美術館의 所管 対象이 되는 美術分野 전반에 결 회 専門家.
- ② 収藏作品의 保存・管理을 전담하는 專門家가 그것이다. 後者의 境遇는 作品의 補修, 作品 管理을 위한 湿度・温度 조정等에 対한 專門家가 包含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長期的인 海外 研修課程이 必要할 것으로 사료된다.

#### 다. 附帯施設의 拡張

美術館은 단순히 作品展示만으로 그 機能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대중과 美術의 만남의 媒介体로서 또 美術에 対한 理解를 높이고 그것을 生活化시키는 方向으로 美術館의 教育的 機能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와같은 機能을 강화하기 위해서 美術館 內에 視聴覚室의 設置는 勿論 近代・現代美術에 対한 정기적인 短期강좌 또는 세미나를 기획하여 美術과 対話의 기회를 增加시키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 라. 国内外의 美術情報센터의 設立

이 問題는 앞서의 美術館의 教育的 機能의 問題와 직결되는 것이기는 하나 보다 積極的으로는 海外 美術과의情報 및 資料 교환을 위한 독립된 情報센터의 設置는 美術創作 풍토의 조성과 学術的인 次元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것은 作品슬라이드를 包含한 일종의「美術라이뷰리리」의 성격을 되게 될 것이다.(巴里의 퐁피두文化센터의 境遇,이 問題는 서울의 文化会館 신축과 與聯해서 検討할 여자가 있다)

#### 마. 収蔵作品의 確保

了算上의 問題는 차지하고라도 国立現代美術館의 그간 의 컬렉숀은 미미하기 짝이없는 것이다. 그나마도 그 収 藏作品들은 国内 作家의 것으로 머물렀다. 国内 作家의 購買에 있어 一次的으로 問題가 되는 것이 国立現代美術 設置이다. 여기에서 舘 専属의「国家購買常設委員会」 現代美術館 収蔵 作品 選定의 方向과 方法이 論議될 것이 며 現在의 時点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国内의 大家, 重鎮作家들의 作品과 併行하여 作故作家와 有能한 젊은 作家의 作品을 아울러 購買할 것이 요망된다. 그러나 종 전에 있어서처럼 国内 作品에 국한 시킬 것이 아니라 作 品 購買의 범위를 넓혀 海外의 대조적인 現代作家의 作品 을 年次的으로 購入, 그것을 常設 전시해야 할 것이다. 国内外의 現代作家 作品의 均衡な过 収蔵과 ユ 常設 展 示는 우리나라 美術 풍토의 振作은 勿論 教育的 意義도 크다고 생각된다.

이 収蔵作品 確保에는 많은 了算이 투입되어야 함은 勿論이나 또 한편으로는 実業人을 包含한 個人 켈렉숀의 国家 기증의 方法을 들 수가 있다. 이와 같은 例는 外国 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하거나와 芸術作品이 어느 特 定人의 私有物일 수 없다는 의미에서도 권장되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 2. 市立現代美術館건립 및 美術会館 運営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人口 700万의 大貨都 서울에 독자적인 市立美術館이 없다는 것은 무언가 虛点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文芸振興院 부설 美術会館이 서울에만 하나가 運営되고 있다는 사실도 재고해 불 일로 생자된다.

#### 가, 現代(포는 近代) 美術館 建立

現代美術館은 그 性格上 他都市에 간혹 있는 博物館과 는 다르며 단목 現代美術館 建立이 여의치 않을 境遇에 는 기존 博物館에 近代 또는 現代美術 作品의 常設 展示 室을 附設하는 것도 한 方法일 수 있다.

특히 서울의 境遇 市立現代美術館의 建立은 市 자체의 収蔵 作品을 確保・展示하는데 意義가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는 서울을 国際的 美術 교류의 한 中心地로 각광을 받게 할 수 있다는 点에서도 큰 意義를 지니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데 베니스・상파울로・巴里・東京 등의 都市에서 주최하는 国際展 형식의 定期展을 서울市의 독자적인 行事로서 마련하여 서울市를 명실공히 国際 수준의 文化都市의 하나로 만들 수 있다. 또이와 아울러 現存하는 国立現代美術館의 機能을 보완하는 구실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い. 美術会館 運営

본래 美術会館은 美術 創作 振興策의 一環으로 建立이 된것이나 展示場의 廉価 貸与라는 방식은 지국히 소극적 인 創作 支援 方向으로 생각되며 展示室의 廉価 貸与는 앞으로 지속될 것이 바람직하나, 보다 積極的인 創作 풍 토 조성을 위해서 다음의 몇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다.

- ① 美術会舘의 독자적 企劇展과 필요에 따라서는 그 企 動展의 長期 展示 및 地方都市에의 巡廻展
- ② 一般 美術 애호가의 質的 수준향상과 美術의· 生活 化를 위한 敎育的 目的의 일련의 워크 샵 시스템의 活用, 또 필요에 따른 公開 세미나, 特別 講演会의 기획.
- ③ 各 主要都市에의 美術会館 建立과 정기적인 中央과 地方都市 間의 作品展 교류.
- ④ 이에 따르는 美術 活動의 中央, 集權的 경향의 止揚 및 地域文化의 固有性 창달. 郷土 美術의 発展을 위해서는 그 地方 出身의 대표적인 作品을 各 美術会館에 常設 展示될 수 있는 展示室이 確保되어야 한다.

#### 皿. 美術創作 支援의 問題

지난 第1次 文芸中興 5個年計劃에 있어서의 問題点은 그「支援」에 対한 概念 設定과 그 方法論에 있었다고 생자된다. 다시말해서 創作 支援이 経済的 支援으로 그 했다는 말이다. 創作 支援에 있어 보다 근본적인 問題는作品 購買라든가 記錄画 제작청탁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方法은 그 혜택이 特定作家에게 쏠리는 등 많은 副作用을 초래했다.) 진정한 創作 풍토의 조성과 画壇 秩序의 正常化라고 하는 与件의 定立에 있다고 생각된다.

創作 의욕의 고취와 화단의 활기 찬 풍토 조성을 위해 다음의 몇가지 方案이 고려될 수 있겠다.

- ① 間接的인 方法으로는 美術用器·재료의 免稅 平均 70%에 달하는 이 用器의 免稅는 間接的이기는 하나 作家들에게 부담을 덜어 주는 큰 혜택이 될 것이다.
- ② 보다 積極的인 意義을 지나는 것으로는 作家로 하여 급 나날이 現代化해 가는 生活 공간에 作家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이다. 美術의 生活化와도 密接하게 関係되는 이 問題는 어떤 法的 규제에 의해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우리의 都市生活 環境을 하나의 美的 共同体로 인식하는 새로운 美意識에 입각해야 할 것이다.
- ③ 画壇 構造의 측면에서 볼 때 國展中心 시스템으로 부터의 과감한 脱皮가 시급하게 요방되며 건전한 民展의 육성과 有能한 새로운 世代의 등장을 보장하는 정책적 배려가 요망된다.
- ④ 끝으로 이미 실시되고 있는 出版物을 통한 創作 支援의 問題는 美術分野에 한해서는 그다지 큰 奏効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美術專門誌의 육성은 크게 바람직한 일이나, 文学誌와는 달리 美術誌의 境遇는 대개의 境遇 作家가 雜誌에 참여하지 않는다. 評論家 中心의 美術誌이고 보면. 支援의 혜택은 作家와 무관할 뿐더러 혜택을 받을 当事者인 評論家들도 실질적으로 아무런도움도 못받고 있는 실정이다.

美術專門誌에 対한 支援은 勿論 절실하게 요망되는 사실이기는 하나 이와 함께 近代・現代 美術의 資料를 専門的으로 수집・정리하는 美術研究所의 建立과 이미 建立된 研究所에 대한 집중적인 支援이 서급한 과제이다.

#### Ⅳ. 美術 国際교류의 問題

이 問題는 作品上의 교류와 人的 교류라는 두가지 側面 에서 다루어질 수 있겠다. 또 이 問題는 人的 교류를 包 含하여 우리나라 美術의 海外 진출과 海外 美術의 우리나 라 導入이라는 問題를 포괄한다.

#### 1. 作品上의 교류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은 国際展에 참가, 적지않은 成果를 겨두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가 참가하고 있는 国際展은 실상 매우 제한되어 있다.(그 중 손꼽을 수 있는 것은 상파울로 비엔나레, 巴里비엔나레, 카뉴国際絵画祭印度트리엔나레, 東京版画비엔나레등)그러나 앞으로의 宿題는 이 밖의 권위 있는 国際展에 참가하는 일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람회를 들자면 베니스 비엔나래

의 版画国際展으로서 가장 伝統이 있는 유고슬라비아의 류부리아나版画展이다. 특히 後者의 境遇는 東欧國과의 文化・스포츠 교류의 일환으로서 앞으로의 主要관심사의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海外美術의 国內 유치 問題에 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가 있다. 国際的 규모의 전략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先例는 이미 있었으나 한무차례에 끝났다. 国際展의주최・기획은 무엇보다 長期的이고 지속적인 展望에 입자해야 한다. 一方的인 海外展 참가에 그치지 않는 본격적인 国際 交流의 한 마당으로서의 韓国, 또 서울이기 위해서는 보다 積極的인 国際美術에의 参与의식이 있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에서의 定期的인 国際展 개최와 아울러 海外에서 개최된 각종 主要 国際展의 韓国 유치도 重要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가까운 例로는 巴里비엔나레 10周年記念展이 유럽 주요都市를 순회한 후 日本에까지 왔다가 서울에까지는 돌지않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 2. 人的 교류

우리나라 作家의 海外展 참가의 境遇 그것이 公的인 것 일 境遇 出品 作家는 勿論 이에 관여한 評論家는 現地에 참가시켜야 한다. 특히 評論家의 境遇 각종의 情報 교환 과 規地 시찰을 위해서 海外 여행은 必須의 것으로 생각 되며 또 각종의 国際会議 참가를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 이다. (이 点 韓國의 AICA 入会에 対한 当局의 태도는 問題가 된다)

이와함께 또 다른 한편에서는 海外의 저명한 美術人의 国内 초청이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이 역시 作家에 限 한 것이 아니라 저명한 美術評論家가 包含되어야 하는 것 은 勿論이다.

#### Ⅴ. 其 他

以上에서 구체적인 몇몇 方案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되나 勿論 그것이 文芸中與 정책에 対한 提案의 전부일 수는 없다. 하나의 問題는 새끼를 치면서, 또 다른 무수한問題를 낳는다. 또 그 問題들이 단순한 法的 규제에 의해서라는가 行政的 次元에서 일률적으로 다루어질 수 없다는데 또 다른 問題가 개입된다. 創作은 가장 자유스러운 人間 행위의 표명이기 때문이다. 그 自由와 行政的인次元에서의 美術에 対한 너그러운 理解와의 均衡, 이것이 앞으로의 美術 行政 立案의 基調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전체 美術人의 소망이 아닌가 생각된다.

本稿는 지난 5월10·11 両日에 결천 文化公報部 韓国文化芸術振興院이 主催로 公開討論된 発表文中 그 一部로서 文化芸術振興諮問을 위한 論文이었음을 밝혀둔다.

# 都市計画施設 設置基準

(3)

尹 定 變

付き工人教授

#### 目 次

- 3 1. 施設의 定義
  - 1) 一般的 定義
- 3 2. 施設의 種類와 基準
  - 1)種類
    - 가. 高速, 市外버스 터미날
- 나, 路線貨物自動車 터미날
- 2) 基 準
  - 가. 高速, 市外버스 터미날
  - 나. 路線貨物自動車 터미날

#### 3-1、施設의 定義

#### 1) 一般的 定義

自動車停留場法(法律第2273号)에 의하면 同法 第2条3項에서 自動車停留場은 旅客의 乗降이나 貨物의 積下를 위하여, 道路의 路面 其他 一般交通에 사용하는 場所 이외에서 自動車運送事業用 自動車量 同時에 2台 이상 停留시킬 것을 目的으로 設置된 施設 및 場所로서 定義되고 있다.

여기서 自動車運送事業用 自動車라 함은, 自動車運輸 事業法에 의한 버스旅客自動車 및 路線貨物自動車로 限 定하고 있다(阿法 第2条1項).

먼저 버스旅客自動車는 多数의 人員을 輸送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것으로 一定路線을 定期的으로 運行하는 것과, 貸切用의 것이 있다. 前者에는 市內用・郊外用・長 距離 都市間用이 있고, 後者는 主로 観光乗合이나 최근 乗車定員 11~15人 정도의 小型 버스가 출현하여 多目的 으로 利用되고 있다. 自動車運輸事業法 第3条1項에 의 하면 그 種類는 同法施行規則 第5条에서 規定되며 다음 과 같이 区分된다.

- ① 高速버스:道路法의 規定에 의한 高速国道를 主路 線으로 하여 運行하는 버스旅客自動車
- ② 市內버스: 当該 行政区域內만을 一定路線에 따라 一定한 時間의 間隔을 두고 運行하는 버스旅客自動車.
- ③ 市外出二:高速出二와 市内出二를 除外한 出二旅客 自動車

다음에 路線貨物自動車는 区域貨物自動車와 区別하여 路線을 定하고 定期로 運行하여 貨物을 運送하는 自動車 를 뜻한다(自動車運輸事業法 第3条5項).

이상에서 고려해 보건데 自動車터미날은 高速, 市外버스 터미날과 路線貨物自動車 터미날로 그 種類가 区分되며, 버스터미날은 市內버스투留場과 市外버스 터미날, 高速버스 터미날로 다시 細分되는 것이다. 그러나 市內 버스투留場에 관한 事項은 道路의 路面上에 停車시키게 되므로 本터미날施設에서는 除外하고 여기서는 高速 및 市內버스 터미날과 路線貨物自動車 터미날만을 다룬다.

터미날이란 단순히 用語自体가 뜻하는 바에 의하면 自動車 運行路線의 終点을 意味하나, 한편 広意로는 道路輸送交通의 出発과 到着場所의 立地와 旅客의 乗降貨物의 積下施設(loading and Unloading) 및 그 附帯施設全部를 意味하고 있다. 즉 乘客들의 利用便宜度 提供과 車輌의 運行을 위한 諸서비스施設 및 其他 交通流의 処理를위한 構造物등을 포함한 一団의 都市計劃施設을 터미날이라 한다.

#### 3-2. 施設의 種類의 基準

#### 1) 種 類

가. 高速, 市外버스 터미날

高速버스, 혹은 市外버스 터미널을 莫論하고 버스터미 날의 利用主体는 旅客, 自動車 및 管理機構등 세가지로 大別된다. 먼저 各利用主体別로 要求되는 터미날의 機能 関係는 다음과 같다.

첫째, 旅客들을 위한 所要機能

- ① 売票 및 待合機能(concourse)
- ② 乗降機能(platform)
- ③ 購買、慰楽機能(cafetoria, shop)

둘째. 自動車의 運行을 위한 所要機能

- ① 駐車 및 泊車機能
- ② 整備 및 修理機能

세째, 티미날의 管理를 위한 所要機能 .

- ① 管制機能
- ② 一般事務機能
- ③ 従業員 厚生機能

또 上述한 주된 터미날의 機能들을 円滑히 遂行하기 위하여 附随的으로 共同支援関係의 連繫輸送機能과 供給支援機能이 要求된다.

버스 터미날은 以上의 諸機能을 遂行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施設들이 要求된다.

첫째, 施客関係施設로는,

- ① 売票 및 待合機能-売票所、待合室、一時保管室、小荷物取扱室、案内室、旅行社事務室、便所
  - ② 乗降機能-乗車台, 下車台
- ③ 購買慰楽機能-食堂, 売店, 茶房, 薬局, 理·美容室, 娯楽施設

둘째, 自動車 運行関係施設로는

- ① 駐車 및 泊車施設-自動車 誘導路, 駐車場 召 泊車場.
  - ② 整備 및 修理機能-洗車場,整備修理場 세째,管理関係施設早는
  - ① 管制機能-配車室、放送室、乗務員待機室
  - ② 一般事務機能-事務室,教育室,営繕管理室
  - ③ 従業員厚生機能 従業員休憩室,食堂,宿泊施設 以州,支援関係施設로는
- ① 連繫輸送機能一市內州스停車場, 택시 및 乗用車 駐車場, 地下鉄連結施設, 観光버스 駐車場, 広場
- ② 供給支援機能-注油所、変電室、보이러室、電話交換室、公害防止施設

이외에 大規模의 停留場에서는 경우에 따라派出所, 消 防署, 銀行, 郵遞局, 病院등의 公共施設도 필요하게 된 다.

其他 附帯施設도 다음과 같은 設備가 要求되고 있다.

- ① 公園緑地
- ② 防風雨設備
- ③ 排水設備
- ④ 避難設備
- ⑤ 換気設備
- ⑥ 照明設備
- 나. 路線貨物自動車 터미날

貨物自動車 停留場의 主機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 ① 都心部에 있어 交通車輌의 混雜을 防止하기 위해 外廓地帯에 配置한다.
- ② 流通構造의 合理化量 위하여 一時에 集荷되는 混在 貨物量 都心部外廓의 一定한 場所에서 保管, 流通加工, 品目別分類, 情報의 提供으로서 供給者와 消費者間의 適 正線을 維持한다.
- ③ 一定場所에 設置된 트릭 터미날에서 集貨受託 要求에 따라 直送, 発送方面別로 分類 保管하여 積載 輸送의 便宜提供을 期하는데 있다.

한편, 貨物自動車 터미날의 立地条件으로서는 터미날의 機能이 物資流通의 円滑化를 期하는데 있는 만큼 大都市에서는.

- ① 流通業務団地(流通団地)에 立地
- ② 高速道路에서 進入되는 都心部 外廓地帯에 立地
- ③ 拠点都市에서는 地方幹線道路의 交叉地点 附近에 立地한다.

이밖에 立地撰定은 他地域 및 都市와의 運輸施設 및 都心部内 物資集配에 支障이 없는 限, 都市外廓地帯, 특 히 地域間 交通網의 交叉点 地点 周辺에 立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現行 우리나라의 都市例規 第6号('72 11. 9)에 規定 된 自動車停留場 施設位置決定指針에 의하면 다음과 같 이 되어 있다.

- ① 地域間 交通의 連絡이 便利하며 定期運行路線의 中心部가 되고 商業地域인 곳에 位置하고 (버스 터미날). 다만 貨物自動車停留場은 工業地域 에도 設置할 수 있다.
  - ② 既存 主要交通施設(鉄道등)과 連絡이 용이한 곳.
  - ③ 停留場設置로 새로운 交通量의 誘発이 적은 곳.
  - (4) 停留場 転用誘導車線의 設置가 용이한 곳.
- ⑤ 高速버스停留場은 高速道路와 連絡하는 幹線道路에 接하도록(專用 誘導車道 設置時는 제외)하고 專用誘導車道를 設置할 때에는 이를 同時에 計劃할 것.
- ⑥ 2個 以上의 停留場計劃이 필요하거나 必要가 予想되는 都市는 綜合的인 配置計劃을 樹立하여 同時에 決定할 것.

以上과 같은 機能과 立地条件을 가진 路線貨物自動車 터마날의 施設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 ① 主施設-荷役害 및 喜周辺의 舗装된 荷役停車場
- ② 附带施設-車輛施設:駐車施設, 険車·洗車· 給油施設, 小修理工場, 現場事務所-従業負施設:休憩所, 食堂, 沐浴室, 其他 営業施設, 保管倉庫, 福祉施設과 住宅 등의 附属施設
  - 2) 基準

가. 高速, 市外버스 터미날

그. 法規上의 우리나라 基準

自動車停留場法에 따른 自動車터미날의 計劃과 構造및 設備에 관한 基準을 規定하기 위한 交通部令 第506号('75 8. 7)에 의한 自動車 停留場 構造設備基準令은 그 施 設基準을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 ① 旅客用場所:乗降場,旅客交通,其他 旅客用場所 自動車用 場所와 共用해서는 아니된다.
  - ② 待合室:所要面積은 乗降台個数×台当乗車定員数
- (坪)以上으로 하며, 売票室, 休憩室, 暖房施設, 換気装置, 案内施設동을 設置해야 한다. 즉 乗車 1人当 0.25 坪이 필요하다.
- ③ 乗降台 너비는 最小 80cm이상으로 하고 自動車用場 所의 地面보다 약간 높게 하여 秉客의 乗降이 용이토록 할 것.
  - ④ 化粧室:男女用으로 区分한다.

大便所는 乗降台 2個所에 対하여 1個를 設置하며 男子 1個, 女子 2個의 比率로 하고, 男子用 小便器数는 大便所数의 2倍以上으로 하며 1人当 0.6m(幅) 以上으로 해야한다.

⑤ 自動車出入国:橋梁, 터널, 陸橋밑의 路幅이 6 m 未満인 道路 또는 約断勾配가 10%以上인 道路面에 接하 지 않을 것.

乘降台数가 11個以上인 自動車停留場으로 自動車의 出入口를 路幅이 20m以上의 路面에 接하여 設置할 때는 그 道路의 近接地点이나 路幅 20m以上의 他道路와의 交叉点으로 부터 30m以上 떨어진 곳일 것.

⑥ 誘導車道 및 操車場所:自動車가 後退運転을 하자 않고 出入口를 運行할 수 있도록 할 것. 誘導車道의 路幅은 7.0 m以上(一方通行은 3.5 m以上)일 것.

横断陸橋등 障碍物이 있는 誘導車道는 路面上의 有効 높이 4.5 m以上을 維持할 것. 誘導車道의 屈曲部는 길이 12 m、 폭2.5 m、最小回転半径 12 m인 自動車가 円滑可回 転할 수 있게 할 것.

傾斜의 勾配는 10%以内일 것.

- ⑦ 乗降台停留場所: 1 台当 길이 13 m以上, 너비 3.5m 以上의 規模를 要하며 地面의 勾配는 15% 以內일 것.
- ⑧ 駐車場:同時駐車 最大推定台数×45.5 m²以上의 面積을 確保하여야 한다.
- 이외에 其他 附帶施設로서는 다음과 같은 基準을 規定 하고 있다.
- ① 停留場의 誘導車道, 操車場所, 停留場所, 駐車場所, 乘降場, 待合室 및 旅客通路는 舗装을 하여야 한다.
- ② 乗降場, 符合室, 旅客通路는 防風雨設備를 하여야 한다.
  - ③ 排水施設을 하여가 한다.
- ④ 停留場建築物에서 2層以上에 旅客用施設을 設置하는 경우, 直接 地上으로 通하는 旅客出入用의 階段이 없는 때에는 避難設備를 하여야 한다.
- ⑤ 誘導車道, 操車場所, 旅客用場所는 地面의 照度를 20 Lux 以上 維持토록 照明施設을 하여야 한다.

#### し. 外国의 基準

美国의 경우, 주로 Greyhound Bus Lines와 各界 建 築家들에 의하여 提供된 資料를 蒐集分析하여 経険的 基 準을 提示하고 있다.

① 待合室은 車道에서 直接 接近될 수 있어야 한다. 旅客通路에의 接近은 여러 個의 出入路나 出入門을 통하게 하여, 가장 피크時라 할지라도 旅客이 均等하게 퍼지도 북한다.

待合室의 座席数는 버스当 乗客数를 35-37人으로 하여, 乗降台의 旅客数의 3分의 1이 収容되도록 한다. 待合室面積은 乗客 1人当 15~35ft (0.4~1坪)로 하되 20~24ft 가 적절하다. 待合室面積比等은 全建物面積의 20~35%로 한다.

여덟座席의 長椅子가 採擇되고, 飲料水設備, 쓰레기통, 샛탈이등이 要求된다.

- ② 荷物取扱所는 待合室과 旅客通路 양편에서 接近 되어야 한다. 旅客外의 貨物은 旅客通路와 妨害됨이 없어 引渡되어야 한다. 荷物은 待合室内의 카운터에서 引受되어 버스로 실케된다. 荷物置場의 面積은 全建物面積의 10%이지나 每乗降台에 50ft (1.4坪)정도씩 필요하다. 予置혹은 未引渡荷物을 위하여 큰 貯蔵庫를 보통 地下層에 잡아야 한다.
- 이외에도 待合室内에 책크·락카를 設置하여 使用料를 支拂케 한다.
- ③ 売票所는 待合室에서 곧 눈에 띄는 곳에 設置한다. 個数는 待合室의 座席 25-30個마다 1個所를 基準으로 하며 面積은 1個所当 50ft<sup>2</sup>(1.4坪)로 한다.
- ④ 配車室은 모든 乗降台를 監督할 수 있도록 旅客通路上의 適切한 地点에 配置되어야 한다. 또 電話나 인터 폰등으로 売票所, 支配人室, 車庫등과 連結되어 있어야 한다.
- ⑤ 事務室의 種類는 터미날 支配人室, 一般事務室, 交換室등이다. 그 面積은 各各 100~200ft²(3 6坪)씩이면 足하다. 그러나 大規模터미날에서는 터미날組合 支配人家, 事務職員室, 会議室등이 필요할 때도 있다.
- ⑥ 乗務員待機室은 보통 라운지와 化粧室만 있으면 可하다. 대개, 地下層이나, 2層에 있게 된다. 出入은 旅客 通路에서 接近할 수 있는 個別 出入門이 필요하다.
- ⑦ 食堂은 建物面積의 15~27%의 面積이 要求되고, 慰房은 食堂面積의 15~35%로 定む다.

日本의 경우는 터미날의 最小限 必要施設을 誘導車道, 乗降用場所,配車営業場所,乗客의 待台場所로 나누어 보 았으며, 그 施設基準을 다음과 같이 提示하고 있다.

- ① 停留場建物:停留場 建物内에는 待合室, 食堂, 茶房, 出札口, 改札口, 会務室, 司令室, 乗務員室, 手荷物取扱所, 便所, 案内所, 売店등을 集約的으로 設置하여施設面積의 分割은 다음과 같이 提示하고 있다.
- ② 乘降台:最小幅員 80cm以上, 出스停留場所는 長 12 m. 幅 3 m以上으로 하여 位置量 明示, 地面勾配는 1.5 %以下의 平坦地로 할 것.
- ③ 出入口臭 誘導車道:路幅 6.5 m以上(一方通行일 경 우 屈曲部의 最小半径은 15 m以上을 確保하고 路面 維斯

表3-2-1 面積比率

K	分	全建物面積에 対한 比
待 合	室	20-35%
食 堂, 茶	房	15 – 25%
出 <b>札</b> ,改札,4	事務室	
司令室,乘務員	皇室	15 - 20%
手荷物取扱所,	倉庫	5 - 10%
便所, 案内所,	売店	15~20%

#### 외配는 10%以内일 것

其他 上述한 施設에는 附随的으로 防風雨設備 排水設備, 遊難設備, 換氣設備, 照明設備를 갖추어야 한다.

#### 亡. 基準設定

버스 터미날의 施設規模는 1日에 몇台의 버스가 発着하는가에 의하여 決定된다. 따라서 버스発着에 의해서 直接的인 必要施設은 乗降台이며 乗降台의 数는 다른 모든施設의 規模를 決定하는 基準이 된다. 乗降台数는 버스의 1日発着回数와 営業時間에 외해 決定된다.

따라서 乗降台의 数가 4個, 10個, 20個, 50個인 버스터 미날의 各各 即想的인 施設配置量 参考로 機能別 施設面 積을 比較検討한 결과 모든 機能別 施設의 規模는 機能에따라 乗降台数와 관계없이 最小限의 面積이 필요하며 乗降台数가 增加함에 따라 一定한 比率로 增加되는 一般的原則이 発見되었다.

이러한 結果에 따른 最小限의 施設基準은 더움과 같다. (1) 乘降台数

プリ 乗車台数=(田仝의 1日出発回数±〔(1日 営業時間)×(乗車台個当,時間当 発車能力)〕

但, 乗車台当 発車能力은 20分에 버스 1 台로 본다.

営業時間은 長距離路線은 1日 10時間 短距離路線은 1 日 15時間。

(叶) 下車台数=(叶스의 1日到着回数)÷{(1日營業時間)×(下車台個当,時間当 到着能力)]

但,下車台当 下車能力은 5分에 버스 1台로 본다. 営業時間은 長距離路線은 1日 10時間, 短距離路線은 1日 15時間,

(2) 所要垈地面積

乗降台数×88坪+360坪

但, 大規模 終点 터미날의 泊車場의 경우는 運行 버스의 50%가 泊車하도록 別途施設이 필요하다.

(3) 建築面積

乗降台数×20坪+60坪

但, 終点 터미날에서 所要되는 整備場 洗車場 및 整備 庫등은 設計基準에 의해 別途施設이 필요하다.

(5) 駐車場(連整輸送)

乘降台数×15坪

但, 乘客<sup>의</sup> 30%가 自家用 및 택지를 제用하여 駐車個所 当 回転率(turn overate)은 6 回転하는 경우임.

(6) 停車場 및 誘導路

乗降台数×9坪+60坪

(7) 乗降場 및 誘導路

乗降台数×32坪+160坪

其他 機能別 細部施設은 建築設計基準에 의하며, 附帯 施設의 基準은 既存의 自動車構造設備基準会에 준하도록 한다.

#### 나. 路線貨物自動車 터미날

#### つ. 施設計劃의 順位

- ① 地域間 方向別 貨物輸送量推定
- ② 交通手段(鉄道, 道路, 海運)別 輸送 需要推定
- ③ 輸送手段別 輸送改善方集 検討
- ④ 都市叫見 및 地球交通体系 台理化方集検討
- ⑤ 規模 및 立地撰定 検討
- ⑥ 目標設定 즉、流通体系의 丹慣化, 業体運営의 伸張, 交通混雑의 減小等
  - ② 数個의 代策作成
  - ⑧ 最適規模 및 立地選定
    - L. 홈(home)의 規模

흥의 規模를 決定하는 질이의 一時에 配置되는 트럭의 数로, 幅은 床上에 積置한 貨物의 量과 作業方式에 따라 決定된다.

홈의 길이를 決定하는 因子로서는

- ① 発送予定回数 및 到着予定回数
- ② 集配予定回数
- ③) 貨物의 性質등에 의하여 決定된다.

그리고 홈의 幅은 홈위의 通路, 1.2m~3 m 등 제외하고, 홈위의 貨物積置場面積을 1 m² 当 400kg으로 하여 計算하는 것이 適正하다.

表3-2-2 路線貨物自動車 터미ピ 請施設面積 의 構成比

	·
丛 分	構成比(%)
主体施設:荷役音	11.
喜周辺舗装	33 44
附帯施設:車輌施設-駐車施設	18
- 検車、洗車	
給油	2
- 小修理工場	6
- 現場事務所	2
:従業員施設(休憩所,食堂,沐浴	56
室 <del>등</del> )	3
:営業施設-保管倉庫	3
:福祉施設-住宅	4
:附属施設-周辺舗製	18
総敷地面積	1 000

C. 터미널 総面積의 算定

이計算은 홈의 規模를 貨物의 積置場등을 합친 홈의 周辺施設의 1/3로 잡은 日本建築学会의 貨物積置場 所要面積인 300kg/m²와 比較해 볼때, 홈과 周辺施設을 합칠 때의 1.2ton/m²의 2.5倍에 가까운 数置로 이것은 터미날 総面積으로는 妥当性이 있다 하겠다.

다음 表 3 - 2 - 2 는 日本에서 適用하고 있는 트럭 터미 날의 敷地에 대한 施設面積의 構成比로서 이 数値는 우리 나라 에서도 適用될 수 있다.

따라서 터미날의 総敷地面積을 다음과 같은 公式으로 推定할 수 있다. TS= <mark>3 Q</mark> × 100 (荷役홈面積이 全体의 11%)

TS: 터미날 総敷地面積(㎡)

HS: 홈의 敷地面積(㎡)

Q:1日 貨物 荷役量(ton)

또, 홈의 配置基準은 다음과 같다.

喜의 床面積:2,000~3,000㎡

홈의 所要面積(泊車場포함)

 $18.000 \sim 12.000 \,\mathrm{m}^2$ 

喜当 全体所要面積: 18,000~27,000㎡ 取扱貨物単位当 敷地面積: 23㎡/t·目

泊車場当폭:3.5m, 깊이 路線泊車場 55m, 集配泊車場 40m (계속) ,

# 建築計劃決定方法

I SEPTO DECT MAN DESCRIPTION DE SENTE DE SETTIMENT DE SET

漢陽大學校教授 工 學 博士

金真一 著

內 容 第一章空門系의 파악과 意志決定/第2章 足호한 計劃條件의 파악/第三章 변동하는 計劃條件의 파악/第四章 成長하는 規模에 대응하는 方法/第五章計劃의 數量的豫測方法/第六章 規模의 算定方法/第七章 Core System의 方法/第八章 建物形狀의 選定方法/第九章 耐用 및 投資計劃方法/第十章 計劃決定

값 3,500원

發行 普 成 文 化 社 総版 良 文 堂 (74:4292)

BESTREEMENDE DE LE CONTRE DE LE

## 元老建築人 招請学術州미나

지난 5月13日 그린파크 연회실에서 韓国의 元老建築人을 招請한 金友会 創立 10週年 紀念学術 케미나가 있었다. 이자리에서 発表된 主題는 아래와 같으며 参席한 元老建築人은 다음과 같다.



### 第1主題 韓国建築의80年

李二天 承二弘大理工大講師



# 第2主題 國際建築潮流**속**에서의 韓国建築의 展望



司会 金真一 教授

慎 武 酦 大韓建築学会 会長



#### 第3主題 綜合芸術運動 斗建築

朴 学 在 薬陽大学校工大教授





左豆草叶 金昌集 教授, 咸性權 教授, 洪思天 教授, 麥基澄 所長,

### 韓国建築의 伝統問題



#### 凝維紋

- : 世宗文化 会額 建立을 中心으로 伝統은 自然発生的이여야 하며, 그 基本 要素인 素材가左右 한다고 본다.
  - 이러한 観点에서 伝統과 機能의 調和를 그素材의 主要性에 力点 을 두었다.
  - 그 時代의 모든것의 集約이야말로 伝統의 첩경이라 하겠다.



#### **金 堰** 泰

- : 古有의 것을 現代에 応用発展調和시킨 새로운 構造의 発見이야 말로 伝統이라 본다. 差 期 求
- : 伝統이란 固定되었는 어떤 過去의 固有의 것이 아닌 오랜 세월 우리 祖上들이 입고, 먹고, 살아온 것들의 재발견 속에 規在 우리가 지니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얹어놓는 作業이라 고 하고 싶다. 그러자니 교육과정에서 우선해야 될 교과로서 우리의 祖上들의 일을 상당한 미중을 두어 교육으로서 제도해야 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그 伝統 의 定立이 이루어질줄 입니다.



#### (司会)

有益한 討論이었습니다. 結論으로 伝統은 버물리 있는 어떤 固定観念이나 様式이아니고 継続進行되고 있는 것이요. 過去와 現在가 잘 調和를 이룬未來指向的인 우리의 生活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愼公長任의 建築士 合格率에 대한 보다 幅 넓은 討議를 次后로 미룬다는 여운을 남긴체 가든파티로 들어갔다.

# 綜合芸術運動과 建築

朴 学 在

獲陽 L 大教授

그레시아·헬레네스들의 社會에 있어서 建築을 設計하는 計劃者를「Architecton」이라 불렀다. 이語彙의「Arch」는「偉大」함을 뜻하고「tecton」은「工匠」임을 뜻하는 것이어서 이의 合成語인「architecton」은 곧「偉大한工匠」임을 뜻했다. 詩聖Homeros의 敍事詩에 登場하는 「tectones」도 이러한「工匠」이던가「技術者」를 뜻하지마는 그「偉大한 工匠」이자 綜合芸術인 建築의 建設을 総指揮할「architecton」이면 이에 綜合編成된 모든 姉妹芸術 죽彫刻・絵画・工芸에 대한 一家見의 浩詣를 지며야만 했다.

지금 쓰이는 英語의 「architect」도 또한 이 그레시아語의 「architecton」에서 由来된 語彙인데 또한이「architecton」 들이 計劃하는 建築의 比例와 装飾에 対한 現実的効果는 事前에 制作되는 模型으로 決定했다. 따라서 이 模型은 現代의 것처럼 石膏나 木材로 制作하는 것이 아니라 蜜 蟣・Typas 를 써서 全体模型・Paradeigma 를 制作한 然 後에 調節, 차츰 細部를 着手하는 것이 常例였다. 이러한 設計過程과 大同小異하게 恣行되고있는 現代의 設計方法 도 바로 그레시아·헬레네스들의「architecton」둘이 実 行했던 古風에서 由来된것에 不過하다. 時代的変遷은 姑 捨하고 建築家가 担当해야할 職分의 役割과 力量도 이 古 風의 歴史的制度의 同等하거나 그 以上으로 要望되고 実 践되어오는 것이 유우럽社会의 風潮이지마는 이와反対로 萎縮되어있거나 否定되어 있으면 建築文化가 非正常的으 로 維持되고 있음을 그古今의 建築史에 依해 周和하고 있 는 터이다. 그래서, 建築家가 宜当히 지녀야할 社会的地 位의 正常化나 制度化는 그利害関係를 為한 目前的인 権 利主張에 앞서서 追求되어 오고있는바다. 따라서, 이러 한 結果 로서의 그建築文化가 곧 빛났던 人類史였음도 認 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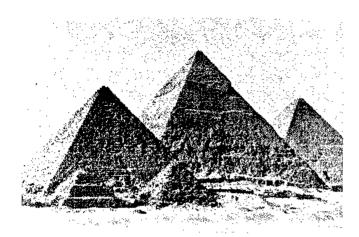
「architecton」이 그時代나 社会의 精鋭·Elite 모써 文 化建設의 尖端的地位量 지렀던 아테나이의 一例는 너무 나도 生生하다.

紀元前 5 世紀에 있어서, 30餘年동안이나 名執政官・

Archon으로 被選되어 重任했던 Perikles의「페리클레스時代;460-429B.C.」에 活躍했던 Iktinos, Kallikrates, M nesikles는 当代의 文化界와 社交界에 君臨했던 科学者 Anaxagoras, 劇作家 Sophokles와 Euripides, 哲学家 Empedokles와 Zenon그리고, Sokrates, 歷史家 Herodotos, 維持家 Antiphon등이 出入하는 一堂의 社交場에 列席했었다. 따라서 建築家 Iktinos, Kallikrates, Mnesikles 그리고 彫刻家 Pheidias, 闽家 Polygnotos 등이 担当하여 綜合芸術群으로 建設했던 아크로폴리스丘陵의 計劃은 青史에 燦然히 빛난 一郎의 作風이었다. 그래서, 헬레네스들이 그観念的인 理想主義로 追求하여 이룬 建築의 形式美(形態性)를 라틴・로마人들은 現実的인 実用主義로 転換시켜 建築의 內容美(空間性)로 大成시켰었다. 이른바 Greco-Roman Style이라 일컫는 建築의 볼품이었다.

이 Greco-Roman Style의 外部開放空間과 內部閉鎖管間에다 라틴·로마人들은 그레시아로부터 搬出해온 彫刻 · 絵画·工芸를 裝飾하므로써 古代이집트人처럼 建築을 姉妹芸街의 母胎다울도록, 다시 말해서 建築을 綜合芸術의 空間的母体가 되게한 바 있었다.

로막社会가 初期와 中期의 그리스도教時代(313~1732)에 결쳐서 비록 精神的으로는 浮化되기 始作했을 지언정 로막帝国이 滅亡(476年)되기 始作하자 文化的으로는 도리어 1250餘年동안의 暗黑時代를 맞기 始作했었다. 이러하다가 思想 分野에 있어서는 그 潜跡해버린 古代 그레시아의 哲学을 再現(再発見)시켰고 造型分野에 있어서는 그 崩壞되어버린 古代로마의 芸術을 再建(再模倣)한바 있다이른바 르네이상스運動・Renaissance Movement 이 곧 그 状況이었다. 「르네이상스」가 또한「文芸復與」이라 解釋되어지는 것이여서 이過程事由가 더 明白해지고 있다. 中世紀의 芸術亨有는 그彫刻・絵画・工芸를「읽는 聖経」이 아니라「보는 聖経」의 聖像・聖画・聖器로 代用하여그建築의 內部壁面에다 새기고 그렀기때문에, 寺院・修



그 時期에 있어서,가장 強烈한 思考에서태어난 建築의 例(1), 이것은 그 権力과 憧憬과의 具体化인 同時에, 強 한 精神 的 手段의 表現対象으로 建設된것임, 紀元前 26世紀의 作品, 이접트 기계所在의 1(右), 2(中), 3(左)의 품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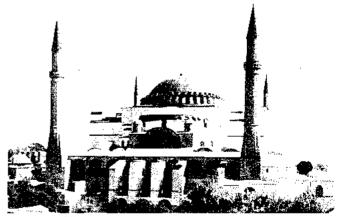
建築인축 市民集合의 廣場・市庁舎・官殿 図書館 聖堂 그리고 富裕層의 邸宅・専用禮拜堂・別莊・記念館……… 등에다 裝飾美術로서의 彫刻・絵画・工芸를 豊富하게 共存시킨바 있었다. 밀라노派・시에나派 ・휘렌찌아派 라 일권는 流派도 이런 過程에서 播生된 手法이다. 그「르 네상스」라는 文芸思潮가 古代그레시아의 思想的再現과 古 代로마의 芸術的再建으로, 비록 古典의 復活이 実現되었 지마는 그렇다고해서 古典様式의 復古的羅列이 아니라 이 르네상스時代에 나타내져야만했던 人本主義의 創造的 模倣이었음이 또한 特徵이기도 했다.

이 르네상스様式의 代表的作家라고 例举한다면 Michelangelo가 먼저 손꼽히겠다. 그의 作品은 「낮・밤・아침・저녁」을 象徵하는 彫刻으로 装飾한 메디치家專用의 禮拜堂(휘렌찌아所在),「天地創造」의 天井画와「最後의 審判」의 壁画로 装飾한 Sextus 教皇의 專用寺院(봐티카누스教皇庁所在)을 例举할 수 있을 것이다.

綜合芸術로써의 建築에, 그姉妹芸術인 彫刻・絵両・工芸가 더 華麗하게 共存된 것은 이 르네상스様式(時代)에 앗대어져서, 17世紀부터 抬頭되기 始作했던 바로코 様式이다. 르네상스様式이 静的表現인데에 反하여 動的表現임이 特徵인 이 바로코様式 初期의 巨匠은 Bernini인데作品背景은 또한 카토릭教会史와 카토릭美術史의 総本山格인 聖베드로人聖堂(로마・봐티카누스丘陵所在)이었다. 本山으로서의 大聖堂自体는 비록 Michelangelo를 비롯해서 Porta, Maderna 등의 建築家를 통해 制作되고 增築되었으나 이大聖堂안들의 大廻廊, 안쪽의 天蓋와 聖像,

처마의 立像 그리고 人聖堂內部의 刻心· Core에다 얹어진 Domo의 天井画등은 이 바로코芸術의 Bernini가 計劃·制作한 것이었다. 이즈음의 哲学界에는 Descartes, Pascal, Leibniz, 音楽界에는 Vivaldi, Bach, Tartini 그리고 美術界에는 Tiziano, Rubens, Rambrandt……등의活躍자취가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탈리아의 航海家이던 Columbus가 어메리카大陸을 発見했고, 포오 런드의 天文学者이던 Copernicus가 地動說을 喝破했으며 스페인의 深険家이던 Cortes가 메키시코를 征服하는 等의激変이 일었던 時代이기도 하다.

바로크 様式에 로코코 手法이 加味되어지므로써 装飾 過剰의 크로테스크한 気稟으로 堕落해버렸고 이것이 또 한 엉글런드의 産業革命(Industrial Revolution)과 프랑 스의 政治革命(Political Revolution)으로 因한 读因과 近因까닭에 社会의 精鋭·Elite 들로 부터 無視 当하니 그 持續도 停頓 当하고 말았다. 餘他的原因도 作用되었 자만 直接的 原因으로는 폼페이의 発掘作業……...79年 8 月27日에, 뭐스비오스火山의 瀑発로 埋没된 것을 発掘… ·····에 따라 発表됨에 이른 Winckelmann의「古代美術史; 1776年刊]로 刺戟되어 다시 古代그레시아의 建築 手法으 로 還元했던 新古典主義・Neo-Classicism의 建築運動 과 実践展開가 이루어진 바 있었다. 이것이 즉 Neo-Greco Style 이다. 이 手法의 作品은 프랑스의 建築家 Soufflot 가 設計한「新판테온(빠리所在)」,建遊築家 Garnier 가 設 計한「오페라하우스(빠리所在)」,建築家 Chalgrin 이 設 計한 「에또아르 族門(빠리所在)」………등은 그 主流의 一部이다. 이것을 이루게한 方法的主流는 또한 빠리美術 大学・Ecole Des Beaux-Arts 에서 播生되어 나온 理論 과 作風이 主導했었다. 아울러, 빠리의 新노프로・담 小 寺院을 発表하므로써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建築家 Perret 도 잊어서는 안될 作家이다. 이즈음의 베르린에서도 一人 家 Schinkel 이 会心의 傑作「国立劇場・Staalliches S・



그 時代에 있어서, 가장 強烈한 精神的 手段의 表現対象(2)이 되었던 그리스도教의 산타 소피아寺院 建築家 Anthemius 의 設計, 지금은 이슬람教의 모스크로 転用되고 있음. 建設当時 530年頃)에는 이 内部의 壁面에 聖像・聖両 그리고 增上에 聖器등이「보는 聖経」으로 세계졌고 그려졌으며 安置된바 있었음.



그 時期에 있어서, 가장 強烈한 思考에서 태어난 建築의 例(3). 이것은 그 權力과 憧憬과의 具体化인 同時에, 強한 精神的手段 의 表現 対象이 된것임.

chauspielhous(베르린所在)」을 発表하므로써 当代随一級의 巨匠다운 面貌를 蔣示한 바도있었다. 물론,新古典主義의 建築에는 그 姉妹芸術로서의 彫刻・絵畫・丁芸가共存되어 視覚言語・Visual Language 이자 또한 觸角言語・Tactual Language 로써 市民大衆과 対話量 交款하는 対象이 되기에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建築文化의 思潮와 状況이 흐르는 中에, Ruskin 과 Moris에 依한 工芸運動·The Craft and Arts Movement 이 잉글랜드에서 展開되고 있었다. 그 主旨는 ....... 小数人을 為한 芸術

#### 小数人을 為한 教育

小教人을 為한 自由········를 反対하면서 一般大衆에게 接近했다. 이즈음에 도이취의 建築家 Loose 는 어메리카의 Sullivan이 提唱했던 機能主義·Functionalism의 建築理念에 質問하여 유우럽으로 伝達하는 同時에 無裝飾主義를 主張하므로써 建築家 Muthesius 가主導한 裝飾主義의 도이취 工作連盟·Der Deutche Werkbund 과衡 突하는 事態마저 일기도 했다.

19世紀에서 20世紀에 결쳐서 徐徐히 그리고 旅勤하게 推進된 造形芸術上의 改革運動인 즉

······Sullivan의 機能主義

Loose의 無裝飾主義

Wanger의 分離主義……를 비롯해서 Picasso 와 Braque가 主動한 立体主義·Cubism 그리고 Le Corbusier와 Ozanfant이 実践한 純粋主義·Purism의 時 期로 접어들었고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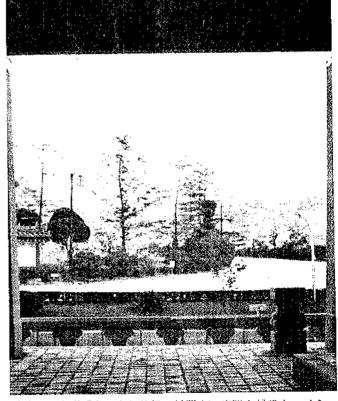
·········Gropius의 바우하우스

Le Corbusier O C. I. A. M.....

에 이어져 나가기도 했다. 이러한 일곱(7)가지의 主義主 張中에서「立体主義」만 絵畫에 関한 運動이었지 나머지 여섯(6)가지는 모두 建築에 関한 運動인 것이 特色이떠 또 한 注目할만한 일일 것이다. 이 마에서도 바우하우스의 教育理念은 彫刻, 絵畫, 王 芸를 하나(1)의 独立된 分科로 着做하도록 指導함으로써 建築을 綜合芸術의 母胎로 認識시켰었다. 그래서 造形芸 術分野에 従事하는 建築家나 教育家면 바우하우스의 - 思 潮와 方法을 羨望의 対象으로 여기기까지 했다. 住宅計劃을 主要問題로 삼아 隔年마다 会同討議하여 把握되었던 - 結 論이 골 1928年에 創設된 C. I. A. M의 理念이자 또한 全 世界의 建築界가 追求해야만 했던 理念의 方法이기도 하 여 이 C. I. A. M. 의 存在와 運営이야말로

------첫째,新建築理念에의 同志的인 一致性. 둘째,時代的인 社会性에의 歸一性 셋째,全人類에 対한 個人的인 使命感

......을 代籍해 주는 것과도 잘았다. 따라서. Gropius 가 C. I. A. M. 의 第一回 総会에서 提唱...... 結成場所는 스위스의 라사라城, 結成時日은 1928年6月27日, 初代談 長은 S. Gieden, 署名者数는 24名, 이미 바우하우스의 初代学長職을 辞任했던 Gropius는 招聘演 L여서 署名은謝 譲 하고 登壇하여 講演만.....했던 国際建築運動・International Architecture Movement 의 理念마져 그 20世紀의 産業과 惠択으로 播生되는 文化의 様相과 人間의生活에 密着呼応될만한 建築의 実践的 哲学이어서 文字대로 国際化되어 버리기도 했다. 따라서, 한때에는 바우하우스 C. I. A. M., 国際建築의 세(3)가지에 関한 理念과 路線을 等閑時하는 建築家면 가장 뒤쳐진 落伍者로 看做하는 独善的橫髮에들기도 했다.



慶会機의 相屬 Piloti에서 外部로 展開되는 空間이 展望되고 있음. 이 相鄰의 天井에는 絵画가 그려졌어야하고 저 展開空間에는 彫刻이 安置되어야 했음.



시카고派의 魔天樓, 無味乾燥하게 構想된 양키様式의 하나(1)임.

여기에서, 例의 機能主義의 建築美学에 縁由된 概念까 당에 純粋建築이 出現하게 된 過程과 이와는 달리, 바우 하우스의 教育網額에 縁由된 理念까닭에 綜合建築이 存 癥하게된 過程을 더 解說할 必要를 느껴 다음처럼 再略述 한다.

시카고의 大火災(1871年)로 因한 再建熱은 合理的이고 도 実用的인 建築計劃의 実践이 促求된 바 있었다. 그래 서, 鉄骨鉄筋콘크리트造를 構造材로 울것, 진 引枋材로 採光窓을 넓힐 것, 工事期間을 短縮시킬 것, 그리고 內· 外壁의 装飾浮彫·Relief를 없엘것, 装飾쇠시리·Moulding을 없앨 것, 複雜한 詳細·Detail을 없앨 것...... 을 断行했으므로 高層化에, 単純化의 新建築形態가 이루 어졌었다. 이른바 시카고派·Chicago School라 通稱 되는 騰天楼이다.

이리하여, 이의 創始者였던 Sullivan이 이윽고「機能的인 形態일수록 아름답다」하고 主張함에 이르고 이 建築美学에 Le Corbusier의「住宅은 살기 위한 機械이다」하고 主張한 建築美学이 融合表現됨에 이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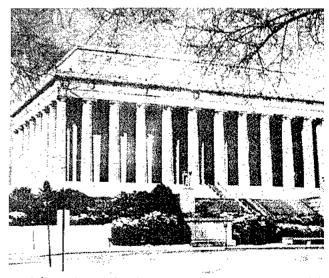
그래서, 無裝飾의 形態인 建築만으로도 그芸術性이 成立되지마는 그 뿐 아니라 無裝飾의 機能的인 工作機械도 純粋한 아름다움을 지니는 것이므로 이러한 観照로 計劃된 建築形態면 이것도 또한 아름다움 수 밖에 없다는 建築側이었다.

점를 養成함에 그 教育目的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姉 妹芸術의 再統一이 例의 中世樣式이던가 로코코 手法 아 니면 新古典様式처럼 이른바 裝飾芸術로서 柱範과 帯壁 또는 天井과 壁面에다 녀절하게 羅列시키자는 것이 아 니라 모두를 하나(1)의 独立된 個体로써 共存시켜 綜合統 一하자는 建築觀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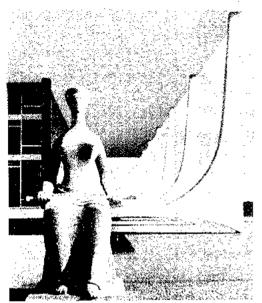
그러나 実用主義・Pragmatism의 思想을 背景삼고 実践됨에 이른 機能主義의実用建築이던가,이 合理主義의概念을 背景삼고 樹立됨에 이론 機械美学의 純粹建築이던가에 関한 建築理念들은 그表現方法이 너무나도 建築家의 個人的안 才能과 力量에만 依存해왔던 個人主義의 建築観이여서 辛辣하고도 痛快한 批評을 받은바 있었다. 例전데 도이취의 建築家 Kiester가「現代의 機能主義는 죽었다」하고 攻擊했고 画家 Hundertwasser도 또한「合理主義建築에 対한 破棄宣言」을 敢行하여 攻擊하자 1958年을 契期로 暴風속의 횟불처럼 그빛을 잃고 말았다.

여기에서, 더 注目하여 明白하 分別해야할 것은 例의 機能主義에 緣由되어 姉妹芸術을 裝飾시킨바 없이 純粹 主義의 建築을 実践했던 Le Corbusier의 理念과 여와 는 달리, 綜合芸術일 바를 目標했던 바우하우스의 理念 이 두(2)가지의 現象으로 並存되었었다는 事実이다. 그 래서, 이 두(2)가지가 代表的現実로 나타낼에 이른 実際 를 例挙하자면 이러하다.

그 하나(1)는 뉴우요크에 計劃된 UN本部의 建築이고다른 하나(1)는 빠리에 計劃된 UNESCO本部의 建築이다. 이中의 UN本部의 原案인족 第2次世界大戰의 戰勝国代表로 参加한 13名의 建築家屋 중에서도 프랑스의 代表였던 Le Corbusier와 브라질의 代表였던 Niemeyer가 共同 作成한데에 더하여 設計運営의 Consultant마저도 어메리카의 代表였던Harrison이여서 그姉妹芸術들이 아주 除外되어버렸고 이옥고 竣工되니「……20世紀 3 類映



링전記念館, 워싱튼所在, 建築家Bacon設計의 新古典派의 手法의 - '例임, 内部의 鸌廊에다 浮彫가 세겨졌음, 外部의 嬰所에도 彫刻을 装飾했음.



브라진의 新首都인 브라질리아에다 建設한 政府總會의 一部, 大統令官邸, 建築家 Niemeyer 의 作品, 建築과 彫刻과의 有機的 構成, 内部의 壁面에는 壁画가 그려져 있음.

画의 세트·Set에도 미치지못한 보잘것없는 建築……...」 여라하고 酷評(建築家 P. Rudolf의評) 当할 程度였다

一方, UNESCO本部인족 이탈리아를 代表한 建築家 Nervi, 프랑스를 代表한 建築家 Zehrfuss, 어메리카 를 代表한 建築家 Breuer 등의 제(3)사람의 協同 設計였는데 그 Consultant도 이 Breuer 였다. 그러나 Harrison 은 大成한 建築家였을지라도 独学者여서 建築의 綜合芸術 일바에 対한 知職이라던가 理念따위를 云謂할만한 心的状態가 缺如된 까닭에 빚어내진 아쉬움일뿐 아니라 千秋의 後 悔를 살 作風이되어 버리고 만 것이었다.

이와는 対照的으로 Breuer는 어메리카로 移民해간 도이취의 建築家인 同時에, 바우하우스出身이자 그教授이기도하여 建築의 綜合芸術일 바에 対한 客觀的이고도 歷史的인 感覚이 아주 몸에 배이다시피 主觀化되어 있었기에 르네상스時代와 같은, 로마時代와 같은, 그레시아時代와 같은 그리고 이집트時代와 같은 綜合芸術로써의 建築計劃을 断行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彫刻에	I. Noguchi(어메리카)
	A, Calder ( // )
	J. Arp····· (프 랑 스)
	H. Moore(잉글랜드)
	絵画에 J. Miro (이스파니아)
	E. Matta····· (칠 리)
	P. Picasso (프 랑 스)
	R. Tamayo······ (메 시 코)
	C. Aubere······ (프 랑 스)
写真에	B. Brassi·····(헝가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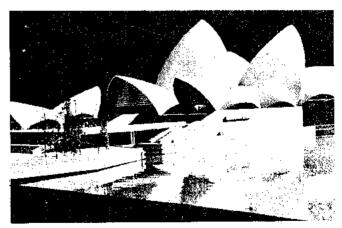
··········等의 綺羅星같은 大家들을 網羅시켜, 後代 에도 燦然히 빛날 綜合芸術의 建築을 主宰함에 이른 것이었다. 「機能的인 形態일수록 아름다움다」의 機能主義・Functionalism에,「実際를 凌駕할 理論은 없다」의 実用主義
· Pragmatism가 結合된 양키様式・Yankee Style의 UN 本部와 이와는달리 綜合芸術로 理解했기에 建設된 빠리花 様式・Parisian Style의 UNESCO 本部가 各各 지나는 精神的 次元은 이처럼 아주 判異함을 断言해 둘수 밖에 없다, 또한 이렇게 断言할 必要가 있다.

이처럼 叙述해온 本文의 展開한 바와 그 歸結整 바에 따라 우리가 処身하는,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処身 해야 만 할 우리社会의 状況을 짚어가며 論旨의 結尾로이끌고 자 한다.

1955年度에는 住宅計劃의 建築家들에게 꼭 그림질이인 「簇子의 壁龕」을 韓国風으로 設計하도록 勸誘한바 있었으나 社会化가 되어오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韓国風」이라 다짐한 것은 日本式의 「도교노마・床之間」의 티를 벗어나자는 데서였다. 日本人社会에서 書画나 꽃꽂이의 愛好思想이 盛旺한 것은 바로 이簇子걸이의 「도교노마」가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書画나 꽃꽂이의 愛好와 그盛旺한 需要와의 因果는 이 「도교노마」를 必須的設計로 여기는 風習과 密接한 関係에서 비롯되어 오고 있는 터이다. 그것은 도리어 体質化되어 있다시되 必須不可缺의 設計要素이기도 하다. 그래서 日本人들은 最小限의 住宅計劃에 있어서도 꼭 이 『도교노마」의 空間을 設計하고 있다.

우리 韓国社会에 있어서도 이 「도교노마」에 匹敵할만한 形式의 「簇子의 壁龕」이 必要하다. 그러나, 이론바「맨在 ・아파트」라 일컫는 40坪以上의 豪華아파아트멘트하우스 의 大団地가 15年来로 建設되여도 이「簇子의 壁龕」을 計 訓한 実例는 없다. 그것은 設計할 技術이 없어서가 아니라 精神이 解弛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 必須的計劃의 実 現을 為해서는 社会的共鳴을 얻기 為한 啓蒙과 說得 그리고 断行해볼 勇気가 하나(1)의 共同目標를 前提로 展開되어야 할 것이다.

解放後에 最初의 彫刻이 市街地에 建立된 것은 鎮艇市



오스트라이아·시도니港의 오페라 하우스, 建築家 Utzou의 作品, 作家·審查員 그리고 市民들의 強烈한 精神的 憧憬야 表現된 作風임, 実用主義의 습 理性만이 建築의 妥当性을 저니게 되는것이 아닌을 立証하는 実例의 하나이기도 함.

의 忠武公銅像(故尹孝重氏의 1952年度作)일 것이다. 서울 市에 있어서는 奨忠壇公園에 柳寬順立像, 金浦街道에 之 支文德立像 그리고 德壽宮에 世宗大正座像, 어린이 大公 園에「平和」의 群像………등이 制作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모두가 建築空間과의 有機的展開가 無視되었거나 考 慮할 条件이 갖추어진 바 없는 作風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彫刻이 建築과 有機的인 空間의 展開로 즉 姉妹芸 術의 하나(1)로 制作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視覚言語・Vi sual Language 로써의 対人関係가 더 密着되어지기 為해 서이다. 우리는 德壽宮内의 美術館앞에다 制作…….. 허 느 日本人의 日政때에 制作……..해놓은「噴水의 물개」 를 凌駕할만한……..祝覚言語의 作風인 同時에, 觸角言 語·Tactual Language 로서도 그 芸術性이 간직되어 있 는………彫刻이던가 絵画, 工芸가 綜合的으로 갖추어져 서 制作된 어느 公共建築의 一棟인들 아직 建設된바없어 이 또한 아쉬운 일이다. 이것은 이 姉妹芸術들을 統一하 여 展開시켜 놓은 綜合建築을 亨有할 技術이 없어서가 아 나라 그것에 対한 精神이 아직 覚醒되어있지 못했기때문 이다. 多辛하게도 現行의 建設規約에, 그 工事費의 5% 를 共存시킬 姉妹芸術의 制作에 割割토록 規約(西歐의 各 国은 10~20%로 制定되어 있다고도 伝함)해놓은바 있으 으로 行政機関의 企劃者 그리고 自由在野의 芸術家가 모 두 우리 社事의 精鋭·Elite 다운 気魄을 보여. 보다 要 饒해진 社会를 為하여 大見스러운 企図와 制作의 風潮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綜合芸術運動은 古수에 이미大 成했던 西欧의 歴史的感覚에서 認識되어지듯이 政治理会 과 芸術理念에 結合되었던 設計施策·Design Policy의

具現化를 為해서도 切実히 要望된 関心事이기도하다. 그 것은 또한 切実한 必要에 따라 意図的인 物質追求로 非情化되어가는 社会風潮일수록 이 情操的企図는 더 必要하다.

그社会가 戦争状態에 놓여있거나 内紛状態 혹은, 経済 破綻,思想動揺,政局不安이면 一般大衆이 芸術을 亨有 할만한 精神的餘裕가 稀薄해지는 것은 事実이다. 이러한 処地라면 建築을 綜合芸術의 母胎로 認識하고 実践해온 建築文化의 伝統을 継承할수 없음도 当然한 일일것이다.

綜合芸術로서의 人類社会에 嚴存해온 그 絢爛 한 建築文化는 去頭截尾之格의 突然異変으로 가끔 点在해진 現象이 아니라 몇千年来의 連綿한 歷史的感覚을 지나오는 것이므로 이것을 후存하고 伝達해출 継承이 있어야한다. 그렇에도, 他民族이나 自民族이 常為했고 大成했던 그 建築文化의 후有와 伝達의 現実을 輕視하거나 疎惚히 하는 것은 學族的으로 反省해야만 할 精神的 解弛에서 미릇된다.

本高는「国際建築潮流속에서의 韓國建築의 展望」이란 課題로,金友会創立十週年記念学術州미나(5月13日, 牛耳洞그린파크호텔)에서 発表된 論文中의 一部임.

# 建築設計事務所論

## 金東珪

金票時建築設計事務所長



建築設計事務所는 作家에 作業室이나 大学에 教授에 研究室이 独立하면서 建築許可代願事務가 끼어들어 形成된 한 作業室이다. 同時에 研究室로서 젊은 技術人을 養成하면서 運営하여 온 것이다.

1963年 建築士法이 制定됨으로서 自由業에서 一種에 官許業으로 分類되었고 稅法運営上에는 法務業에 適用을 받는다. 設計事務所에 作風이 設計為主나 許可나, 法規에만 適合하도록 하는 作風이나에 따라서 建築士誌 78年 3月 등에서 發明求先生이 指適하신바와 같이 再湯如何에 따라서 設計事務所나? 代書房이나는 評을 免치 못한다. 1個月에 設計를 100件, 200件하였다하는 말이 나오고보니 아무리 住宅이나 建築許可為主라도 社会에 評을 避하지 못한다.

## 建築士協会

建築士協会는 建築法에 依하여 設立된 特別法人이다.19 78年3月末 現在 全国에 1978名에 事務所開設者를 母体로 構成 되었고, 現在는 69名에 代議員総会로서 運営되고 있다. 執行部는 5人에 理事와 2人에 監事로 構成되여 있으나. 会員이 1,700이고 보면 理事에 数도 20人線은 되여야 会員比例로 適合하다고 生覚한다. 協会는 年間予算이 4億余원이고 서울市支部에 복지회에 予算6億余원인이다. 運営費予算은 58,000,000원으로서 복지회総予算에 ①1%이다. 吳年前 共済会니 무엇이니 하여 論議되었을때 元老級에 相当히 反対하여 온것을 記憶하고 있다. 然이나, 이복지회에 設立目的이 1次目的은 会員에복지 問題이었고, 2次的인目的은 덤핑 防止가 主要한目的이었다. 그러나 会員에 복지문제는 相当히 安定되었으니, 덤핑問題는 아직도 方向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욱|心 慮되는 問題는 덤핑을 하는 사람이 小規模에 事務 所運営者가 아니고, 中級이라는 데 있다.

協会에서는 엄평防止로 相当한 努力을 쓰고있으나. 建築 設計事務所 運営者에 資質이 問題인 것이다.

이 덤핑으로 社会에서는 設計 費는 깍으면 된다는 生覚

이 많다. 倫理委員会는 좀더 움직여야 할 것이다. 特히 따이 作成한 計劃設計를 가지고 Z이 덤핑하여 판에[平面 에서 室名만 바꾸고 設計하는 境遇가 許多하다.

## 設計事務所에 構成

Total Design 이야기가 韓国에도 들어오고 있다 근事務所에서는 이미 이 方法을 導入하고있다. 허나 이러한 組織을 가지고 運営하는 設計事務所가 몇이 나 되 느냐는 問題이다. 또한 우리에 設計事務所가 이러한 組織 으로 運営하고 現実로도 適応하느냐도 問題이다.

78年 3月号. 参照-金熙春先生紹介文—그러나 韓国에 現実로서 이러한 組織을 하는것은 여러가지로 問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러한 組織이 될것이다. 이러한 組織을 갖추면 이미 作家에 工房은 아니고 企業으로 運営되여야 한다. 建築家 1人이 指揮할수 있는 人員은 10名內外이다. 構造나 設備(土木,電気,衛生,暖房) 等을 合처도 20人線이 上限이다. 그러나 大型事務所 即 Engineering 이나 株式会社形体로 職員数가 100名이 넘으면組織도 달라져야 한다.

## 合同建築士(Co-Architect)

앞으로는 이 問題도 研究를 하여 볼 問題이다. 자금까지는 莫然히 合同事務所라는 名稱으로 生覚하였지만 合同事務所가 構成되드라도 事務所構成要件에 補助土가 있어야 한다고 되여있다.

## 補助士(Craftsman)

改正된 建築士法을보면 補助上를 두도록 規定하고 있다. 이 補助士는 資格이 制限되여 있다.

## 그 資格이

工人卒業生

工高卒業生士 4 年에 実務経験

工事卒業生+2年에 実務経験者라야하고,

이 資格을 가진 補ഥ 1:가 있어야 設計事務所 構成要件이 된다. 建築士應試資格이 工大卒業后 7年 工專(初大)卒業后 9年 工高卒業后 12年 基他16年以上 補助上로 設計事務 所에서 5年以上 実務経験이 있어야 応試資格이 認定된다 고 되어있다.

建築士 応試資格		補助土	
工大卒業築士	_	_	
初大卒業	2年	2年	
正高卒業	4年	4 年	
補助士	5年	_	
実務経験		9年	

아上에 条件을 보면 補助士는 建築士試験에 不合格된者 또는 初級大学, 工高卒業生만을 補助士로 採用할수 있으나, 各建設会社나, 用役会社等에서는 初級大学卒業生, 工高卒 業生도 採用을하나 設計事務所에 求人難을 当分間継續 되 리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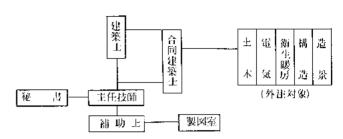
大学人力問題가 調整될때까지는 어려운 問題가 남는다. 다만 어떠한 経過措置가 作成되여 施令行에 制限을받게될 는지 이무도 모른다. 다만 建築士協会에会長任員団이 이 問題를 좀더 깊게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 Apprenticeship이라는 말이었다. 洋에 東西를 臭論하고 "이 個度가 없이는 技術者고 技能者도 養成할수없다는 原理를 認識하여야 한다. 特히 自己가 取扱하는 일을 中途에 버리고 解職하는 따위에 일은 없어질 것이다. 적어도 設計事務所를 育成하려면 補助土들에 찾은転出을 統制 하여야하며 스카웃防止 方法을 研究하여 施行하지않이하면 完全한 技術者를 養成할 수는 없을것이다. 完全히 基礎가 생긴 事務所는 一定한 Rulem에 待遇外는 하지않는 法이다. 自己作業能力에 맞는 俸給을 바라지 않고, 同僚가 얼마를 받으니까 나도하는 式 思考方式이 없어져야한 것이다.

## 設計方式에 改善

現在도 建築上協会는 年例行事로 海外旅行을 하고 建築 上誌에 紀行文이 실리는데 이러한 視察旅行보다도 좀더알 찬 海外旅行을 할 수 있는 機会를 만들어야 합것이다. 무 순 큰 王事場에가서 또는 会議에 参席하여 海外의 「方向」 工事方法을 見学하고 工法도 見学하고 새로운 知識을 - 가 져오도록 함이 有益할 것이다. 내가 建築家協会에서 오랜 동안 国際建築家聯盟(UIA)와 관계를 하였고, 数三次 外 国旅行을 한 経験으로 비추어 볼때 短時目에 수박절핥기에 旅行보다는 알맹이 있는 外游를 하도록 勸展하여야 한 것 이다. 設計가 完全하려면 적어도 設計図作成課程과 編成 方法도 아우러 研修하여야 한다. 적어도 建築土協会는 그 莫大予算을 쓰면서 標準設計図 하나를 作成하지 못했다. 許可申請用이 아닌 設計用에 標本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体系的으로 말하면 設計事務所에 構成이 이왕 補助上란말 이나왔으니 그 組織을 検討할 心要가 있다. 年前에 本人 도 設計事務所를 좀 다른 方向으로 습詞内至는 乃系統

的으로 再組織을 提言한 적이었다. 1 組織에 図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 境遇에 問題가 되는 것은 製図室(Crafting pool) 이 다. 이 組織은 主로 外国에서 利用하는 한 例이다. 萬若 에 이組織과 같은 運営이 可能하다면 補助士에 資質을 높 여야 할것이다.그러나個人運営으로 한다면모든 建築士가 補助土 때문에 지금 以上으로 苦痛들격을 것이다. 지금과 같이 補助員量 甲乙에 事務所足 転転하면서 흐려놓는 環 境을 몇年間은 더봐야 할것이다. 外国에서는 이補助士 ( Draftsman 이라함)들은 높은 脊質과 人格으로 文字 그대 로 補助士 資格을 가지고있다. 協会에 바라전대 이 補助 土 問題를 좀더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設計事務所가 経営難인 것은 稅制에도 改善할 点이많다. 現行 外形金額 에 27%가 課表로 되여있으나 이 課稅標準額이 10%線으 로 調整되어야 한다. 이 10%가 適定線이타는 것은 設計 事務所를 経営하여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線이다. 歷代会長団이 目標로 삼아오던 稅率의 調整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最近에 作成한 設計에 原価量 計算하 여 보면 다음과 같은 數値가 나온다.

設計口図 41数

原紙代 41×150=6.150 - 808/m²

청사진代 41×22部 902枚

902枚×50. =45,100

식방서 20部×100. =2,000

내역서 20部×5000. =100,000

기타 연필, 집품 =50,000

設計図 41枚×3 日=123 日÷25= 1 人 約5 個月

작원 給料 200,000×5個月 1,000,000

子至計算費 100,000

現場実測費 2人×5日-10日/25-0.4人80,000

計 1,293,500

諸経費

400.000

台計 1,693,250

事務室経費 180,000×5=900.000/2 (20坪)

Chief 俸給  $250,000 \times 5 = 1,50.000$ 

計 2.143.000

4,000,000 - 3,393,000 = 607,000 ⇒ 15% 繳利

以上은 Fy 78年度 한設計에 実算例이다. 俸給에는 時間 外 勤務手当도 包含되여 있다. 以上에 統計는 한件에 設計 実費를 統計잡기 為하여 모든 作業을 中止하고, 한 件에 設計를 完成하고 実費를 精算하여 본 것이다.

# 随想

## 安仁模

三朋 建築設計事務所長



가) 創作

그것을 여기서 再現하면 곧 다음파같다. ①처음으로 만들어내는일. 만것을 흉내 내지않고서 純然히 새로 만들어냄. (물건). [Origination] 이와같이 創作의 語義는神聖不可侵의 尊嚴性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建築人들은普通있는 建築設計等 그制作活動을 普遍的語義를 가진 作品活動으로 表現할 것이로되 作家自身의 "創作活動" 云云은 股監함을 느껴야한다. 그렇다고 作家의 意慾을 탓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意慾없는 実行있을수 없고, 그러한 意慾과 実行이 없을 적에는 建築의 発展은 期待하기 어려운 까닭이므로……

우리들 建築分野에서 "創作活動"이른바 activities for creative worke! 란 얼마나 羨望된 말인가! 建築人이라면 그 意志는 가져야하고 그것의 実践도 해보아야한다. (비록 失敗가 뒤따르더라도). 20世紀가 다가기前에 우리 大韓民国에서도 이겨레의 누구하나 이建築에서 創作을해 냈다면(審美的 構造的, 機能的 그리고 主体象徵的見地에서 優秀한) 이時代의 大韓民国建築界에서의 劃期的인 思潮를 이루어 建築造形의 作品活動에 沈滯에서 허덕이는 現況에서 벗어나는 突破口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를테면 模倣은 우리의 形便으로 어제할 수 없는 것이나부라질의 경우처럼 포루투칼植民時代에는 建築造形 原形

은 自然署투간에서 誘導되었겠지만 오늘날의 부라질特有의 現代建築들은 그 領土의 中央部大陸 이 熱帯地域的 環境인것을 살려距속半世紀以前까지만 하여도 初期의 陜羅 巴 様式에서 脱皮못했던 격이 近世,著名建築人의 손을 빌어서 누가 보아도 부라질의 새로운 그리고 創造的인 것으로의 탈바꿈이 아닐수 없으며 그것들 부라질의 新建築은 그廣大한 地域에 결치는 国土開発과 計劃된 都市및地方建設과 併行하여 活発히 이루어져 가는中이다.

다시 우리에게로 말머리를 돌려 말하면 우리들 속에서 그누구 한사람 아니 어떤 그룹一群이 創作또는 거의 創作 에 미치는 일을해냈다면 그作品은 後世에서 1970年 代의 記念物로 国際的待遇를 받을것이고 그創作当事者는 現世 의 栄光된 存在이며 後世의 至賓的 崇仰을받을 人物일것 임은 勿論建築界 全般의 자랑이 아닐수없다. 人種展示場 이라는 말과같이 建築에서도 適用이 된다면 建築 百熊展 示場인 우리들의 環境에서 果然 오늘의 이建築様相은 어 떠한가? 다시말하면 自他가 公認하는 1961年5.16革命으 로부터 1972年10月維新을 거쳐 経済社会・文化等 各分野 에 결찬 刮目할 発展相을 우리 建築에서 模倣群集 建設로 表現해서야 말이시지 않는다. 또 그럴수밖에 없는 形便인 スピ 建築設計委嘱受註方式이 資本主義・自由主義의 美 名下에 競角덤핑으로 財閥의 建築이나 庶民의 建築할 것 없이 模行하고 있어서 建築人사이에 돈을놓고 비싸다. 낮 다의 去来로 報酬가 아닌 商品販買代金式의 風潮인 까닭 에 相互덤핑의 様相은 同族間, 骨肉相残의 形態와같다.

이번結果는 制定商時 先進外国의 建築設計報酬料率을 参 酌하여 그外国것보다도 훨씬低率로 策定한것으로 믿는고 報酬料率마저 못찾아타는 우리들 建築人인 것이다. 이러 한 덤핑様相을 全般社会의 所為로 받아 둘인다면 그것을 因果에 있어서 因으로 치자! 그果는 무엇인가. 우리가 보는 国土各処의 建築群集이다. 우리의 創造를 찾아 볼 수 없는 이안타까움은 그莫大한 投資로 이루어진 그것들

이 維新의 飛躍発展을 群集数量으로 밤에 象徵할 수없는 우리들 建築人의 良心이며 頭脳며 힘인가? 하고 自責한 다. 創作은 못이루더라도 創作에 가까운 것을 만들어내 야 한다는 共同의 協力, 努力이 있다면 안되는 것도 아니 기에 하는말이다. 우리들속에 그러느누가가 創作의使命 感을 지녀서 이飛躍의 相을 建築造形에 殷殷히 나타내고 建築作品活動에서 이나라의 多大数建築人들의 向方에 示 範으로서 進路를 開拓하는 즐기로운 建築人이 꼭 나타날 것을 期待하며 確信한다. 그런 사람이란 다름아닌 오직 建築技芸의 才質과 学究을 兼한 資質에, 不退不屈의精神 力을 갖춘 心身健康한 体質에, 그自我把握에서 宇宙안에 서의 "白"임을 깨닫고, 歷史속에서의 "我"임을 覚醒하며, 高製한 志操을 天稟으로 지난이라야만 될수 있다고 생각 된다. 勿論,後天的으로도 非常司 奮発勉勤하여 努力精 進하면 위에 말한모든것을 補充하여 創作이라는 이時代 의 使命的인 創作을 해낼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 亦是 締結지어말하면 天賦가 아니겠는가?

"作品活動"엔 精誠을 다하여 完逐하며, 創作活動 에는 宮虚로서 臨하되 이重大한 時期에서 그러한 創作意慾을 저바리는것도 罪惡이다. 그런말을 왜 하느냐하면 여刮目 할 発展의 時期는 韓国有史以来 처음의 일이라고들 사람 마디 말한다. 그렇다면이 아니라 眞実로 오늘의 韓国建 築人은 우리들의 作品活動에서 建築의 内外空間建物機能, 表裏様想에서 그모든것이 現代스럽고,韓国스럽고 坚維新 発展왜 예栄光된 時代를 劃期할 수 있는 審美的造形과 過 去의 훌륭한 伝統이 덮어놓고 模倣이 아닌 造形対象物 안 밖에 어 디선가 꿈틀거리는 建築을 이루어 놓고 가야겠기 에 하는말이나 주제넘게 "저는 못하면서 무슨잔소리냐? "하며 꾸 짖는다면 할말이 없지만 우리 建築人둘 사이에 서로 対話를 하다보면 그러한 예지의 바탕이 가끔 번씩이 는 것 을 보아온 筆者이기에 猥濫되게 퍼본것이며 近間 完成된 그래도 創作에 가까운 造形象을 세워 놓게한 建 築人 들에게 敬意量 表하며 이만 맺는다.

## 4) 現俗有感

特히 建築専功学生 여러분께 所感을 퍼본다.

## 1. 男女平等"対話"

가) 男女問対話에서 보면 過去(李氏)朝鮮王朝 時代의 土大夫집 家庭을 指導層 民間家庭으로 볼수 있으되 그家庭에서의 夫婦間의 対話를 보면 相互敬語로서 주고받고 하였음을 볼 수 있고 그들 子女中 어떤 女性(娘子)과 다른家庭의 어떤 男性(도령)과의 사랑하는 사이의 (웬만하여서는 없는 일이지만)対活亦是 서로 敬語使用임을 여러

모로보아 알수있으며 筆者의 젊었을 적을 凹顧하여도 그 것은 当然하였다고 생각되며 조금도 쑥스럽다고는 생각 지 않았다. 그런테 그때가 日本에게 被壓되던때로 日本 사람들의 家俗을 直接볼수 있었던것은 筆者 또래의 年輩 以上이면 経験한일언줄로 안다. 그때의 日本사람들은 地 位의 또는 職種의 구별없이 어떠한 家庭의 夫婦問이라도 그男便은 의례히 그부인에게 "해라"말로 부르던가 또 누 対話하는 것을보고 깜짝놀랐으나 그것은 그들의 이무런 지 않은 굳어버린 風俗임을 일고 있었다. 너구나 젊은 男 女가 서로 알게 되어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亦是男子쪽 이 女子쪽에게"해라"말(반말)을 말을걸며 주고받는것을 보았다. 그러던 것이 어찌된일인지 民主主義란 都是모르 던때의 解放前에도 우리들 韓国社会에서는 男便이 夫人 에게 "하오말"또는 "하게말"程度로 하는것은 폐보아왔지 만 그 極端的인 "해라말"은 或 夫婦問 싸움에서나 보았 거나 日本사람 흉내내는 사람의 입에서도 그렇게 들어본 記憶이 없다. 그러던것이 꽤 오래전부터 우리 젊은 層에 서 그것도 学生層에서 流行되어 내남없이 어느집 子女할 것 없이 그들 어떤男女가 서로알게되어 조금만 親한사이 가되면 한결같이 男子쪽이 女子쪽에 "해라"로 말을 걸어 対話하니 筆者가보기엔 참 어색하다. 日本사람과 다른것 은 女子쪽이 그印度또는 얼마안가서 맞받아 해라말로 처 話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結婚이되 어 함께되면 女性은 男性인 男便에게 다시 얼마간의 敬語 를 쓰는측도 있어서 日本式家庭内의 夫婦問 対話式 으로 되고만다. 男女平等은 "먼저 対話에서"로 다시 부르짖어 야 할판인데, 서로 공대말로 할일이라고 勧하면 新派같아 시 오히려 쑥스럽다하니 낡아빠진 日本武을, 새롭게 여기 는 男子젊은이들의 大騰하다기보다 뻔뻔스러움에 경약하 며 男性化의 비탈질을 치닫는 막대기 같은 女性들이 고분 고분 不平없이 受容하는 世俗에는 더욱 놀랬다. 받아치우는 것이 男女平等인가? 훗날 이나라의 家庭風 俗의 一面을 짐작건대 그子女들이 依例히 아버지는 어머 니에 "해라"말로 対話하는 왜식 풍경이거나, 어머니가 좁 꿀꿀해서 父母가 서로 "해라"하는 집안속에서 자라나는 모습도 덜지않아보게 될것이다. 大衆媒体의 여러 곳에서나 劇어니, 모임이니等에서 더욱 그길을 재촉하고 있다. 모 는 指導層은 죽은듯 조용히 傍認하고 있다. 女性의 弱한 듯한 "柔"는 男性을 壓倒하는 強点인데 그것을 버리고男 性처럼 "剛"이 되려한다. 剛어지나치면 부러진다는 우리 俗言은 眞理를 包含한 名言이다. 그 理致는, 紙面関係上 省略한다.

# 道路交通의 騒音防止

## 李 龍 雲

建設研究所建築基準課技佐

産業構造의 평창과 人口의 都市集中은 必然的으로 여러가지 公害要素를 수반하게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都市의交通醫音問題로서 各国에서는 住民을 醫音으로부터 保護하기 위한 研究가 활발히 進行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1年 9月18日 公害防止施行規則(改正)을 保社部分 으로 公布하고 騷音및 振動에 관한 것으로 17種을 規制하고있으나 産業上工場騷音에 국한되어있고 交通緊音에 関한 事項은 道路運送車轉法등에서 一部 다루어져있으나 具体的인 내용은 없다.

交通騷競은 時間에따라 끊임없이 変動하며 音域이 넓은 複合音으로서 交通量,速度,道路의 상태,風向, 發音源 으로부터의 距離等 여러가지 要素에따라 달라지므로 만족 할만한 測定方法및 対策을 수립하기가 쉬운일이 아니나 여기에서는 各国의 研究結果를 참고로하여 在居環境計劃 (의) [합에서 交通騒音問題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 1. 交通騒音의 測定単位및 測定方法

測定単位는 住民의 주관적인 反応과 잘 合致되어야하고 交通資料를 計劃에 効果的으로 利用할 수 있어야한다. 지 금까지 提案된 測定単位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중에서 L(,,,)이 比較的 相関関係가 높고(r=0.7) 適用하기에 容 易하다. L..이란 平日 牛前 6 時에서부터 밤12時까지 住 宅의 外壁面의 中央点으로부터 1 M떨어진 지점에서 1時 間간격으로 騷音을 測定하여 測定時間의 10%에 해당하는 上位 醫音래벨(dBA)의 平均値를 말한다. 每時間의 騒音 레벨은 한 時間간격으로 騷音레벨을 측정하여 얻으며 現 地의 交通量을 考慮하여, 各 測定은 100回정도의 車輌通 過가 포함되도록하고 最小限 50回以上이 되도록한다. 예 를들어 時間当 300回의 車輛通過가 있을경우 測定時間 으 로는 1分내지 2分정도이면 좋다. 測定은 騷音測定機 (Sound level meter)를 使用하며 自動記錄된 레벨(level) 로부터 統計的 方法으로 10%의 레벨(L..)을 求한다. 즉 임의의 레벨을 択하여 그 레벨以上이 되는 時間의 퍼센트 (%)를 数個의 레벨에서 計算하고 그 結果値로부터 補間 法으로 10%레벨(L.。)을 求한다.

## 2. 許容騒音基準

許容騒音基準을 얼마로 하느냐는 것은 建物의 性質,各個人의 騒音에 対한 経験및 遮音에 所要되는 費用等 여러가지 要素를 考慮하여야 하기때문에 簡単하지않다. 遮音費用과 住民의 快適性과는 반비례적인 性質이 있으므로複合的인 要素를 考慮하여 適正한 基準을 定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직 公害防止法上에도 交通騷音에 対한 規制事項이 없으며 研究資料도 거의 없는 형편이나 外国(BRS; Building Research Station)의 研究結果를 참고로하면 L.으로서 65~70dB(A)정도가 適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数値는 住民의 快適性을 充分히 만족시킨다기 보다는 最小限의 基準値로서 보아야 할 것이고 應音費用을 考慮치않는다면 60dB(A)以下가 바람직하다.

## 3. 騒音에 対한 露出

## 가. 一般事項

交涌騒音에 対한 住居의 露出量은 交通量, 交通의 性 質, 平均速度(平日 아침 6 時부터 밤 12時까지), 道路로 부터 住居까지의 距離및 住居의 露出外壁面등에 結定되며 기타 路盤傾斜, 路盤의 性質, 住居의 높이, 風 向具 反射壁面의 有無等에 依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이 관련되는 要素들이 많기때문에 모든 경우에 適用될 수있는 어떤 数式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 다. 특히 交通量이 過多하여 원활한 소통이 되저못한 곳 이나 道路에 평행한 隣接壁面이 많아서 複雜한 反射音이 예상되는 곳은 値接 現場에서 騷音測定을 하지않으면 않 되며 이때에 外壁이 없으면 後에 設置될 것을 考慮하여 測定된 騷音레벨에 3 dB(A) 程度를 加算해 주어야한다. 그러나 交通이 원활하게 소통될 경우에는 비교적 정확하 계(±2dB(A)) 騷音量을 予測할 수 있는데 다음에 直接 騷音에 露出된 住居의 騒音露出量을 算出하는 節次를 그 인다.

## 나. 騒音源

図1로부터 隣接道路의 端에서 30m 떨어져있는 外壁面에서 1m 되는 지점의 L.. 값을 求할 수있다. 이 값은 바람이 道路에서 住居쪽으로 불고 平均速度가 75 km hr일때이며 速度가 다를 때는 図2를 利用하여 補正한다. 重機車輔의 있을 때에는 全 交通量中에 重機車輔의 점유율을 考慮하여야 한다. 速度가 64 km以上의 원활한 소통에서는 重機車輔의 영향이 별로 重要치 않다. 図2. 図3 으로부터 求한 顯音레벨은 重機車輔의 率이 20%일때를 基準으로 한것이며 이 率이 40%가 되면 +1 dB(A), 0%가되면 -1 dB(A)을 해주어야 한다. 円滑한 交通이 이루어지고 있는 道路의 경우에 路盤傾斜가 騒音레벨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重要치 않다. 그것은 傾斜를 오를 때에 増加하는 騒音레벨과 速度의 減小에서 오는 레벨의 減小가 傾斜度 8/100까지에서는 거의 서로 상쇄되기 때문이다.

傾斜진 路盤에서의 騷音레벨을 求하려면 먼저 平地에서 같은 速度, 같은 交通量일때의 騷音레벨을 求하고 重機車輌의 率에 따른 変化量을 適用하여 수정한 後에 路盤의 傾斜에 따른 変化量을 適用하면 된다. 路盤傾斜에 따른 変化量은 傾斜가 2~4%일때 1dB(A), 4~8%일때 2dB(A) 이다.

## 다. 距離

以上과 같이해서 求한 騒音露出量은 바람이 道路에서 住居쪽으로 볼때, 隣接道路의 端에서 30m 떨어져있는外 壁面에서 1m 되는 지점의 露出量이다.

図3를 利用하면 距離에 따른 騒音레벨의 変化量을 求할 수 있다. 예를들면 30m 떨어진 지점의 騒音레벨이 75 dB(A)이라면 図3을 利用하여 距離를 적당히 조절함으로써 원하는 레벨 70dB(A)로 낮출 수있다. 道路와 住居사이의 地面性質이 住居의 懸音露出에 영향을 줄 수있다. 道路에서 住居로 移動되는 騒音은 地面이 단단한 材料로 포장되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地面吸収에 依하여 減 까된다. 減小되는 量은 地面의 性質과 地上伝播経路의 平均높이에 따라 変하며 대략적인 減小量은 表 1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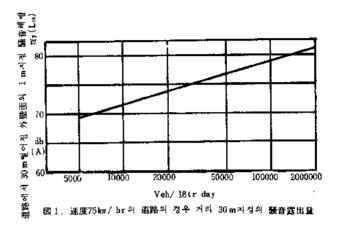
## 라. 露出量의 合算

두개의 交通方向이 30m以上 떨어져있는 道路에 있어서나 물以上의 道路에 依한 露出量의 計算은 各各별도의 計算을 한다음 図 4 를 利用하여 숨을 求한다. 두개의 露出量의 숨은 図 4 를 利用하여 修正量을 求한다음 露出量이 큰 쪽에 加算하여 중으로써 숨을 求할 수 있다. 例를 들면 69dB(A)의 67dB(A)의 숨은 69dB(A)에 修正量 2.1dB(A)를 더한 71dB(A)가 된다.

## 마. 바람(風)

風向의 영향에 対해서는 이미 晉及을 했지만 図1로부터 求한 騒音레벨은 不利한 경우 즉 普通程度(2 m~3 m/S)의 바람이 道路에서 住居쪽으로 불때를 基準으로 한 것이다. 溫度도 騒音의 伝播에 영향을 주지만 一般的으

로 그 程度가 크지 않기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한다. 바람의 方向이 住居에서 道路쪽으로 불때는 騒音레벨이 다소 낮아질 것이나 有利한 경우를 가정하고 露出量을 計算하여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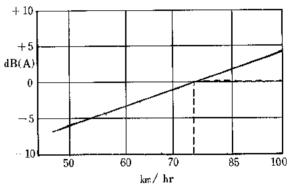


図2. 速度에 따른 補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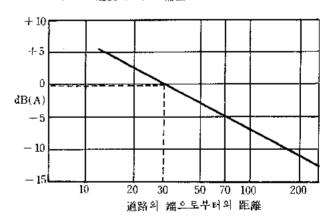


図3. 距離에 따른 補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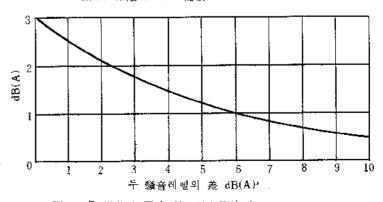


図4. 두 道路로 因한 騒音露出量의 습

## 4、騒音의 調整

위와같이 해서 算出된 顯音레벨은 開放된 住居의 경우이며 調整方案으로는 i) 距離에 依한 方法 ii) 遮断物에 依한 方法 iii) 建物의 防音에 依한 方法等을 들수 있는데 距離의 調整効果에 対해서는 이미 言及이되었다.

#### 가. 遮断物

道路와 住居사이에 遮断物을 設置하면 騒音露出量을 약 20dB(A)程度, 적어도 10dB(A) 程度는 줄일 수있다. 遮断物은 어떤 全地域의 騒音露出量을 줄이는 데에는 발휘

表 1. 地面吸収에 依한 騒音레벨의 減小

地上伝播経路의 平均 会이 (m)	減小値dB(A) / 100 m		
6	0		
3	3		
1.5	6		
0.7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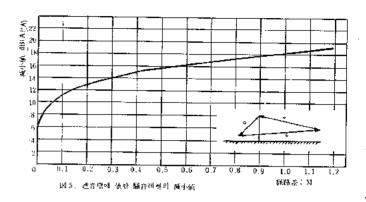
하기 위해서는 遮断物의 길이와 높이가 充分하여야 한다.

## 1) 樹木

騒音을 遮断하는 데에 樹木을 利用하는 경우가 있는데 큰 効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폭이 좁은 樹木遮断帶 는 거의 効果가 없고 10dB(A)程度의 騒音露出量을 줄이기 위해서는 遮音帯의 幅이 거의 50m나 필요하다. 더우기 樹木이 빽빽하여야 하고 年中 効果를 갖기위해서는 常緑樹이어야 한다. 새로 開発된 住宅地에는 이러한 条件을 갖추기가 어렵고 植樹를 한다고 하여도 数年이지나야 効果를 기대할 수있다.

## 2) 遮音壁

騷音을 大幅 줄이기위하여 設置되는 遮音壁은 騒音原 이나 変音者에 가까이 設置되어야 하며, 높이와 길이가 充分해야 한다. 壁의 面積当 무게는 10 kg/㎡ 以上이어야 하고 壁面이나 그 下端部에 空気流出口가 없어야 한다. 実際로는 以上의 条件量 外에 構造的 安定性과 外観等이 考慮되어야 한다. 遮音壁에 依한 音의 遮断은 불투명체 에 의한 音의 遮断만큼 선명치는 않다. 遮音壁의 両端에 서는 흐려지고 受音点이 中央으로 옮겨집에따라 遮音性 이 좋아진다. 遮音壁에 依한 猛音源으로부터 受害者까지 의 直線거리(遮音壁을 通過) C와 璧의 上端에서 騒音源 과 受音源를 連結한 距離(a+b)에 依해서 定해진다. 図固 5는 遮音壁이 대단하 결때에 経路의 差에 따른 騒音레벨 의 減小値(上,)를 나타낸다이며 図6,7.8은 壁의 높이가 작각 1 m, 2 m, 3 m 일 때에 騒音레벨의 減小値를 보인 것이다. 図6,7,8은 騒音源에서 遮音壁까지의 거리를 25m 로 잡은 것인데 実際로는 이보다 騷音源에 더 가까이 璧 이 設置될 것이므로 騒音레벨의 減小도 1~2dB(A) 程 度 더 쿨 것이다. 図6,7,8의 경우 外에는 経路差에 따른 騷音레벨의 減小値들 나타낸 図 5 를 利用한다. 以上과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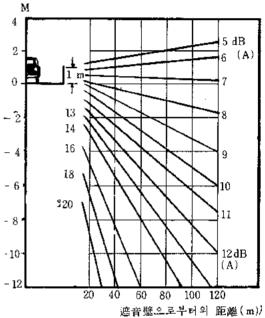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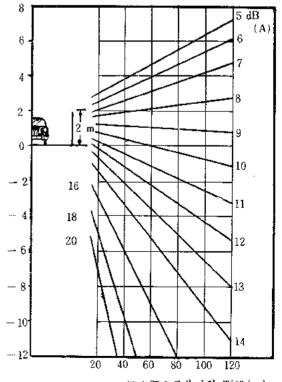


図6. 높이 1 m應音壁의 騒音레聖減小(L<sub>10</sub>)



遮音壁으로부터의 距離(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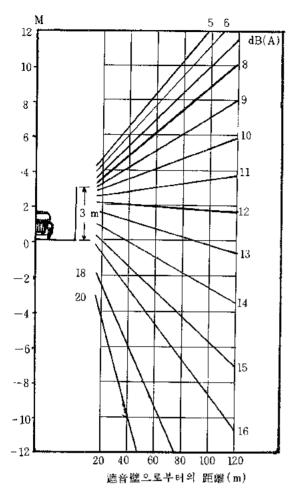


図8. 높이 3 m應音壁의 騒音레电波小(L<sub>10</sub>)

이해서 求한 騷音레벨의 滅小値는 遮音壁이 無限히 길때를 가정한 것으로서 壁의 길이가 限定되어 있을 때에는 受音点의 位置에 따라 細正을 하여야 한다.

대칭차단벽의 경우 受音点과 瞳의 両端이 이루는 角은 90° 以上이어야 効果的이며 應音壁이 대칭이 야닐 경우에는 그에따른 補正을 하어야 한다. 때로는 建物이 應音 壁의 구설을 할 때가 많은데 建物이 應音壁으로 使用될 경우, 建物의 後面은 完全히 騷音에 露出된 面보다 15~20 dB(A)程度 騒音레벨이 낮다. 연속된 평지붕이나 아파트 等이 이런 目的에 適合하며 騷音에 露出된 面(対해서는 充分한 防音設計를 하여야 한다.

## 나. 建物의 防音

建物의 防竜은 室内의 騷音레벨만을 줄이고 外部騷音 레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大部分의 경우에 . 室內의 騷音을 調整하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 設計를 할 때에 計劃및 各部詳細에 注意하면 普通開閉窓을 가진 建 物의 경우 30dB(A)까지 騷音레벨을 줄일 수있으며 이것 은 遮音壁이나 距離에 依한 調整보다 오히려 効果的이라 고 할 수 있다.

## 1) 騒音의 室内浸透

屋外騒音은 여러 経路를 通하여 室内에 浸透한다. 騒音이 室内에 浸透하는 経路를 보면 開口部다 지붕, 굴뚝, 確体와 窓口틀의 등을 通하여 들어오는 側路伝播와 各種

간막이(여기서의 간막이라함은 壁, 지붕, 窓등의 遮断部 材률 말한다)를 透過하여 室內에 浸透되는 空気伝播 그리 고 各種 機械의 振動이 構造体를 通하여 壁을 振動시키고 音으로 放射되는 固体伝播等이 있다.

## 2) 防音計劃

室內에 浸透되는 騷音을 防止하려면 위에서 말한 音의 伝播経路를 遮断하여야 한다. 側路伝播를 막기 위해서는 閉口部나 지붕, 굴뚝, 벽체와 窓門물사이의 톰을 없애는 것이 重要하고 空気伝播를 막기 위해서는 간막이의 材料를 잘 選択하고 音의 透過面積을 가급적 줄이며 室內의 吸音力을 크게 하여야한다.

屋外의 騷音레벨과 室内의 騒音레벨과의 差異를 実効 遮音度라고 하며 実効遮音度는 다음과 같이 表現된다.

 $NIF = L_1 \sim L_2 = TL - 10\log \frac{S}{A}$ 

NIF:実効遮音度(dB) T:에너지平均透過率 L:屋外騒音레펱(dB)

S : 잔막이의 音透過面積(m')

L, : 室内騒音레ভ (dB)

A:室의 吸音力(m'unit, sabins)

TL:透過損失(=10 log1/2)

위의 관계적에서 보는 바와같이 実効應音度를 높이기 위해서는 간막이의 音透過面積을 줄이고 室의 吸音力을 높이며 가급적 透過損失이 큰 材料를 使用토록 해야한다. 壁体의 透過損失은 単位面積当의 무게에 依하여 結定해 지는데 普通무게가 그倍로 增加함에 따라 그 平均遮音은 5 dB 程度 增加된다.

側路騒音이든 空気伝播騒音이든간에 屋外騒音의 室内 測透을 막는 데에있어 最大의 취약부는 閉口部라고 할 수 있다. 室内의 騒音레필은 주로 窓의 面積, 構造및 気密 性에 左右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騒音에 面한 窓의 面積은 작을수록 좋다. 에를들어 窓의 面積을 ½로 출일째 3 dB(A) 만큼 遮音効果를 높일 수있다. 側路伝播에 依한 騒音에 対해서는 무엇보다도 窓의 気密性이 重要하다. 普通開閉窓일 때에 15~20dB(A) 만큼 遮音効果를 期待한 수 있는데 반하여 固軍窓으로 하여 最小限 5 dB(A) 程度는 더 期待한 수있다. 그러나固定窓의 경우에는 換気와 여름철의 温度調節에 별도의 手段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側路伝播의 防止를 위하여 窓을 気密하게 하거나 音의 透過面積을 줄이기 위하여 窓을 작게 내거나 하는 것의에 透過損失을 크게 하기위하여 두 깨운 유리를 使用하고 二重窓으로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리의 두께를 크게하는 것은 별로 効果的이지 못하고 (에를들어 유리를 4 mm에서 6 mm로 바꾸어도 遮音効果는 2 dB(A) 程度밖에 改善되지 않는다) 오히려 二重窓으로 하는 편이 効果的이다. 이 때에 窓과 窓사이의 간격은 最小

150 mm 以上 이어야 하며 간격이 클수록 應音에 유리하고 더 큰 効果를 얻기 위해서는 二重窓의 한짝을 固定으로 할 수도 있다.

應音門題의 換気門題는 가끔 서로 相反될 때가있다. 어릴 때에는 動力 換風機를 設置하여 解結할 수있다. 換風機가 作動하면 密閉된 窓에 比하여 遮音性能이 약간 떨어지나 換気를 위해 窓을 열어 놓은 것보다는 10dB(A) 程度높다. 換気가 끝나고 換風機가 멎으면 外部로 나있는 換風機의 삿터는 닫히게 되며 단일窓은 물론 二重窓에 使用하면 効果적이다. 二重窓이 경우 換風機가 作動하고있을 때에는 30dB(A) 程度, 作動을 멈추고 있을 때에는 35dB(A) 程度의 遮音効果를 期待할 수있다. 또한 二重窓을 어긋나게 열어 換気를 할 때에는 20~25dB(A) 程度의 遮音効果를 얻을 수있는데 必要한 換気量과 実際의 換

気量의 관계를 充分히 検討해야할 것이며 여름철에는 별 도의 換気手段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以上과 같은 騒音処理方法外에도 平面計劃을 적절하 잘 함으로써 정숙을 要하는 空間을 保護한 수있다. 즉 騒音 에 直接 露出되는 面에 화장실, 흘, 부엌等 動的空間을 配置하므로써 静的空間인 침실, 서재동이 反対편에 位置 하게 되어 騒音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지금까지 文通騒音에 対한 一般的인 対策을 다루어 보았는데 교통량이 날로 增加하기 때문에 騒音問題는 점점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騒音은 대체로 局部的인 性格을 띄고있지만 人間에게 매우 鋭敏하게 作用하는 것이기때문에 결코 소홀히 다룬 수없는 것으로 쾌적한住居環境을 造成하기 위하여는 보다 많은 노력과 研究가 있어야할 것이다.

물을 아껴쓰자 한방울의 절수도 목탄 대지 적신다 보내는 양수기 목마른땅 반긴다

# 世界現代建築의傾向들

## 5

## Utopianism 3- Industrialization

## 趙 英 武

- 5, 1958년~1966년 현대전축 제 2 기 Utopianism
- 6. 1958년~1966년 현대건축 제 2 기 Prefabrication과 Industrialization

6-1 개념원리

6-3 조립식제조 및 공업화 공법들

6-2 일반적특성들

6 - 4 작품들

## 5. 1958년~1966년 현대전축 제 2 기 - Utopianism

건축개념의 분석과 분류는 현대에 접어들수록 더한층 어려워진다. 바로 관계되었을 적에 중요해질 수 있는 것 이 후에는 부질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 반대로 대수 롭지 않거나 또는 공상적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었던 것 이 장차 위대한 번영의 견해들을 지닐 수도 있다. 이에 관 하여서는 감상거리가 너무나 짧기 때문에 비판할 길이 없 는 어려움과 확실한 장래발전을 분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부언하여야 한다. 아주 객관적이려고 해도 확단착오의 가능성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진다.

주관성을 피할 수 없으므로, 개인적실험의 가정을 인정하여야 한다. 작가는 2차대전이후에 곧 그들의 연구를 시작하거나, 또 전쟁과 그 결과들 그리고 정치적 조건들로 말미압이 근대건축이 중단된 이후에 또다시 중앙유럽국가들에서 피어나기 시작한 근대건축사대인, 1950년대초와 그 중간기에 그들의 말기의 건축제작 들을 하였던 세대에 속하게 된다. 그들만이 다시 근대건축을 재생시키고존속시키는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발전의 책임자들은 첫째로 1920년대경의 근대건축의기반들을 소유하였던 건축가들이었다. Le Corbusier의 '마르세이유의 주거단위아파트 (1948~1952)」또는 Mies van der Rohe의 「IIT대학교 교사들(1949~1951)」과 같은 종류의 건물들은 똑같은 가치를 가지지 않은 대조적인

것이었다. 반대로 가장 젊은 건축가들은 다른 조건들이레 이루어진 두가지 명백한 원리들을 그 자신들의 경험과 지 식에 의하여 손에 넣어야 했다.

이런 상황은 1950년대말경에야 수정되었다. 만인이 공인하던 이론의 여지가 없었던 대가들의 예가 문제들을 위한 새로운 관점들과 새로운 분석방법들에 비추어 그때력을 상실하기 시작하였다. 다른 나이많은 건축가들의 마음을 들뜨게 할 이런 절차는 상반된 오해와 비난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다. 1959년 O erlo 외 때의 CIAM 외끝장은 이런 전화의 첫번째 신호였다.

1960년대초에 1925년경에 태어난 세대가 회어져야 했던 무거운 책임에 의하여 억매여짐이 없이 그들자신의 견해 들을 개발하고 또 이미 진행중인 진화들을 이용하는 1935 년경에 헤어난 건축가들의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다.

1935년경에 태어난 이 젊은 건축가들이 Utopiamism경향의 계획들을 내어놓았다. 다분히 이런 Utopia 로의 경향은 건축가들의 그당시의 상황과 법과 법규들이 건축가에 강요하는 속박들에 관한 불만을 야기시켰다. 실무자로서는 당연히 이런 설계안들을 비판하고 또 비난하기 쉬웠다고 하지만, 이 Utopia들은 장래의 번영의 길을 트게할수 있는 경해들을 포함함 수도 있다.

이차에 맞고 또 번영케 하는 Utopia에 도달하기 위하여서는 불가해하다고 여겨지는 Utopia 방향으로 목적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부가하여야겠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는, 1920년대 후반기에 독일에서 도시모형들을 차례로 만들었던 Bruno & Max Taut, walter Gropius, 그리고 Hans Sharoun과 같은 1920년대초의 Utopianists의 예를 들게 된다. 역사가들을 위하여서는 첫번째 이 시대때부터 근대건축에서의 Utopias를 새롭게 거론한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60년대 Tokyo에서 열렸던 세계디자인회의 (world design conference)때, 젊은 일본건축가들의 구룹이 Tokyo개조와 도시재개 발을 위한 그물의 설계안들을 제출하였다. 그들은 「transformation」을 뜻하는 그리스와 같은 「Metabolism/신진대사」그룹이라고 불리었다. 1960년에 간행된 그들의 저서는 그 표제가 「Metabolism New urbanism을 위한 제안」이었다. 이 그룹에는 이론가인 Noboru Kawazoe이외에도 건축가들인 Kiyonori Kikudake (1928) Masada Otaka (1923), Fumihiko Maki (1928), 그리고 Noriaki Kurokwa (1934)가 속하고 있다.

1962년에는 Kenzo Tange, K. Kamiya, A. Isozaki, S. Watanabe, H. Koh, 그리고 N. Kurokawa를 포함하는 Kenzo Tange 팀은「Tokyo 확장계획인」을 위하여 그들의 견해를 같이 하였다. 그들의 경우 그들은 불변하는 최종적인 것이아니라 영구진화하는 것으로서의 건축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전축은 그 자체가 진화하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한 사회의 표현이 되어 버린다. 이런 견해속에는 만물이 영원히 변이와 일시적인 것속의 신(étérnel)의 연속성 또는 윤회를 가르키는 神道主義의 건축적유산이 소생하고있다(Ise 神宮-日本建築의 原型).

또다른 전해가 적합, 즉 가능한 사용개념의 수정속에 도사리고 있다. 이 두번째 전해도 역시 과거의 일본건물들속에 표현되었었다. 마지막으로 건축적요소들의 교환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어떤 구조물부분들이 결정적인 사용기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그 다음에도 개량된다른 것으로 대체된다는 교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도시자체도 수정들을 허용하는 개방체제처럼 고려되고 있다. 교통연구가 여기에서는 우의를 차지한다. 求心的인 시스템 대신에 拡張을 가능케하는 線状시스템들을 채용하였다.

사용 개념의 수정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주 간거리가 결고 또 장기간 사용되는 잘 정의된 기간하부구 조들과 또한편으로는 변화될 수 있고 또 일정기간만 사용 하는 부대상부구조들로 구별하고 있다. 이것은 고층의 수 직적동선들로 쓰여지는 넓은 간격을 두고 있는 고층 수직 고정점들에 의한 거대한 치수의 경간들을 가진 건물로 치 우친 연구의 결과이었다. 이 수직교통내력구조들 간에는 주거단위들이 마옵대로 위치하게 된다. 이렇게 個人은 보 통 공업부재들을 가지고서 그의 취향에 따라서 그의 집을 장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됨으로, 그의 주거를 가 지고 다양해진 필요들과 입주자의 상식에 적응시킬 수 있 다. 미묘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고의 형태들은 Jacob Bakema에서, 또 Candilis, Josic, 및 Woods 등의 전축가팀의 설계들에서도 발견된다.

이러한 새로운 전축개념으로부터 동시에 새로운 소유권 형식이 생겨 나오고 있다: 토지와 기간하부구조들은 공동 사회의 공유재산, 그리고 주거단위만이 개인의 소유재산 에 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신진대사적인 건축의 목적은 우리 사회의 가속화된 돌 연변이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건들을 발견하고 또 이와 병행하여 인간과 조화된 어떤 생활양식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어떤 신진대사적인 경향들은 새로운 것들이 아니며 또 벌써 다른 건축가들에 의하여, 예를 들면 Yana Friedmann 과 그의「Paris-spatiale/공충도시안(1957)」속에서도 이미 나타나 있다. 그러나 Metabolism 그룹의 공적인 일반적 시스템 속에 이런 사고를 일체화시켰다는데 있다. 사전에 결정된 수명기간을 가진 상호교환 부재물을 가쳐고 전화할 수 있는 건축개념, 개념수정을 가능케 하는 건물을 얻어 내려는 시도, 그리고 기간하부구조와 부대상부구조들로 만드는 건축조직이 장래를 위하여 중요한 개념들인 것 만큼은 확실하다.

· Metabolism그룹에 대한 Jürgen Joedicke 의 비판은 두가지 문제들과 관련되어있다. 첫째로, 이 개념은 건축경향들을 도외시하고 사회학자들이 인간사회 발전에 관하여예측하고 있는 어떤 未来社会像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건축가가 관계과학들이 그에게 제시할 수 있는 조언들 또는 협력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존재하게 될지 모르는 것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 3 자적이고 미래적인 개인적견해들의 투영또는 반영만이 이런 결과를 탄생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신도시에 대한 미래상은 현재로서는 형식적인 현실처럼, 구조화형식이 아닌 형식적현실처럼 제안되었다는 것이다. 현재의 형태들의 도움을 빌려서 미래도시를 제안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과오들을 저지를 수 밖에 없다. Brutalism속에서 태어나게 한 Metabolism의 형태속의 목록 이외에도, 가변성, 개념수정, 그리고 적합가능성에 관한 견해들의 건축이 기념적인 외양의 그림들의 형식적현실에 의하여 잡혀지고 있다는 역설에 가까울지 모른다.

그 절차는 항상 똑같다: 견해물, 방법들, 그리고 새로운 논리를 선언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또 이로 말미암은 것은 어느 정도 약간 변화한 미학과 다른 것일 수 없다. 『1920년대 건물들이 어느 경우에나 기계적인 미학정신속에 있지 않았던 것 처럼, Metabolism의 설계 안들과 하물며 그 건물들이 실제로 탄생되지 않는 한 이건물들은 조금도 진화적인 것일 수 없다』고 Jürgen Joedicke는 Metabolism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아마 이런 입장은 건축가들의 만성적인 직업병의 휴유 증일지라도 모르고 또 어쩌면 미래시대의 건축가들이 역 시 변혁된 미학에 겨우 도달할 것일지도 모른다.

그에 이은 두번째의 발병이 영국에서 발생하였다: 「Archigram」그룹은 처음에는 학생풍자잡지, 과학소설과 Comic-strip그리고 pop-art의 잡종과 다를 것이 없었다.

1964년이후 외국에서 이 그룹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Archigram그룹, 즉 Warren Chalk, Peter Cock, Dennis Crompotn, David Greene, Ron Harron, 그리고 Michel Webb가 제안한 것은 완전히 기술적인 환경 외「image」였다. 또는 그들의 설계안들중의 하나인「Computer City」란 과제를 다시 되풀이하기위한 환경의 이미지였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일본건축가들의 것보다는 덜 formalism경향의 것이었으며, 건축보다도 더한층 구조를 문제삼았다.

Archigram그룹의「Plug in City(1964)」의 개념은 M. etabolism그룹의 건축가들의 견해들과는 어떤 인척적인 유사함을 지니고 있다. 이 두가지 경우 変異性(variabitité)의 건축과 사용에 있어서의 영합성 또는 유연성(fléxibilité), 구성요소들을 相互交換하고, 그리고 이것들의 사용수명기간에 따른 구성요인들의 분류가능성이 문제가 된다. 이 두가지 경우에서는 장기사용수명기간의 기간하 부구조와 한정사용수명기간만 일체화되는 단세포적인 주 거와 같은 부대상부구조를 분별한다. 그러나 Metabolism 의 기간하부구조는 utalism정신속의 기념적인 형태들 과 치수들이었다. Archigram의 「Plug in City」설계안 에서는 도로들, 상업지구들, 단세포적인 주거들, 극장들, 학교들 중요한 도심지구요소들이 일체화되는 対角線状構 造로 귀작하고 있다. 팽창할 수 있는 膜들이 어떤 지구들 을 덮어버리고 또 이 지구들은 기후불순조건으로 부터 안 전하게 보호된다는 것이다. 도시자체는 기증장치들이 단 세포적인 주거 의 설치 또 불필요해진 것들의 교체를 가 능하겠끔 영구진화상태로 구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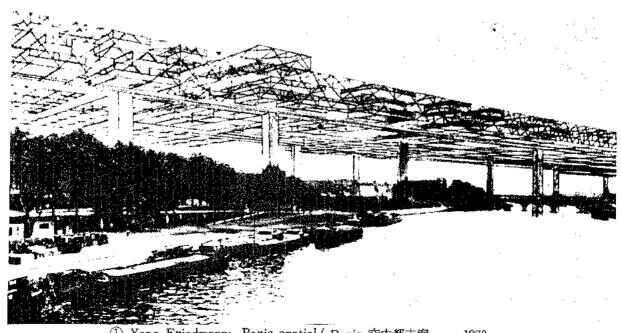
이런 설계상세들의 공상적인 의양에도 불구하고, 역시 주목할만한 근거를 가졌다는 것을 수의하여야 한다. 전통 적인 주공업적방법들에 의한 건축생산을 제약들을 가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어느정도의 세월이 흘러가면, 총합재 료들로 만든 단세포적인 주거건물의 생산으로 전환되리라 고 생각된다. 재료들의 어떤 강도 때문에 이 단세포들의 아주 축소된 제약들안에서 적재 조립하는 수밖에 없을 것 이다. 이런 사실 때문에 이 단세포들의 인공대지로 쓰여 질 기간하부구조의 견해가 사실상 꼭 필요해진다.

이 기간하부구조들은 골조기둥들 만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아니라 동시에 교통동선기능들과 더불어 급배수기능들 로도 쓰여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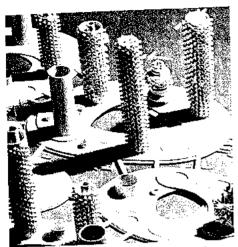
물론 이것이 Archigram으로 하여금 너무 앞서게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Mobil city」또는 気送滑定機関原理 의 방법으로서 사무실들을 이동시키는 설계안의 구상이 다.

Archigram의 「Living-1970」설계안은 기간하부구조에 일체화하는 단세포적주거를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접시닦기기계, 세탁기, 그리고 전기콘로를 설치하는 것과 같이 콤퓨터들에 의하여 조정되는 robots 둘을 배치 하는 주거양식의 미래상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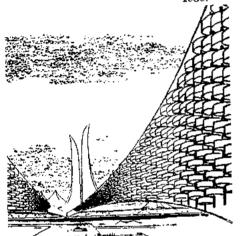
Arohigram의 Utopias는 공학에 의하여 결정된다. 거대한 부대상부구조들을 가지고서 인구증가와 대결하려고 시도하고 또 기술적양상들을 조장하고 있다. 합리적으로 주거와 아파트의 전통적개념을 막고 있다. 「그러나 이런 거대한 구조속에서 살아야 하는 인간이란 존재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또 인간성이 이런 종류의 주거와 동화하도록 각오가 준비되어 있는가, 즉 적응능력이 있는가 파악하는 문제를 조금도 거론하지 않고 있다. 인간이 이런 새로운 세계속에서 살기 위하여 몇백년전부



① Yona Friedmann: Paris-spatial/ Paris 空中都市案



② Kiyonori kikutake: 海洋都市案, 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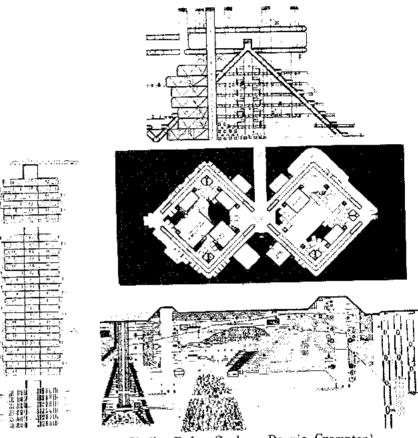
③ kiyonori kikutake: Unabora계획안, 1960.



④ Kenzo Tango: Tokyo 만계획, 1961.

터 실제로 변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인간개념들과 인간의 희망들을 포기할 것인가? 건축이 인간에 봉사한다고 평가할 때, 이런 문제가 확실히 가장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Jürgen Joedicke는 Acrhigram을 바판하고 있다.

Archigram은 파학자들, 사회학자들, 인공두뇌학자들 (Sybernéticiens), 심리학자들, 기술자들, 그리고 무엇 보다도 미래학자들의 의견을 개의하지 않고 미래세계를 창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S Acrhigram(Warren Chalk, Pefer Cock, Dennis Crompton) : Plug-in-City, 1964.

이런 사실때문에, 비판적인 관찰자는 한편으로는 현재의 부족함과 또한편으로는 formatism들에서 상실하고 있는 또는 불완전한 정보들에 근거하고 있는 utopiaco들과 같은 약간 역설적인 이미지와 직면하게 된다. 이런 현재의 부족함 또는 능력부족은 상당한 현실주의적 개념들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완전히 제거된 조건들에 대응하는 신도시가 어디에서 구상되었는가 또 실현되었는가를 알아보려고 의문을 제기할 적에 입증된다. 현재로는 건축영역에 관한 아무런 연구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영역속에서 다한문적인 연구들을 수행 가능케 하는 해결을 발견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로서의 최초의 시도들이 미국의 다른 대학교들과 마찬가지로 Berkeley대학교의 「institute for Environmental design」에서 행하여지고 있다. 만약 당연한 인간환경조건들을 창조하기 위한 연구와 계획을 소홀히하여 나간다면, 2,000년경에는 인간환경조건들이 강한 팽창지구들속에 혼돈상태가 될것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 6. 1958년~1966년 현대건축제 2 기 조립식제조 및 공 업화

## 6 - 1, 개념원리

공업화는 기능공의 숙련을 기계사용과 대체하는 건축기 술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공업화의 본질은 숙련된 기능 공이 아닐지라도 자격은 없지만 단순한 기능훈련을 받은 노동자들이 조작할 수 있는 기계들에 의하여 또는 자동화 된 기계들에 의하여 물건을 더 좋게 생산한다는 것이다.

공업화가 필요해지는 이유들은 많지만, 그 가운데에는 양산문제와 생산가격문제가 있다. 한마디로 숙련기능공들이 줄어들고 부족해지는 반면에 건축수요가 증가한다면, 그때야말로 인력없이 건축생산을 지속시키는 공학기술들과 기계들에 의하여 생산을 수행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건축현장노동조건들이 공장 노동자들보다도 불리한 현실을 지금부터 합리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들 노동자들 다

그리고 공업화건축은 최소한 어느 기간 동안 자유경쟁 력을 가져야 한다. 뚜렷해질 경제적이점은 건축가격을 형 성하는 대부분의 수많은 구성세목들의 결과로 말미암아 비롯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는 변혁이 인력을 감소시 킬 공법들에 유리해진다면, 자연히 값비싼 재료들의 사 용은 근절될 것이다.

이런 공업화는 구미선진국가들의 사례들에서도 2차대전 이후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경험들과 수많은 시행착오들로 말미암아 점철되었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공업화는 1952년과1956년의 제 1 충격과, 1963~1964년의 제 2 충격과, 그리고 1971년~1973년의제 3 충격과가 계속적으로 밀어닥쳤었다. 특히 공업화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설계방법들은 혼란스러울 만큼 번번히 수정하고 실험하였으나 거의 실패하고 말았다. 문제는 설계방법들과 공업화생산공법들 간에 존재하고 있다. 결국 구성재들(composants)에 의한 건축기술의 사용과 개방적시스템들(open system)의 사용의 가능성들에 귀착한 것이 오늘날의 수준인것 같다.

구성재들의 사용은 건축공사현장에서 사전에 가공하던 작업들을 공장으로 전가시켜 버린다. 따라서 구성재들은 공장제조(fabrigué) 된다. 이른바 「fabriqué」와「préfabriqué」는 근본적으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들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던 가공작업이 공장으로 전가된다는 것이 구성재사용의 본질이라면, 이런 본질속에는 바로 시스템의 장점들과 단점들을 판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되어버린다.

공장에서 주문에 의하여 또는 카다로구에 의하여 구성 재들을 생산할 때, 그 생산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수많은 이유들가운데의 하나가 공장에서의 작업이 편리하다는 것과 가후불순들로 말미암은 불편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장에서 일하는 노임조건이

현장보다 좋기 때문에 특히 유럽국가들의 경우에는 매력이 있는 것이다.

단순한 것은 않지만, 공업화건축의 경향들은 구성재들, 개방적시스템과 같은 종전과 다른 협약적법규들이 필요해 진다. 이 때문에 현대는 통일화된 협약문제들을 대두시키 고 있다.

그리고 그 건축과학들이 요구충족개념과 질법이론(質法 理論)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축행위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반을 이용자 또는 입주자가 건축에 기대하는 것을 참작하여 확립할 수 밖에 없다는 전해는 확실히 과거에도 존재하던 사고방법이 있으나, 궁극적일 수 있는「要求들의 목록들」이 출현함과 더불어 1950년대부터 다시 되살아났다. 더

그런데 이 개념이 직업적으로 경험적이고 또 예술가적 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건축실무자들에 의하여 실 제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기까지에는 오랜 세월이 소요 되었다. 누구나 오늘날 대개 건축예술을 과학과 결부시켜 야 하며, 이 사실을 그냥 묵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겨우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견해들의 응용을 교란시키는 또 하나의 사실은 19 60년대부터 제기된 성능(performance)이라 용어로 말미 암은 것이었다. 이용자가 건축에 대하여 주문하는 것이바로 그 전축이 그 전체속에서 제공하여야 할 실제적인質들(성능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오랜 세월이 다시 소요되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건축인이 그자신이 공장에 주문하는 어떤 구성재들에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구성재들의 실제적인 質들(성능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要求(requirement)와 성능 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두가지 차원들의 요구들과 성능들이 존재하는데, 그 하나는 일반적으로 이용자의 요구들 또는 인간적요구들이라고 말하는 건축의 종합적차원과 또하나는 구성재들이 성능들을 말하는 구성재들의 차원이 존재한다. 이것들은 혼돈되기 쉬운데, 그 문제점은 한 건물의 종합적성능과 그 부분들 또는 성능들의 부분적성능들 간의 관계이다.

이 양자들은 모두 다 건축학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는 과학들 전부의 관용어법들에 의하여 십사되고 또 판정되고 있다. 그 관정방법들은 과학적관정, 공학적 또는 경 험적관정, 실험적관정, 그리고 관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기관들의 인가형식의 판정으로 분류되다. 유혹은 항 상 과학들의 관용어법들을 처리법들(recettes)로 치환시 키는데 존재한다. 어떻게 처방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제 시하는 解決例들인 것이다. 한가지 예로서, 건물에 이러 한 기하학적 형태들과, 그 수단들에 이러한 성능들을 부 여하므로서 이용자의 요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가지 예로서, 안정성, 열…과 같은 영역들에서의 설 계계산규정들이다. 문제의 핵심은 응용하기 간편하나 절 대로 의무적이 아닌 인위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과학에 있는 것이다.

논리적인 건축설계의 규범적설계는 설계제 1 단계에서 총람개요(synopsis)를 작성하여 이용자의 요구들을 지시하는 프로그람에서 출발하여, 프로그람에 의거하여 건물에는 기하학적 특성들을, 또 구성재들에는 설계적특성들(성능들)을 제공하므로서, 프로그람에 해답을 내리는 것이다. 이용자의 요구들 전부와 건축에 관한 전체성능은 한가지 구조종목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종목들의 필요한 질들에 의하여 충족될 수 있고, 또 구성재들에 의하여 충족되다. 이 설계 제 1 단계는 분류적으로 建築家의 직능에 속한다.

그 다음 설계제 2 단계는 구성재들의 설계단계가 된다. 여기에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 개혁들의 모험을 무릅쓰게 된다. 여기에서도 物理的質들 또는 성능들을 요구하는 것 과 같은 요구들에서 출발하여, 이에 관하여 형상(상세단 면)과 재료의 선택을 하므로서 해답을 내린다.

이 설계 제 2 단계도 역시 주문과 해답이란 한쌍의 문답 형식으로 행하여지며, 여기에서는 주문(의퇴)은 구성재 들의 성능들이며, 대답은 이 구성재들의 성능들의 계획 설계(projet)가 된다. 여기에서는주문 된 성능들을 발휘 하는 구성재들을 작도하는 많은 수다들이 존재한다.

이용자의 요구들-건축의 총람개요 구성재들의 성능들, 구성재들의 성능들의 요구-구성재들의 계획설계, 이런 두가지 설계차원들, 두가지 문답형식의 차원들의 실존은 여태껏 확실히 연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두가지 차원들의 실존은 대단히 중요하다. 구성재들의 설계업무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조립식제조생산업자들이 관장하여야 하는 사항이 되어 가고, 그결과로 이 구성재들이 어떤 특정한 설계계획과 상관없이고안되어 버릴수록 그 실존의 중요도가 커진다.

## 6 - 2. 일반적 특성들

유럽국가들의 공업화는 프랑스, 이태리, 서독, 북구국가들, 베르기, 영국 그리고 쏘련에서 제 2 차세계대전 이후 발전되었으며, 특히 프랑스와 쏘련은 그 상황 조건들은 전혀 달랐지만, 공업화란 관점에서는 다른 국가들보다도 앞서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공법들이 응용되려면 원칙적으로 1960 년대말까지만 해도 이른바 기술인가(agrément techrique)를 받아야 했다. 이제부터 프랑스와 조립식제조 및 공업화를 논하기로 한다. 1960년대말 이후부터 기술적 외견 (avis technique)로 개정되었던, 이 인가제도는 1945년 ~1947년에는 건설부건설연구부에 의하여 운용되다가, 1948년이후에는 줄곧 새로운 비전통적공법들과 건축재료들에 관한 인가권한이 건축과학기술연구소(C. S. T. B.)에 일임되었다. 1964년말 현재 그 인가건수는 197건에 이르고 있었다.

다양한 인가기술들, 그 공업화공법들 전체를 개관하여 보면, 이것들의 다양한 건축방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향들을 엿볼 수 있게 된다. 공업화의 발전이 극도 로 다른 노선들을 기쳐서 발생되고 있다고 하지만, 공업화 발전도에 따라서 두가지 국단적인 방향들과 그 양자 사이에 속하는 중간공업화방식으로 총괄되어지다.

① 그 하나와 극(pôle)이 高度工業化工法들이다. 이런 부류에 속하는 공법들은 고정식공장생산의 비중이 높으며, 공장에서 조립식제조되는 주요구조물들속에 부대구 조물들을 원칙적으로 최대한도로 열체화시켜버리기 때문에, 공사현장작업은 단순한 조립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수송문제, 기중장치들, 그리고 연속적인 조립작업에 적합한 건물배치계획이 문제되고, 또 고도공업화공법들은 대량의 연속적인 전축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가 없다. Camus 공법, Coignet 공법, 그리고 Balency-et-Schuhl 공법이 그 예들이다; ;;;

② 또하나의 국이 개량형전통적공법들이다. 고정식공 장 또는 현장이동식공장에서 생산되는 구성부재들 (eéléments)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전통적인 재래건축 시장 의 발주형식에 적합한 질들을 취하는 공법들이지만, 그 생산성은 재래공법들보다도 매우 높다. 여러가지 금속거 푸집사용공법들이 그 예들이다;

③ 이 두가지 극들사이에 여러가지 쀞들을 취하고 있는 중간광업화공법들이 존재한다. 이런 작종 형돌의 공법들은 부분적인 공업화형의 조립식제조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그 특징은 이런 형들에 속하는 여러 공법들 간의차이들이 각공벌의 발전에 의하여 점차 해소시키는데 충분한 구성부재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현장이동식공장의 조립식제조(Prefabrication)로서 가능하다. 그 예들로서는 Baret공법, Costamagna공법, Fiorio공법, Tracoba공법, Sectra공법, 그리고 조립식제조경량의 벽면들을 연거할 수 있다.

프랑스의 주택건축공업화에 있어서, Camilles Bonnome 와 Louis Léonard는 주도적역활을 하였으며, 그들은 이에 관한 UN보고서와 건축사전의 공업화(Lindustrialisation du Bâtiment, Aristide Quiller 출판사간행 건축사전 제 1 장, 1965)를 공동집필하였다.

Louis Léonard에 의거하면, 『완전히 그 자신의 역할을 의식하였을 때 각자는 자부심을 가진 협력으로서 아직할 일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는 학문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Panorama des Procédés de Préfabrication et d'industrialisation, Contruction잡지, 1965. 6, 부록)』고 아직도 요원한 공업화의 전도를 결론 짓고 있다.

『공업화는 떠들어 댈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1960년 대전반기에 선언되었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전문가들에 의하여 고려되었던 여러가지 시스템들에 관하여 결론지어질 것들에 추가하려는 보충적인 다짐이 아니고 공업화의 국들에서 分類와 관계되는 몇가지 설명들을 다시 거론하려고 한다.

첫째로 高度工業化工法을(frocédés éminement industrialisés)을 큰 비중을 두고 논하여야 한다.

비록 고도공업화공법들은 그 수가 적지만, 이것들이역시 1960년대 전반기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작업을 고정식공장에서 행하고 또 최대의 부대구조물들을 공업화제조속에서 일체화시키고 있는 것이바로 이 고토공업화공법들이다.

또한 어떤 다른 방법보다도 좋게 합리적인 작업조직과 정밀작업의 수준은 최대한도로 높이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도공업화공법들이지만, 여것들이 아직도 너무나 꿈과 같은 균질적이고 연속적인 건축경제 시장과 모순된다면, 불원간 도움을 필요가 있는 구체적이고 또 기본적인 양식수단처럼 이것들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이 공법들은 한가지 기법 또는 기술의 공법들이 아니며, 이것들은 1965년 현재 주로 완전충전콩크리트 기본체에 바탕은 두고 있는 Balency-et-Schuhl공법」Coignet공법, 그리고 Camus 공법과 같은 「충량대형부재들과 판재들(grandes éléments et Panneaux lourds)」과 적당하고 또 공업화된 충전구성재들에 의하여(경량 또는 기타조립식제조된 외벽면들, 공업화된 간벽들…등) 보완되어서한 전체적시스템을 구성할 적에는 「강철내력구조를(structures porteurs en metal)」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공법들이 구별되어지는 개념 또는 설계의 전체적성격에 의한 것이고, 또 다른 기법 또는 기술이라고 할 정도의 기법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 전체적성격은 좀더 상세하게 工業化度量 기록하고 있는데; 공업화도는 측정될 수 있는 비율에 의하여 표시된 다. 가장 공업화된 공업들의 경우에는, 이공업화도의 비 원의 수치가「0」이 되도록 목적하여야 하는데, 이 수치 는 다음과 같은 수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 공사현장에서의 지출비용 주택가격

노임의 재료비와 총계 공사현장에서의 재료비와 노임의 합계 주 택 가 격

둘째로 고도공업화공법들의 공업화도를 여태껏 뒤쫓아가지 못하였다고 하지만, 이와 일치하는 관념이 역시 中間工業化工法들(procédés intermédiaires)에도 적용된다.

주로 공사현장공장에 활용되는, 중간공업화공법들은 실 제로는고도공업화공법들과는 대단히 대조적인 조립식제조 의 통합절차와 일반적인 외양에 의한 것이다.

중간공업화공법들 가운데 어떤것들은 역시 대형판재들로 분활되어진 완전충전충량콩크리트부재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 어떤 다른 것들은 空間벽돌삽입에 의한 경량화를 추구하고 있다.

기본적인 차이는 특히 보다 더 간단하고 또 반복사요도가 낮은 조립식계조 기재들의 특성들에서 비롯되지만, 그러나 만약 충분히 통합되고 또 규모가 높은 대량생산의목 표를 단성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고정식공장의 건설이 완전히 타당해질 것이며 또 보다 더 완전하고, 잘 조작되고, 그리고 보다 더 건고한 기재들을 생각하게끔 유도함 것이다.

판로들의 불확실성, 불충분성고 택도 없는 반복과 연속성은 처음부터 막대한 초과비용없이 실현되어질 수 없는 해결책을 멀리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는 문제가 공법을 간의 선택문제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막련된 조립식제조프로그람에서 유래하기 이전에 장비되어진 감가상각들에 관한 예상평가문제와 더불어 투자할 수 있다고 양해하는 재원들의 사전견적문제이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다시한번 강조되어야 한다.

여기에 소개된 것만으로 국한하여 작성된 분류는 그러므로 편협적이고 또 결론적으로 알 수 없을 것이다;이 분류는 어떤 관계된 시기의 상황의 반영인 것이며 또 공법들의 고안자들과 발기자들의 발전과 환력과 더불어 특히 시장들의 전망과 그 형태 그리고 그 존속과 관련되어 진화될 수 있는 것이다.

몇가지 보충적인 일반론들을 끝내기 이전에 잠시 두가지 特殊性들을 축 본원적인 공장에 관한 중요성과 그에 붓지않은 본원적인 부대구조물의 일체화에 관한 중요성이 환기되어야 할 것 같다:

① 첫째로 강조되어칠 공업화와 직면하는 본원적인 공장에 관한 중요성(importance primordial de l'usine)이 될 것이다.

공사현장에서는 도저히 조직화된, 품질관리된, 그리고 연속적인 조립식제조와 부합하는 생산을 충족시키는 제도 를 기대할 수 없는 규칙적운동을 공장만이 일관된 건축시 강속에서 존속시킬 수 있다.

공장만이 직업의 체계적인 준비, 정밀한 시공을 가능케할 수 있고 또 필연적인 모든 발전요인들을 집중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장만이 노동력의 합리적인 활용을 가능케하고, 생산성항상의 정밀한 요인들을 구성하는 안전성과 연속성을 가진 정연한 채용조건들을 가능케 한다.

이것이 공사현장이동공장을 위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연구하고, 가능한 만큼 공장개발의 일반적조건들을 실현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② 둘째로 부대구조불의 일체화에 관한 적지않은 본원 적인 중요성(importance no moins promordiale de L'intégration du second oeuvre)이 주목될 것이다.

부대구조물의 일체화시공은 실제로 공업화도의 변화에 대단히 커다란 영향을 꺼칠 수 있다.

조립식제조된 주요부재들속의 부대구조물의 완전한 일 체화는, 과거의 건축체계 방법들을 가지고 연구되었던 것 과는 아무런 상계없이, 전체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부대구조물들을 고려한 최종마감된 집합체속에다가 위치 시키므로서 차례차례로 시공될 수 있도록 구상된, 구성요 소가 되는 제작상태로 구조물들의 합리적인 분류절차 를 채용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확실히, 이렇게 구상된 부대구조물은 확고한 전통들을 뒤집어버리는 새로운 간섭조건들을 초대하고, 사공단계들 을 분활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것들중의 어떤 것들은 다 른 직종들로 바꾸어 버리게 한다. 대단히 크게 증가한 건 축수요들과 대결하기 위하여 목표삼이야 할 필요가 있는 시설들의 중요성과 더욱 두드러진 생산량의 부단한 증가 가 어느 것이나 공통구조물속에서 부과되는 몫을 확보시 키고 있는 최대의 효과와 특히 최대의 생산성에 관한 연 구를 충분히 정당화시켜 주고 있다.

부대구조물의 지위는 이렇게 이것들이 처음부터 최종마 감되어진 집합체(ensemble)의 제작에 협력하기 위하여 삽입되어지는 주요구조물의 영원한 보조자들이 되어버린 다.

결국, 공업화의 활력과 비배건축인들의 활력이 되어질 것은 바로 이런 새로운 連帶性(solidarité), 共有性(communauté)인 것이다.



## ○여름철의 기분

중앙관상대 통보관 김 동 외

식물 가운데에는 햇볕을 따라서 성장을 하며, 또 햇볕을 좋아하는 '향일성''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곳만 찾아 다니며 햇볕을 싫어하는 '배광성'도 있어 돌밑에서 싹이 튼 연약한 새싹이라도 이것이 향일성의 식물이라면 태산같은 바위도 무겁다하지않고 햇볕을 찾아 부비적거리며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가하면 햇볕을 싫어하는 배광성의 식물은 습기찬 음달에서만 부성하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읍니다. 사람도 위와 닮은데가 있어 때로는 향일성의 기분이 될때가 있고, 배광성의 기분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즈음은 시기적으로 배광성이 되기가 쉬운 계절입니다. 여름철 기온이 30℃를 오르내리는데, 밖에서 땀을 흘리면서 작업하는 분들은 누구보다도 배광성의 기분에 젖어있어서, 들놀이, 등산, 또는 낚시을 하면서 원색차림을하고 다니는 분들을 보면 공연히 화가나고, 열등의식과 자기직업에 대한 환멸까지도 느끼게 되는 수가 있는데, 이와같은 배광성의 기분은 곧 사고와도 직결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자기가 하는일에 보람을 느끼며 한가지 생각에만 집념하지 말고 폭넓은 기분전환법을 자기나름대로 개발해서 배광성의 기분을 몰아내도록 유의해야 겠읍니다.

## ○ 6월의 기상전망

지난 5월은 동서로 길게 형성된 고압대가 우리나라 부근에서 오랫동안 제자라 걸음을 해서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온도 높아 더운날씨를 보였옵니다. 6월에는 대륙에서 발생하는 이동성 고기압과 기압골이 상순과 중순에 걸쳐 주기적으로 우리나라를 통과하겠으며, 중순발에는 동지나해상에 있는 장마전선이 남해안 부근까지 한때 북상하겠읍니다. 따라서 상순과 중순은 대체로 주기적인 날씨변화가 되겠고, 중순말부터하순전반에 걸쳐 수일간 예년보다 빨리 장마가 시작되겠으나, 하순 후반에는 일시 개이겠고, 7월초 부터다시 시작되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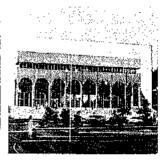
## ○요소별예보 (6월)

=	구분	남 씨		र्	<i>갓 수</i>	· 량	
순별				L	• '		
상 선	् स	맑은날이 많겠으나 기압뀰은 후반에 학	예년보다 돌기	예년보다 높겠다.	예년보다 다소 적겠다.		
	124	┃ 통과 하겠으며 이때는 비가 오겠다.			., 6.2   122   7,2   1.		
		날씨는 주기적으로 변하겠으며 순초와 순후반에					
중 순		순 후반에 두차례 비를 동반한 기압귤이 통 예년		년과 같겠다.		예년보다 많겠다.	
		과하겠다.					
하	定	전반은 비가 자주오겠으나 후반은 맑은	그날	소 노케먼	레네코 750.		
		도 있겠다.		예년보다 다소 높겠다.		예년과 같음.	

# 会員作品









**亞考島全國部別國也委員別是** 







## 알

## 림

協会大賞 施賞論文 및 会員作品 選定方法 改定

本協協会大賞施賞選定은 每年定期総会를 前後하여 公募로서 그 対象을 選定하였으나, 78年度부터는 会誌"建築士"에 掲載 収録되 는 作品 및 論文中에서 選定하여 施賞케되 었음을 全国会員께 알리며 많은 参与를 바 립니다. (本記事內容은 本会会員 에 限함)

# 영 동 L 씨댁

설계:黄一仁 전원사 전축연구소

건물위치: 강남구 영동

건축면적: 본체 1층, 175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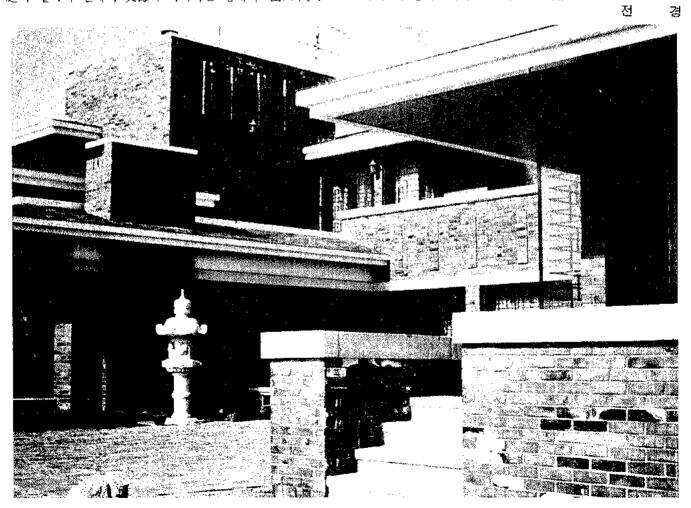
 $89 \, m^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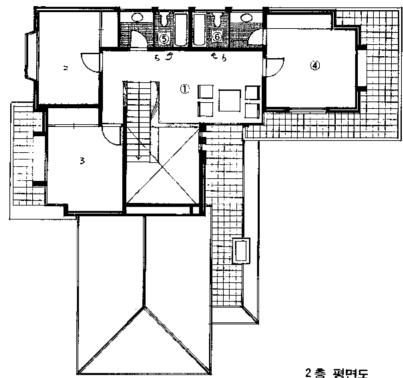
별체 1층, 59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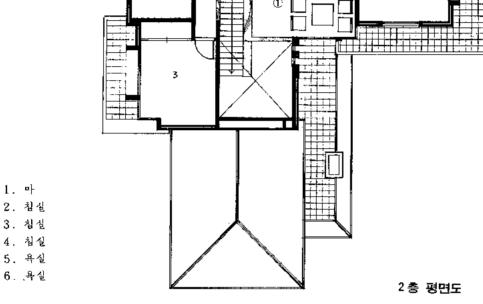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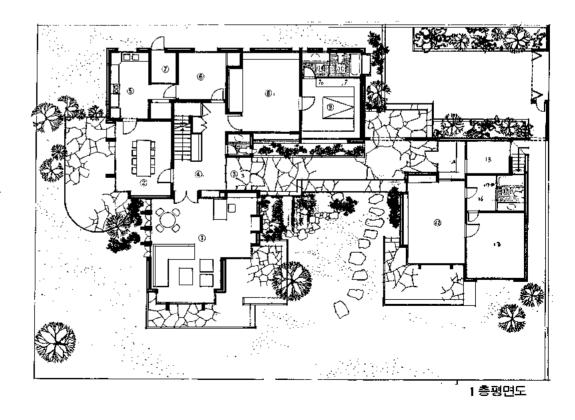
## 설계개요:

서울 변두리 비교적 넓은 대지이므로 정원을 위치 및 용도에 따라 몇부분으로 나누었다. 大門部分에 자동차 등이 出入하는 外庭이 있고 中門같은 아취를 지나면 內 庭이 열리며 본체와 父母가 거처하는 별체의 出入門이 있다. 後面에는 食事테라스를 겸하는 後庭을 따로 무었다. 主人 손님이 많고 父母를 모시고 사는 한 주거방법으로 제시한 것으로써 거실 및 食堂은 독립된 방으로하여 응접 및 서재를 겸하도록 하였다.









3. 현관 4. 홀 5. 주방 6. 가정부실 7. 세탁실 8. 안방 9. 침실 10. 세면실 11. 욕실 12. 겨실 13. 침실 14. 현관 15. 침설 16. 탈의실 17. 욕실

1. 거질 2. 식당

# K 씨 댁

설계:강순일(필건축설계사무소)

건물위치 : 관악구 방배동

건축면적 : 292m²

지층 3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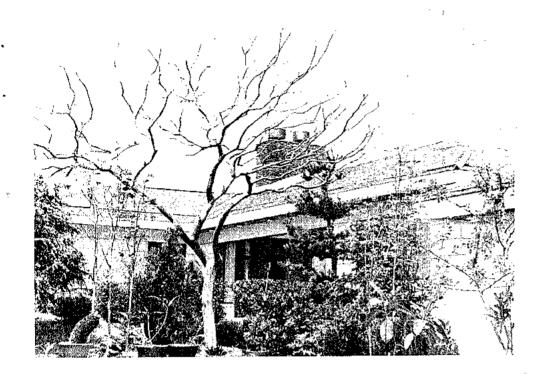
1층 292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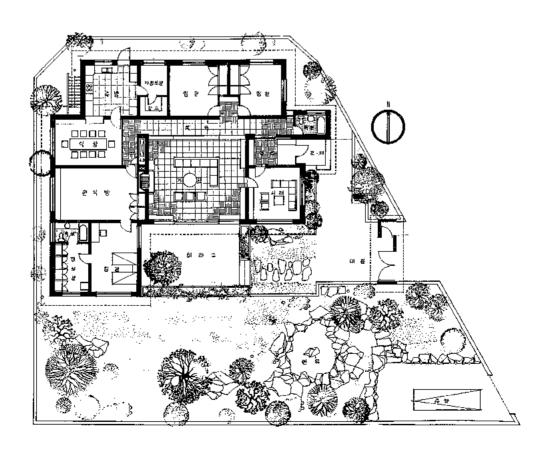
구 조:조적조



전 경







1층평면도

# 수도여자사범대학 대강당

설 계:金 忠 得 구리사 전축설계사무소

위 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군자동

건축면적: 총연면적 6,686. ㎡

지하층 1,903 m²

1 🔅 2,399. m²

2 ♦ 1,318.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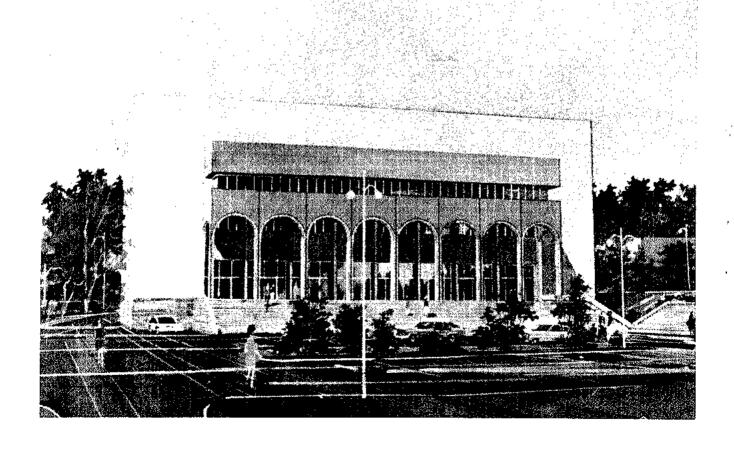
3 <del>\$</del> 1,065. m²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지붕



설계개요: 대학부지 일각에 지형을 마추어 평면계획되었고 강당내부 관람석은 부채 펼형으로 대학 전교생 3,000여명이 일시에 입장토록 하였으며 대강당은 연극오페라 대연주회를 공연할수 있게 완전극장식이고 지하실 소강당에 300여명을 수용하여 강연회를 가질수있음, 일부 전시장은 미술전시회장임.

전 경



지층

1. 시청작실

2. 호-2

3. 창고

4. 창고

5. 창고

1 巻

1. 관람석

2. 휴계실

3. 무대

4. 오케스트라피트

5. 화장실(女)

6. 화장실(男)

2 총

1. 관람석

2. 휴계실

3. 화장실(男)

4. 화장실(女)

3 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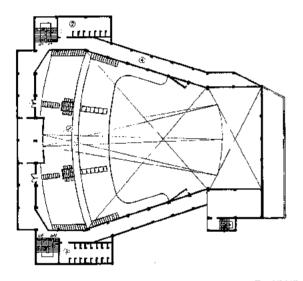
1. 영사실

2. 화장실(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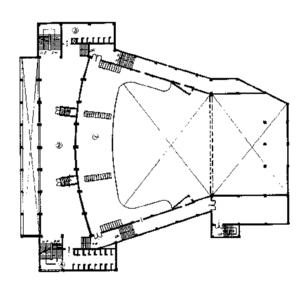
3. 화장실(女)

4. 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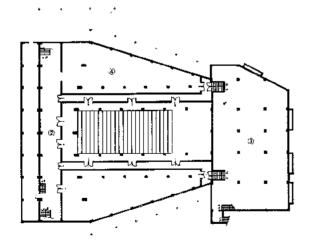
5、 景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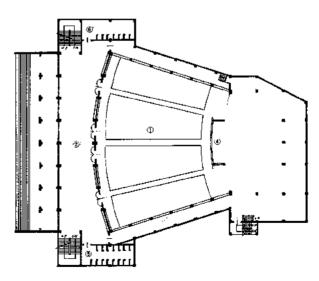
3 총평면도



2 층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1층평면도

# 청량리 제일 안식일 교회

설 계:성 하 철 명성건축 소재 지:서울 청량리동 232-1호

대지면적: 1.183M²

건물면적 : 지하층 : 77 ㎡

1 st : 32㎡ 2 N D : 332㎡ 音 2 春 : 64㎡

옥 답:15㎡ 연면적:820㎡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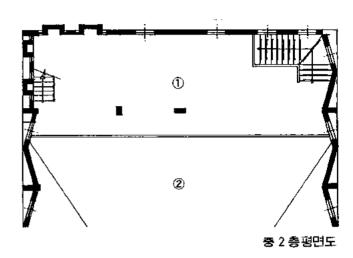


설계개요: 1, 벽체의 요철로 일광의 직사를 피하여 신성하고 정숙한 교회분위기와 방음 효과를 살렸음.

> 2.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건물 규모를 갖춘 교회다 소규모 교회지만 기 농상으로 동시 집회실과 필요한 사무실을 필요로 설계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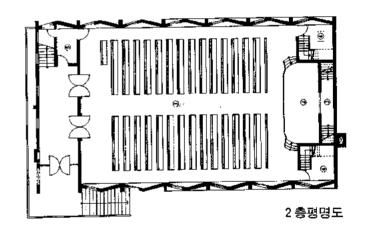
전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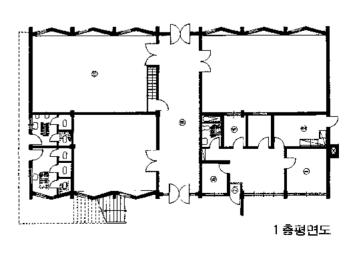


자모실
 예배실

1, 예배실 2. 강 난 3. 침례실 4. 기도실 5. 목사실 6. 훌



1. 철 실 2. 식당 및 3. 거 실 4. 청 실 5. 침 실 6. 침 현 7. 현 8. 복 9. 유치부 10. 청년부



# 한국특수공업사옥

설 계:서 충 석 (이화건축설계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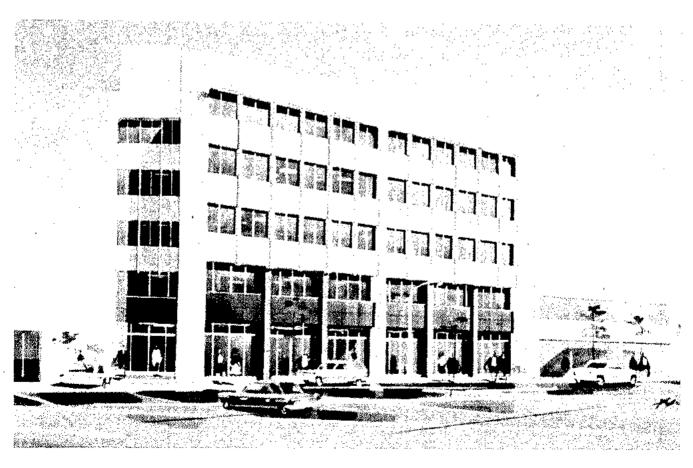
건물위치 : 중구울지로 4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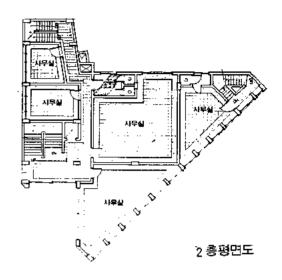
건축면적 : 257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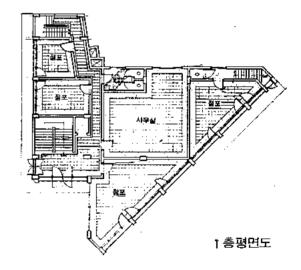
1층 195m² 2층 212m² 3~5층 221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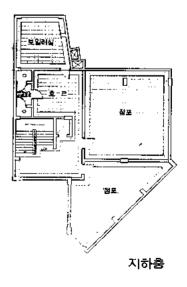


투 시 도









# 한국전기 안전공사 본사사옥

설 계:김 학 석 (서울종합건축) 건물위치: 서울특별시마포구 친수동

대지면적 : 481. m²

건물면적: 지층: 320.m²

1층:317.m²

2 층 : 317. ㎡

3 층 : 317, m²

4 층: 317.m²

옥탑:65. m²

연 : 1,65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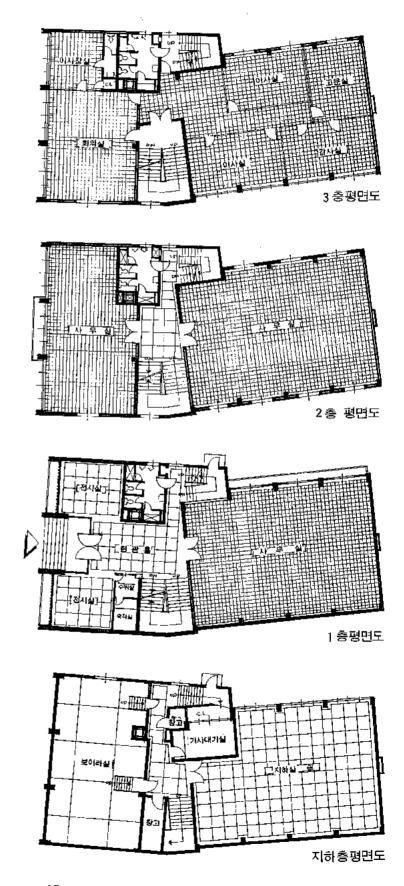
조: 철근 콘크리트조



방형이 아닌 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 하였으며 생난방 시설을 완비하였다. 계단식과 복도 등을 이용하여 사무실은 내부에 기둥이 없

설계개요: 대지는 우축과 후면이 3.0M정도 높은데다 정 이 정방형으로 계획함으로써 사용상 효율성을 높였으며





# 시흥군청사

설계:朴成圭 합성건축기술공사

건물위치: 안양시 안양동

건축면적: 1층 1174. m²

2 층 1174. m²

3 층 11**34**. ㎡

4 층 1134. m²

옥탑 81. m²

계 4698. m²

구 조: R.C조및 철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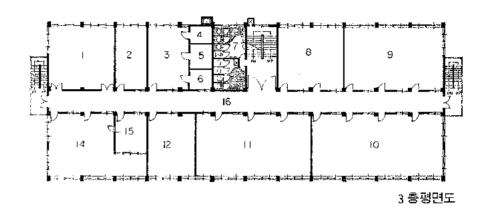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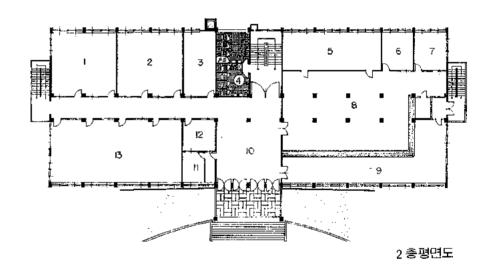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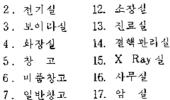
- 1. 상황설
- 2. 체육실
- 3. 공보실
- 4. 암 실
- 5. 차대실
- 6. 방송실
- 7. 화장실
- 8. 작산국
- 9. 재무과
- 10. 내무과
- 11. 부군수실(일반사무실)
- 12. 부군수실
- 14. 군수실
- 15. 부속실
- 16. 훈
- 1. 선거관리위원
- 2. 지적협회출장소
- 3. 발간실
- 4. 화장실
- 5. 지적창고
- 6. 부속실
- 7. 숙직실
- 8. 민원봉사실
- 9. 대기실
- 10. 臺
- 11. 교환실

1. 샤워질

- 12. 숙직실
- 13. 농촌지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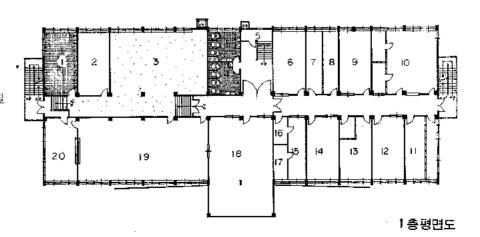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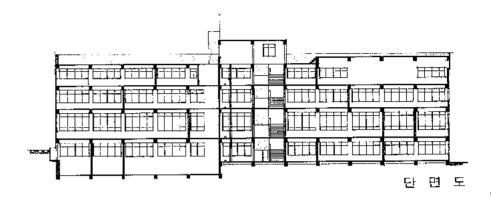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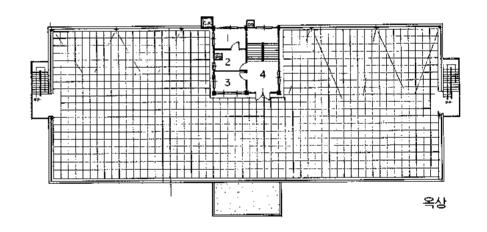
11. 접사실

8. 방역창고 18. 대의소

9. 가족계획실 19. 식 당 10. 사무질 20. 주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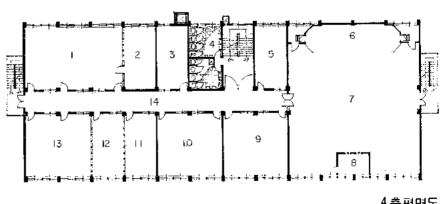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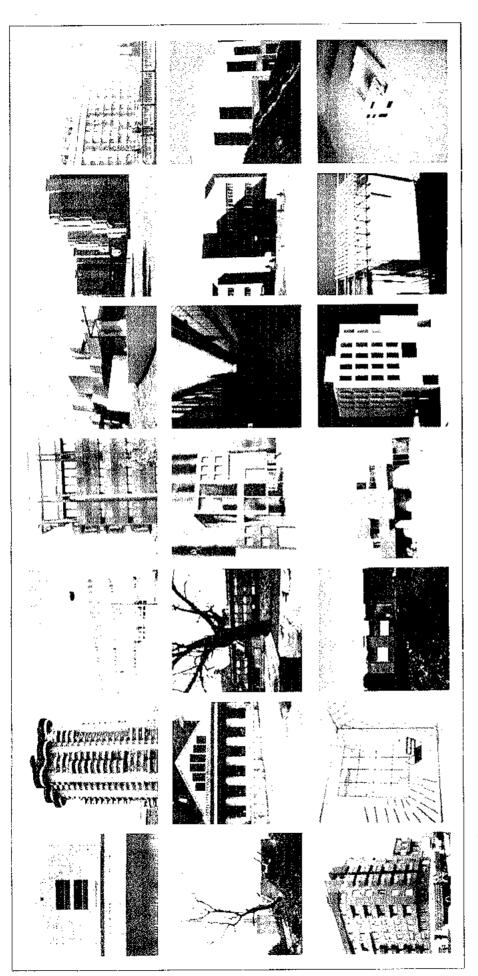


1. 물탱크실

- 2. 통신기계창고
- 3. 테레타이프실
- 4. 계단실
- 1. 건설과
- 2. 전설과(2)
- 3. 서 고
- 4, 화장실
- 5. 서 고(2)
- 6. 연 단
- 7. 회의실
- 8. 영사실
- 9. 농산파
- 10. 산림과
- 11. 산림조합
- 12. 산팀조합(2)
- 13. 변방위과
- 14. 홀



4 총평면도



푸로필: 마드리트의 7 티匠과 7+7의 젊은 建築家들

글-알베르트 · 캄보·비앤자

# 7 Masters of Madrid and 7+7 Young Architects Text by Alberto Campo Baeza

# ■PROFILE---7 MASTERS OF MADRID AND 7+7 YOUNG ARCHITECTS/ホセ・アントエオ・コラレス+ラモン・バスケス・モ・ヘン

# José Antonio Corrales & Ramon Vazquez Molez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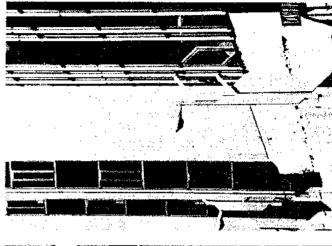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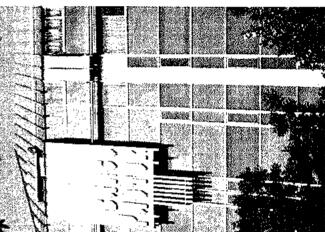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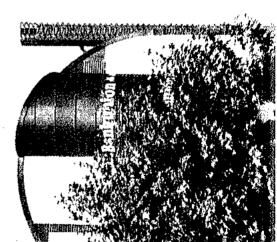
∼ⓒ 방크니온의 오피스 · BL · 마드리트 ② 라몬·바스케·모레슨 수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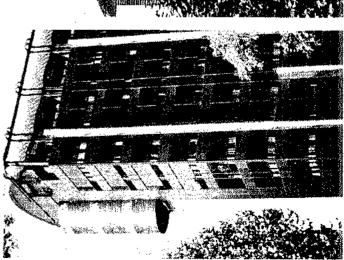
②~⑩ 바스도异銀行BL,叶드리트,協同:배라루도 • 사루 바도루 • 모레슨, 라파엘 • 오라루기야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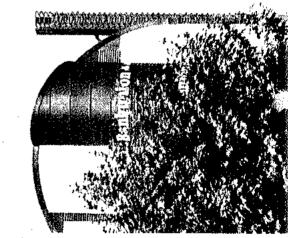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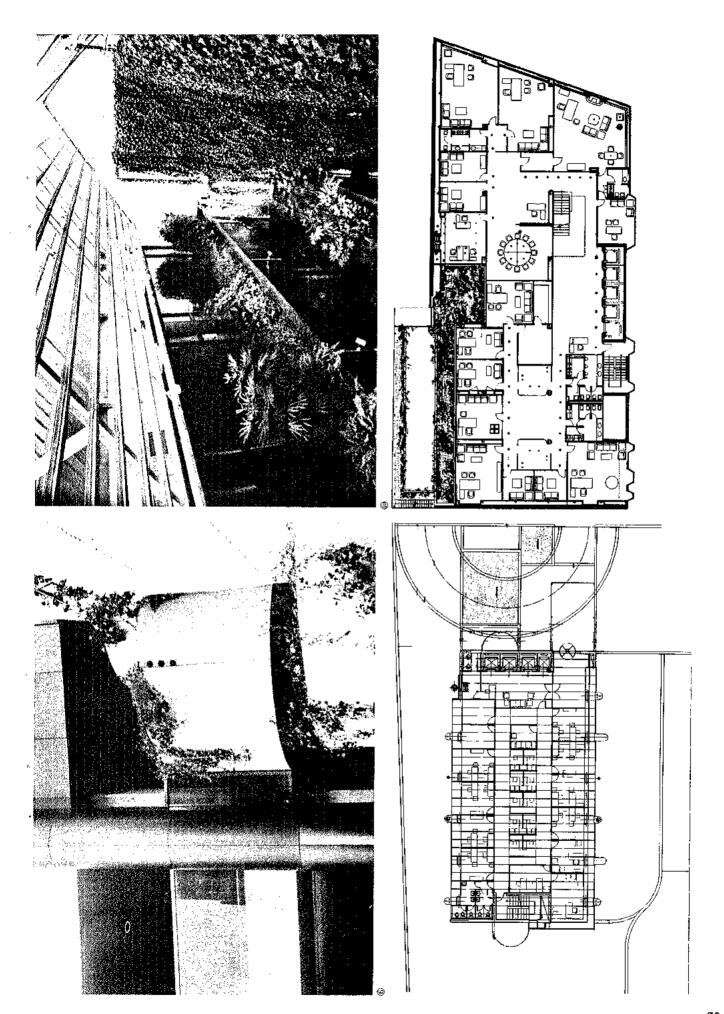








Provider of that which is well done. The inexplicable continuity in perfect collaboration (this group is unique in Madrid). Head and heart. The cicada and the ant. "Brussels 58".



## ■PROFILE—7 MASTERS OF MADRID AND 7+7 YOUNG ARCHITECTS/ 하이엘ㆍ가루바하루ᆞ웨배루

### Javier Carvajal Ferrer

説明이 必要의는 結果,完鹽費,抑制되여진 結構. 鐵御함, 당치 홈르는 꽃, 말할 수 없는 影響力. 潜在か立 気や 合理主義「中年64年博」

tionable influence. The inexplicable result. The perfection. The suppressed poetry. The latent

rationalism. "New York 64".

The Delicacy. The overflowing beauty. The unq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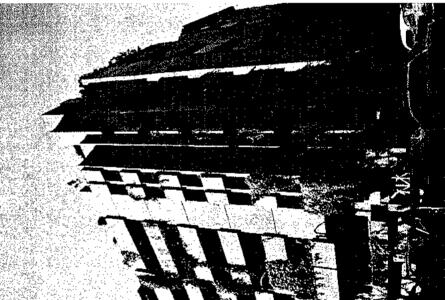
⑤ 소보사구하스의 가루바하字城, 마드리트 ④ 최현트銀行BL, 마드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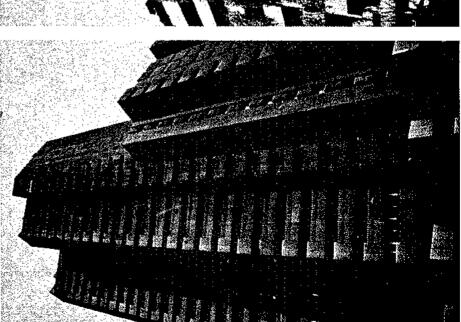
 (3)—Oficinas del Banco de Fomento. Madrid. ⑤—Casa Cavajal en Somosaguas, Madrió. G→Casa Llado en San Roque. Cadiz. ☼-Casa Biddle Duke en Sotogrande. S—Casa Baselga en Sotugran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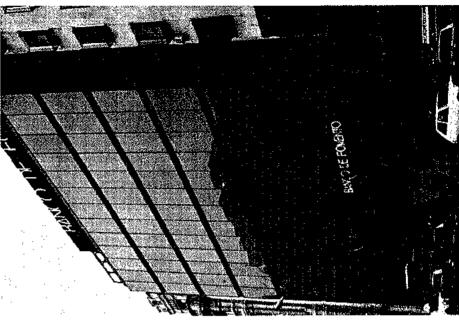
②→ Torre de Valencia. Madrid. ③ → Apartamentos en Madrid. ①-Javier Carvajal Ferr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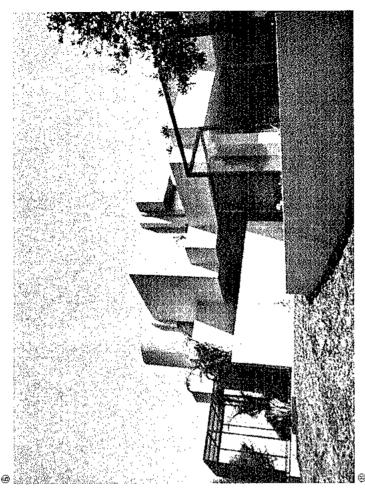
① 아비엘·가루바하루·웨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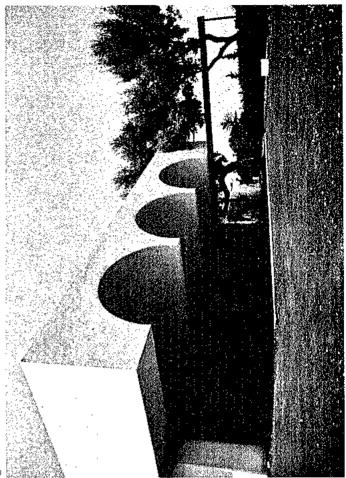
② 바렌사아외塔. 마드리트. ③ 마드리토의 APT ⑥ 선・로케의 자-도鄰. 가디스州 ① 소도크 탄에의 빅토리·도부개財 ⑧ 소도크란배의 마세루하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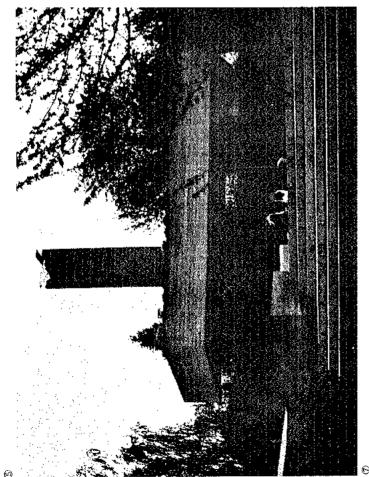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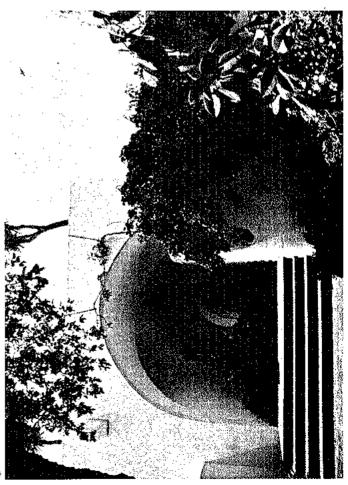












## Antonio Fernandez Alba

① 안토너오, 웨루난데스, 아루바

② 비루비오銀行BL, 마드리트

③文化의 家. 비도리아

④ 山莊 세고비아州리아사

⑤ 学生用APT. 小斗吐沙

⑥ 集合住宅・비토司の

② 電話会社의 縣. 소-耳の州半年ユ・川・久스마

帝皇郎七 探求、固有의 表現主義,推測可能한 樣式, 曖昧者. 形態年 古叫 単中寛. 中分보다 セ苯 教育.

③ 仕・立4移道法、小むむユ

(I) ~ Antonio Fernandez Alba.

②-Oficinas para el Bunco de Bilbao, Madrid. 

①-Albergue de montaña. Ritza. Segov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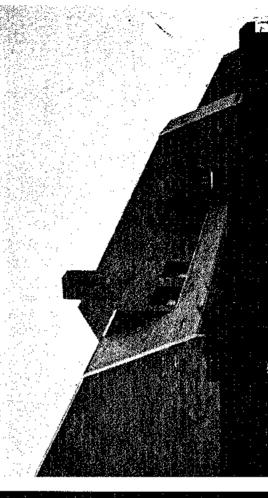
The Ambiguity. The great formal quality, The c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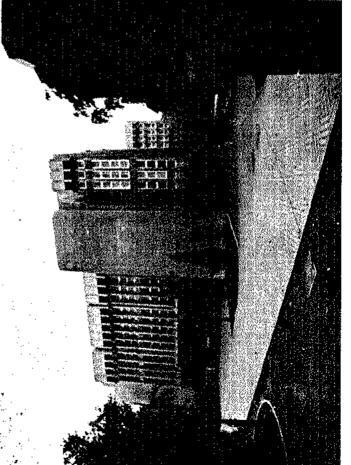
Still to discover. The personal expressionism. The tradiction as a doctrine. The education above 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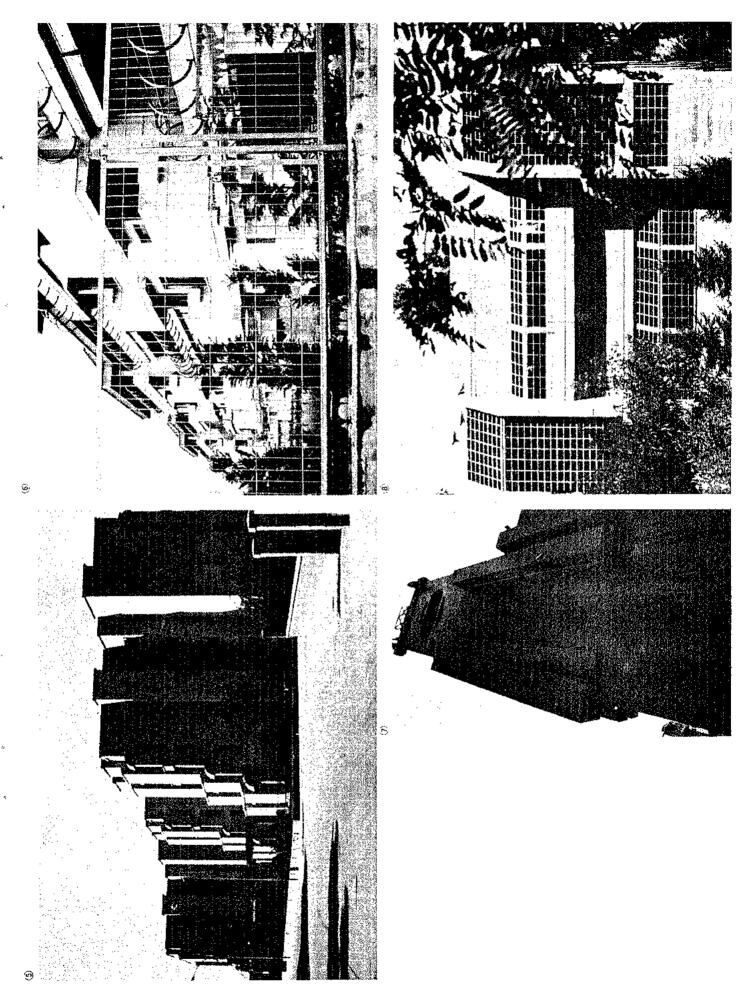
unconditional followers. A guessable style.

⑤→Residencia de estudiantes, Salamanea. 

Ø+Torre para Telefónica. Burgo de Osma. Soria. ®→Carmelo de Sun José, Salamanca.







라파엘·모비오·빠제스

### Rafael Moneo Valles

鮮明堂,最年少年 號中,利和省 午 常士 幻想的 計劃,which will not build. The overwhelming erudition. 圧倒的兒 梅識,早內是 異論的 背景,国際的兒 関連 文化의 体現著 希望,

The greatest thest theoretical background. The international relation. The walking culture. The hope.

The Relief. The youngest member. Fantastic plans

টা টাফাপা ি দ্বার কিলামানি

② 去来所 殺計 競技案 마드리트. ③ 암스빌담, 市庁舎 設計 競技案 ④ 고매스니아보版, 마트리트州, 라・모라레-하

④ — Casa Gomez-Acebo. La Moraleja. Mudrid. ③—Concurso Ayuntamiento, Amsterdam. ②—Concurso de la Bolsa. Madrid.

①—Rufael Moneo Val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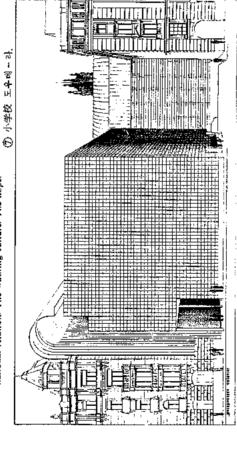
⑤—Fubrica Diestre, Zaragoz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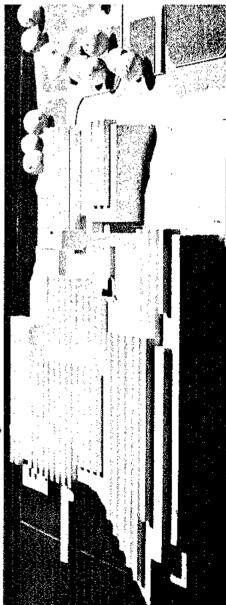
⑤ 더에스도레工場,사라고-사

協同:叶平川生,午是小一か・の・스파の汁 ⑥ 울매아. BL, 산·세바스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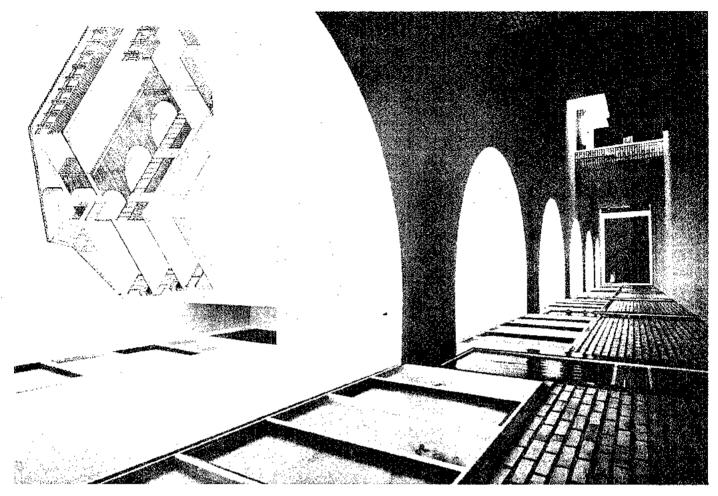
(7)—Escuelas Primarias. Tude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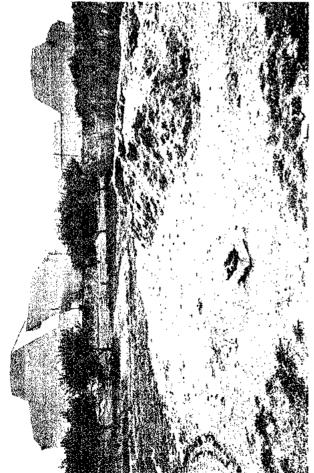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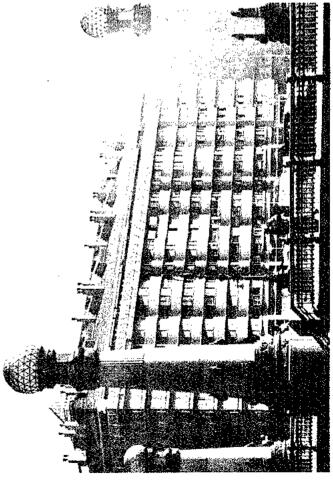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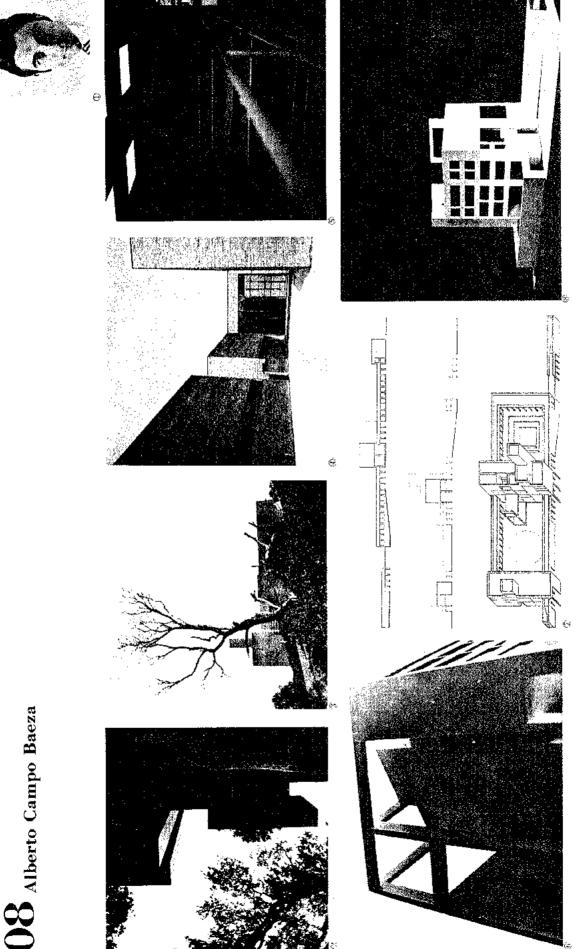






## ■PROFILE --7 MASTERS OF MADRID AND 7+7 YOUNG ARCHITECTS/아루벡 목트・캠 보・바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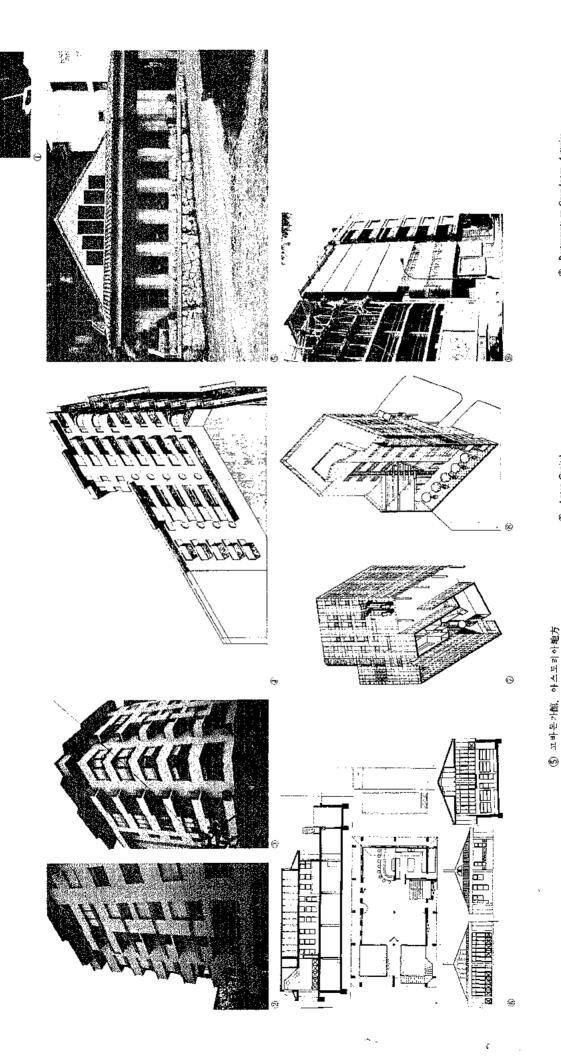
빠



③ 아루베무토, 캠보, 바에지,
 ② G. 역. 바제邸, 마드리트州 산도·도민코,
 ③ 호비야 나면, 마드리트州 산도·도만코,
 ④ 職業訓練也타, 비도-리아,

- ⑤ 職業訓練連타、반부로- 中、현원 ⑥ 建築専門学校 設計競技案, 세미리아. ⑦ 線状部市의 住宅, 마드리토. ⑧ 왜-며 市仔舎設計鏡技案 1 等. 고루-니아새
- (j) Alberto Campo Baeza.
- (3)—Casa G. de Valle, Santo Domingo, Madrid. (3)—Cass Fominaya. Santo Domingo, Madrid. (4)—Centro de Formación Profesional. Vitoria.
- (5) -- Centro de Formación Profesional. Pamplona.
- Concurso Cotegio de Arquitectos. Sevilla.
   Casa en Ciudad Lineal. Madrid.
   Concurso Ayuatamiento de Fene. LaCoruña. Primer Premio.

### Anton Capitel



⑥ ユ바呑가의 食堂, 아스토리아地方 名名名名色 ① むき・利耳を ② ③ ④ な가스・메・오りつ의 APT. かんエキ리かと地方の ③ 経験専門学校設計家、 4 当 当 かん ◎ 協同:M, N, 루이스, F 난구라레스, F, R

⑨ 바드리트의 오페스 BL. 協闹; M. 가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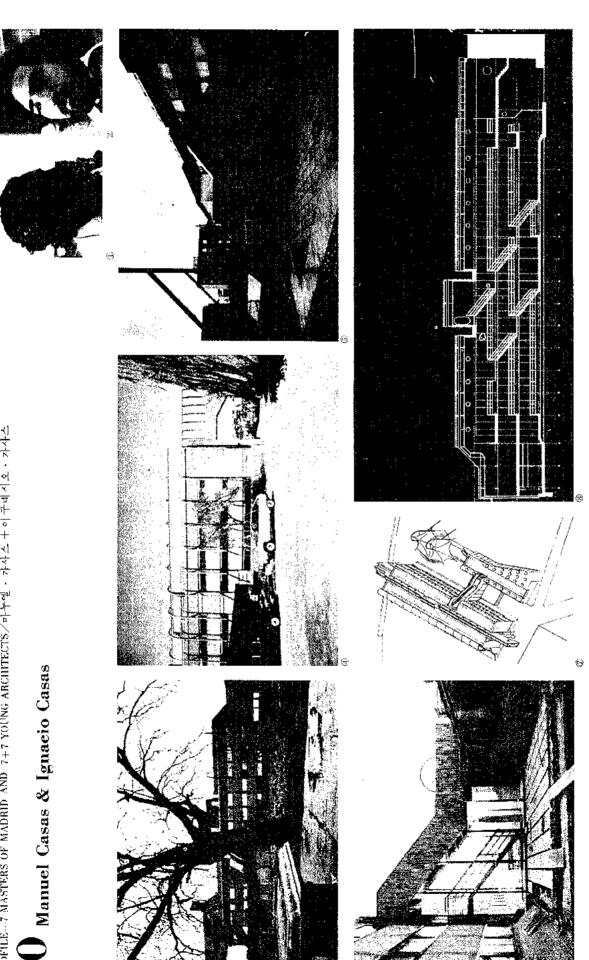
②③④-Viviendas en Cangas de Onis. Asturias. con M. N. Ruiz, F. Nanclares y F. R. Partearroyo. C ... Anton Capitel.

(5)-Pabellón en Covadonga, Asturias,

⑤—Restaurante en Covadonga. Asturias.
⑦⑥—Concurso Colegio de Arquitectos. Sevilla.

. Oficinas en Madrid.

con M. Casas.



③~® → Residencia Internas. Colegio de la Enseñanza. Talavera de la Reina. Tole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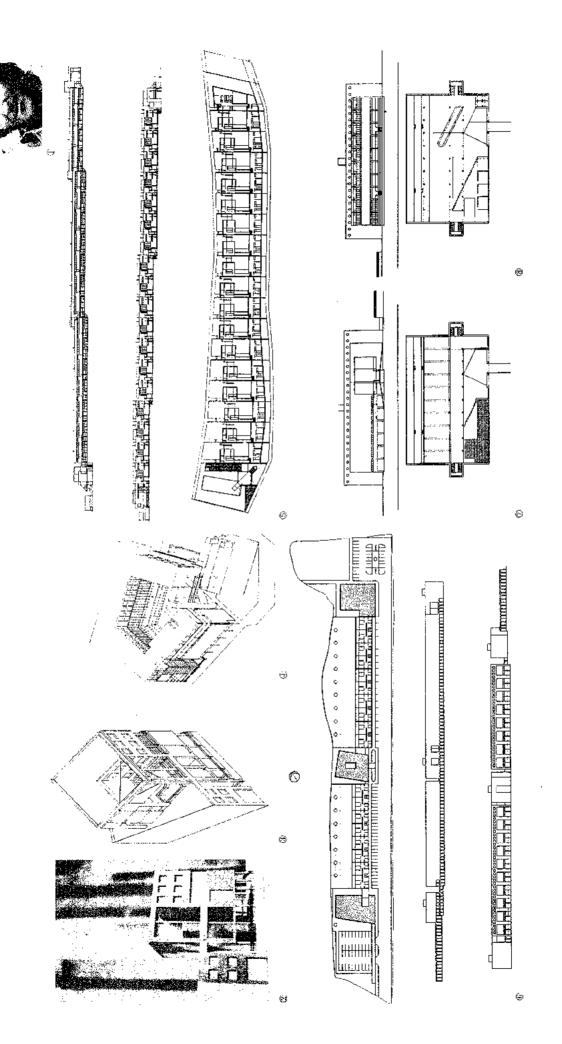
①→Manuel Casas.
②→Ignacio Casas.

(3) (3) 專門學校務宿舍, 先祖先州中中母, 司子·司内寺,

① 바느일・가사스② 이 구나시요・가사스

## ■PROFILE....† MASTERS OF MADRID AND 7+7 YOUNG ARCHITECTS/웨루난도ㆍ최오키에

### Fernando Fauqu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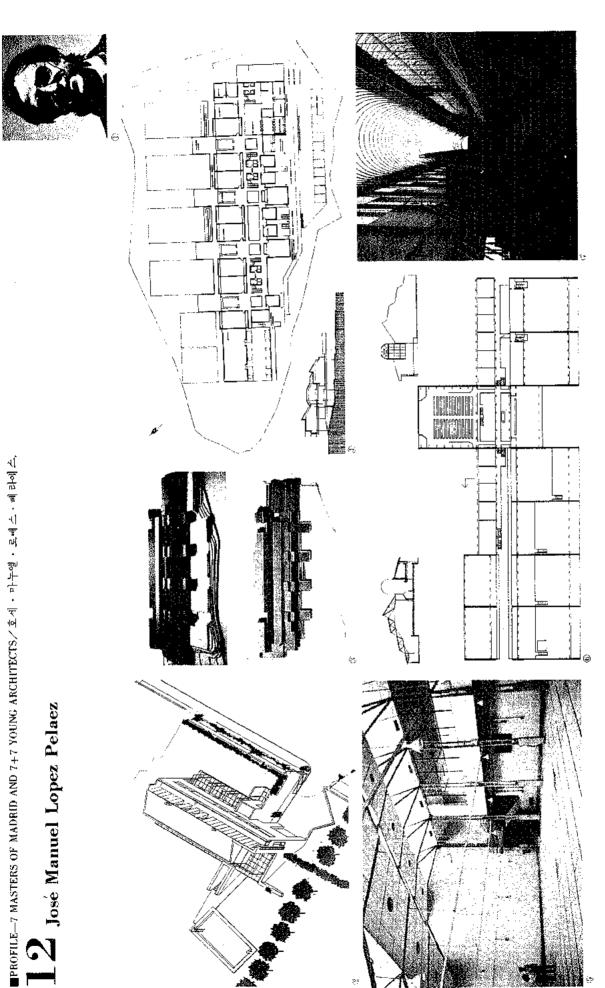
⑤ 明平七左・외を司에 鬼鬼鬼 朝 朝,⑥ ② 建築専門学校 設計競技家, 44目の4.⑥ 화ー刈早 農場設計競技家, 中側内の4.

⑤ 마드리트 APT. ⑥ 어제스 가슨의 APT, 도러도써 ⑦⑧ 해타웨의 콘트미니앙, 마도리트州.

①-Fernando Fauquie. ②③-Concurso Colegio de Arquitectos. Sevilla. ⊕-Concurso Casat Faller. Valencia.

⑤-Viviendas en Madrid.
⑥-Viviendas en Illescas. Toledo.
⑦⑩-Canodromo en Getafe. Madrid.

83



(\$\text{\$\text{\$C}}\)—Centro de Formación Profesional. Samander. con 1. Velles.
(\$\text{\$\text{\$C}}\)—Centro-de Formacion Profesional. Sevilla. con J. Velles.

(j) 호세·마구엘·로세스・폐라에스,② 아-로版, 마드리트州원메·메루・후베스노,③ ④ 아구비~사·메루・제구레약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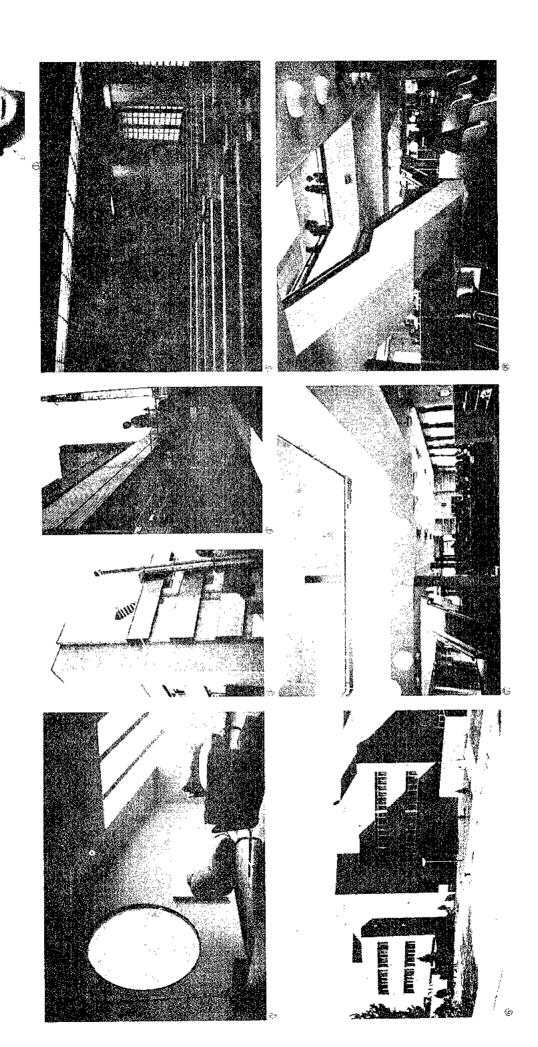
⑤ 職業訓練心타, 全年日平, 協同: 1. 3 3 4 4⑥ ⑦ 戦業訓練心타, オポロか, 協同: 1. 4 3 4

©-Jose Manuel Lopez Peincz. ©-Casa Haro. Fuente del Fresno. Madrid. ®®-Instituto en Artesa del Segre.

84

## ■PROFILE—7 MASTERS OF MADRID AND 7+7 YOUNG ARCHITECTS/ 아루바로、オーユ・ギザ町△

### Alvaro Llano Cifuen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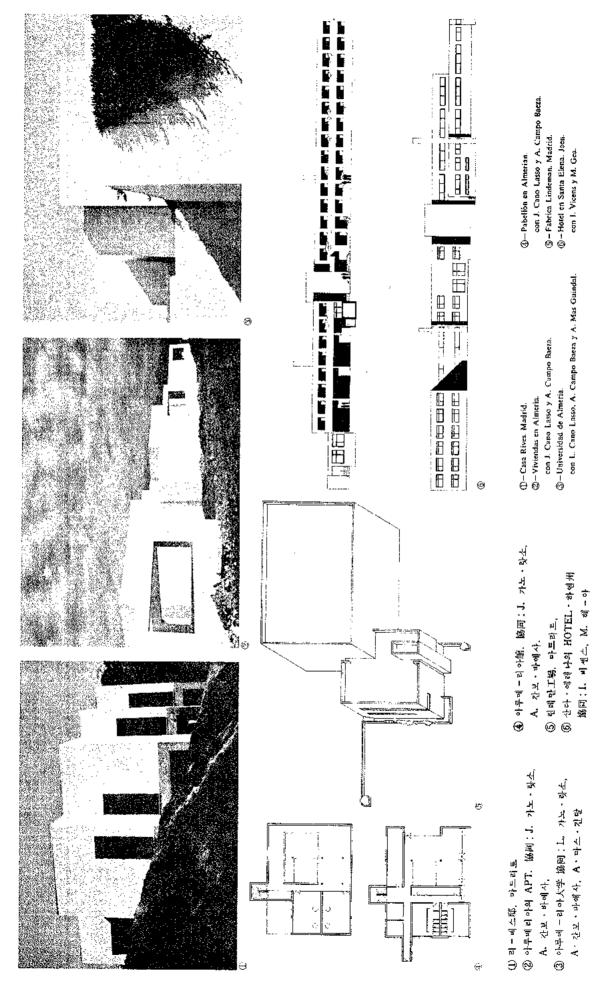
(3) 아루바로・オーエ・세拠向
 (3) 비라・라이룬도, 아스토리아스地方, 리타에세ー자 ⑤ 女学校의 礼拝堂, 마드리트, 筋両:A. 로에ー로.
 (6) 마드리号의 女学校

(I)—Alvaro Lluno Cifuentes.
(2)—Villa Reimundo, Ribadesella. Asturias. con A. Romero.
(3)(2)—Residencia de estudiantes. Madrid.

(5)—Capilla en Colegio. Madrid. (6)—(8)—Colegio en Madr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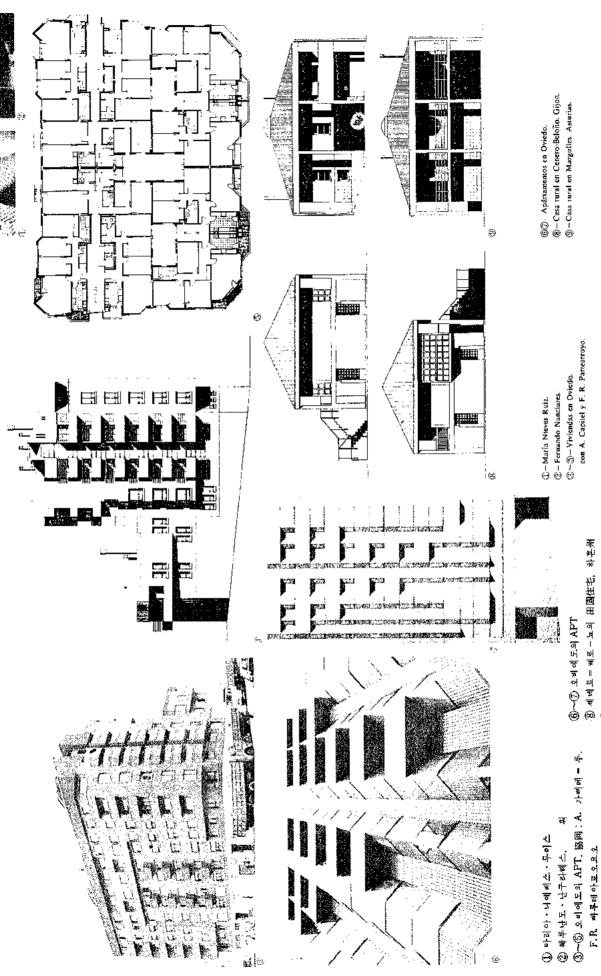
85

## L 4 Miguel Martin Escancia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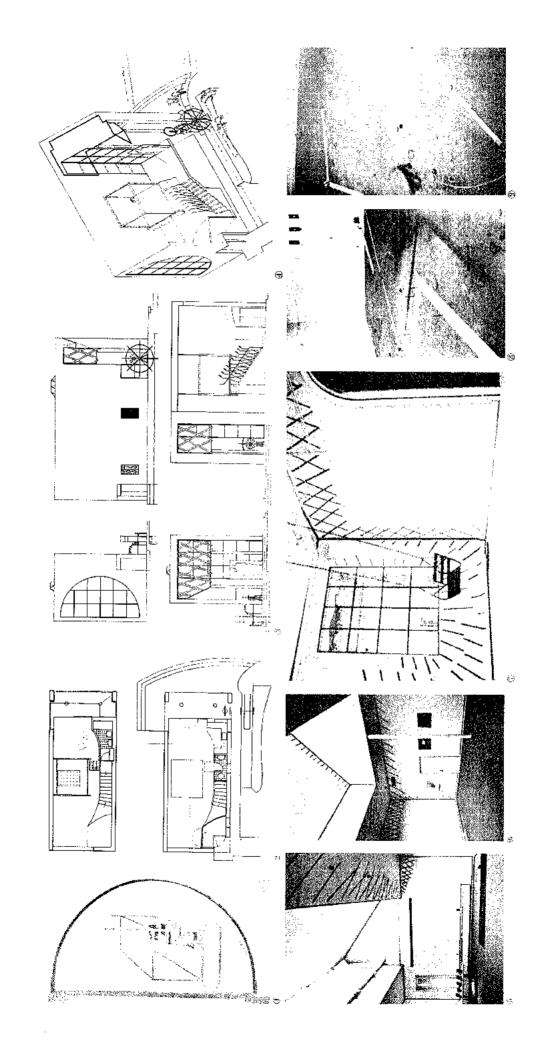
# ■PROFILE—2 MASTERS OF MADRID AND 7+7 YOUNG ARCHITECTS/바리아・나에벡스・루이스+웨루난도・난구라베스

## L 5 Maria Nieves Ruiz & Fernando Nanclares



③ 마루ュー제스의 田園住宅、 かん토引か地方

### U Juan Navarro Baldeweg



⑤--⑥ 室内Ⅳ. MIT 觀賞研究¶타예 設置. ② 蜜内V. 「파이프와 메탈」 바루峨르다 ①~④ 交差点에 세워지는 住宅 따삭쥬세스州, 계인부리케

③ 열 떨內미. 重力과 鐵力에 외한 과이프의 韓成. MIT 親寅研究せい에 設置,마み守州쓰州 게이부리최

(C.-(Q.-."A House for an Intersection". " (S)® - Interior IV. Instalación. Center for Advanced Visual

Studies (MIT). Cambridge, Massachusetts.

(7)-Interior V. "La habitación vacante. Luz y metales." Lu su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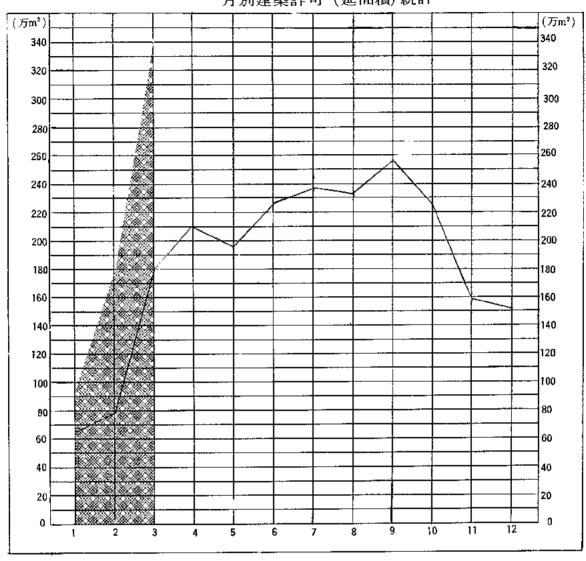
Instalación. Center for Advanced Visual Studies (MIT). (B(G) - Interior (I. Piezas de luz gravedad y magnetismo. Cambridge, Massachuset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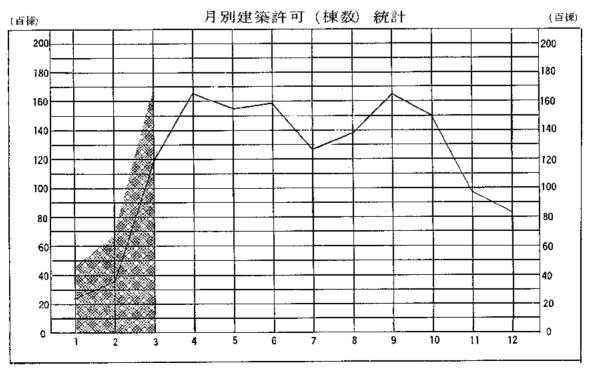
Vincon, Barcelona.

### 全国建築許可統計

(1978年3月分)

月別建築詐可 (延面積)統計





1977 1978 HHHHHH 構造別許可統計 (延前積: 千m2) 棟数(手棟)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货筋** Manual Ma ennastennastennastennastennastennasten 鉄骨 組積 monwonen 288 木造 ann uuu 기타 用途別許可統計 (延重債: 手m2) 練数(千棟)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住居 anaisanasanasana dilling 00000000 商業 aumi andermakanan karand 工業 anno de la comunicación de la co HHI 文教 기타 kaassaas 市道別許可統計 延面積;于m2 棟数( 千棟) 600 700 800 900 1,000 100 200 300 400 500 .... 서울 AMBOUND HOUSE HHHH aning mining managaming mining min aman \*\*\*\*\* \$10 Januarana MARKANIAN PARAMETER P 9000000 8488888 京畿 vunnymynum ankan makan mahan mah 江原 7//// 1110 999 1110 忠北 2000 98686 忠商 unn WWW. 全北 11111 MIMIL 全南 XХ 2000**00**00 慶北 HHH anni kanii anka 慶南 wantening 011111111 済州 1111/1 111111

0 9 8 7 6 5 4 3 2 1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915 3 3 416,055 166,770 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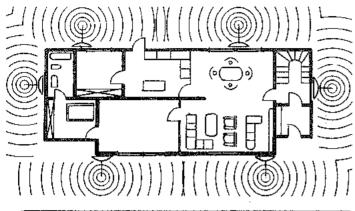
全国許可統計総括

陳数(萬棟)

(延面積:萬m²)

### 完全 레이다 (초단과 UHF)

### EH3出기「本語智言기」



家庭防犯 | | | | | | | |

집을 비웠을 때나 취침時등 사람대신 監視 警備한다. 建物에 접근하기도 전에 자동적으로 電燈이 켜지고 싸이렌이 울려 칠입자가 당황하여 접근마여 할 수 없다.

動作

- 1. 監視機에 움직이는 物体 또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비 時 警報裝置가 動作을 계시하여 알린다.
- 2. 侵入者가 있을 境遇에는 本기계에 부착된 싸이렌이울 리며 同時에 外部의 싸이렌이나 外燈에 불이 켜진다.
- 外部의 타임 스위치를 利用하여 니모드콘트볼이 가능하다(集中管理가 됨)
- 4. 싸이렌에 놀란 侵入者가 당황해서 도망쳐도 싸이렌은 2分間 계속 울린다. 또한 싸이렌이 울리는 時間은 自由로이 조정할 수 있다.
  - 싸이렌의 끝난 후에도 監視는 自動的으로 원상태에서 繼續된다.
- ※ 用途에 따라 싸이렌을 울러지 않고 램프의 電燈 (警報 燈) 만을 使用할 수도 있다.

特하 店舗동의 來客通報에 最適하다. 타이머가 있어 자동 점등시간은 自由로이 조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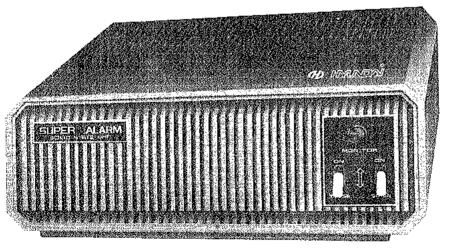
### 特 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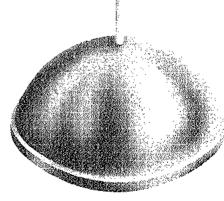
- 1. 本 機械는 UHF電波를 사용하므로 誤動作은 전혀없다.
- 2. 監視腦을 조정할 수 있어 방안크기에 따라 자유로이 장치할 수 있다.
- 3. 停電時에도 염려가 없다(AC/DC24V±20%入力단자 利用)
- 4. 氣候의 氣溫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30°C+70°C)
- 5. 유리창이나 방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도 전파는 창이나 후라서도 어를 뚫고 관통하므로 방안에 장치하여 밖에서의 侵入者가 창문이나 현관문에 집근하면 즉시 작동 경보한다.
- 6. 本 機械는 콘센트 프라그를 꽂아 警報裝置에 接續시킬 뿐이다.
- 7. 36個의 트랜지스타 다이오드를 使用한 完全한 SOLID STATE 업.
- 8. 裝置가 作動하고 있을때에도 不法侵入者는 裝置를 發見할 수도 없고 과존시킬 수도 없다.

### 設置對象

住宅, 아파트, 一般店舗, 전당포, 銀行, 여관, 빌딩, 王場, 學校, 事務室, 駐 車場, 注油所, 金銀寶石商, 위험물 취 급소, 來客의 接近을 不許하는 場所, 또는 국비를 要하는 서류등이 보관된 書庫, 기타.

### 도난은 사전 예방에서 안전을…







### 現代電子工業株式會計

서울특별시 中區 忠武路 1街 22의 4 仁松빌딩 5 層 電話 778 - 0111~15

### 발 전

우수건축자재로 선정되어

国 製 鍋

김 승 태

 $(23-5906\sim7)$ 

(2次展示)

### 본회 상설자재 전시관에 전시한 출품회사

럭 키 愼 <sup>九</sup> 式 会 社 株 韓国스레트工業株式会社 長 許 社 長 姜 敏 求  $(777 - 7651 \sim 9)$  $(21 - 9091 \sim 6)$ 株 式 会 社 <sub>社 長</sub> 韓 国 유 리 工 業 株 式 会 社 金 洪 大 植  $(777 - 8022 \sim 3)$  $(58 - 210) \sim 7$ 株式会社 오리표씽크 太原物産株式会社 朴 有 截 € 社 朴 魯 聖 長 (63 - 3461)(73 - 8241)三和蛭石工業株式会社 트 사 丑 리 아 II. 尹 錫 済 簥 社 튽 (777 - 6559)(26 - 0288)密工 大一形鋼工業株式会社  $\equiv$ 並 精 業計 李 正 男 忠 植 文 社 長  $(032 - 5 \sim 5179)$ (967 - 2200)新 津 業 理 工 灘 窯 社 社 商 製 45 昌 胤 社 裛 張 社 慶 (22 - 3288)(63 - 3537)業 社 相 生 午 企 兼 国 朴 社 社 金 (75 - 5059)(21 - 8622)第 3 機械(제 3 보일러) 仙 ※ 極 実 朴 仁 清 社 (90-4688)(37 - 6011)東洋鋼鉄工業株式会社 韓一電機 株式会社 長 李 東 柱 수 진 社 ા 社  $(64-4881\sim 5)$ (75 - 2840)大 產 崔 玄 植 社 社 長 呉 治 根 (966 - 0969)(72 - 5523)株 式 会 社

(順位:無順)

株式会社

김

영 뀨

(23 - 3164)

萬 鎬 製 鋼

社 長

(잃본 기술을 도업)

콘크리트, 물탈, 푸라스타(石灰) 防水·防湿用

### 

사용후 다시찬는 防水工의 마약



### ◆ 特徴・利點 ◆

- \* 防水平크리트로 母体防水가 可能함.
- \* 塩類 酸類에 強하며 金屬性부식이 全無.
- \* 用途가 다양하고 사용이 간편하다.
- \* 防水, 防濕, 防腐效果는 100%이다.
- \* K.S規格에 맞은 優秀品質.
- 수성페인트 混和剤는 100% 방수효과를 낸다.
- \* 価格低廉, 経済性이 倍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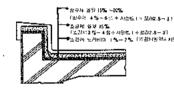
### 途 🏶

- \* 터 -널 地下室 屋上 벽제 욕실防水
- 🍲 사 용 법 🍫
- \* 콘크리트용은:시벤트중량비2%이상.
- 몰탈용은 : 시멘트중량비 4 %이상
- \* 석회용은 : 석회중량비 4%이상.
- \* 使用水骨에 混和小身。

### ◈ 제품성능 ◈

\* 국립건설연구소(KS규격에 합격), 대한주백공사(KS규격에 합격), 국립공업시험원(KS규격에 합격), 쌍용레미콘시험실(強度시험) · 日本工業規格(JIS)에 의한 시험성적이 品質을 보증함.

### (i) 屋上, 베란다等 防水工法



### ② 地下室等 防水工法



### 하이너 - 루工法에 의한 소요재료

0	재료	시	몐	<u>E</u>	모	래	하이너 - 루원엑소요량		Ш	ı	
Г			_				조강페스트	조강몰탈	방수물털	713	량
ļ				<del></del> \			70%	3 %	4 %	0	상
1	00 M ²		753 7101		3.0	M³	42kg	27kg	30kg	청7	/1 <u>유</u>

※ 방수콘크리트는 시멘트 중량비 2%이상 첨가. 에: 320kg (1 M³) × 2 %=6.4kg(하이너 - 루방수제)

四季節 土木建築工事를 용이하게하는

### 漢劑

### ・最優秀製品 시멘트混和剤의

### ◆ 特徴・利點 ◆

- 3日,7日,28日 強度斗 同一.
- \* A, E剂,減水剂, 分散剤役割
- \* 工事費의 減少,工期短縮,凍害防止.
- \* 強度增大로 Cement 절감.

### 質� ◆ 品

\* 性能은 국립건설연구소, 국립공업시험원, 日本工業規格(JIS A-6101에 의한 시험 성적), 大韓住宅公社 시험성적이 外国産 을 능가 합을 증명한다.

### 途 🏶 ◈用

- \* 1日, 3日, 7日 強度가 보통 콘크리트 \* 初期強度를 要하는 工事 \* 突貫工事,
  - 水中王事
  - \* 凍期工事(-15°C), 緊急을 要하는 工事 \*止水直과:100%원액을 사용
  - \* 시앤트 2次製品
  - \* 昇強 Cement를 要하는 工事
  - \* 防水工事에 止水剤로 사용.
- \*早強효과:시멘트중량비 1~5%첨가
- \*防凍直과:시멘트중량비 6~12%점가

### \*사용水量에 稀釋사용

### ◈ 納品実織 ◈

◆ 使用法

#쌍용양희공업주작회사 \*대한주택공사(경남기업, 비성건실, 정우개 발) \*부산시청 \*부산세관 \*수협중앙회 \*자명건설Co. \*총성건 센 Co. \*태평양건설 Co. \*삼익주택(여의도 Apt) \*삼부로건(여의도 타 위형 Apt) \*부산시청 영도계 2 대교가설공사(홍화공업) \*대한주백공사 사직통아파트 (경남기업) \*부산제 7부두축조용사(통아건설)의 200여처

### 三龍化學工業株式會

서욻 최 5377・7892 부산 ② 0777 沙 0113・③ 0253 대구 🦸 1797 이리 2945 인천 ③ 5125 성남 ② 1807 첨주 ② 1020

실용신안특허 13255호 ◎ 기름보일러의 겸용설치최우수품

실용신안특허 13752호 ◎ 집을 새로 지으실분

의장등록번호 19229호 🔘 재래식 보일러로 사용하고 계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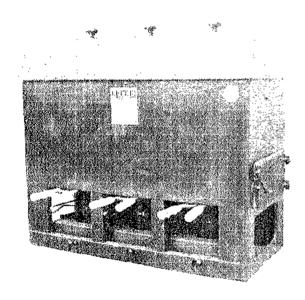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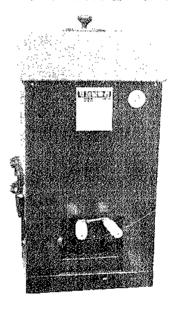
제4회 전국우수 발명 경연대회

과학기술처장관 최우수금상수상

K. S. 자재로 3가지가 새롭게 설계 제작되였읍니다.

\* 국 내 최우수품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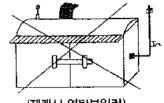
× 시공업자문의환영 대리점모집중

### JS-303

가로 × 세로 × 높이 3 탄 3 구 ......26명 3 탄 3 구 온수겸용…22평 98.5 $em \times 41.5em \times 80em$  JS-301

3 탄 1구 ············8 평 - 44.5cm× 41.5cm×80cm

- 1. 탄 교체 방법이 간단하여 고장이 없고 사용하기 편리함. (누구나 할 수 있음)
- 2.국내 최초로 간단한 청소구가 설계제작되여 가정에서 누구나 청소할 수 있음.
- 3. 보일러 내통에 불연, 방청, 도료(F.P.C)의 피막으로 부적을 방지해 주므로 수명장수합.
- 4. 열효율을 최대로 높여 설계제작 되었으므로 P.V.C 여통으로 사용 가능함.
- 5.미연소 째스를 완전연소(2차연소장치) 시킴으로 얼량이 월등이 강함.
- 6. 설치장소를 마음대로 선정 취사를 점할수 있음.



(재래식 연탄보잃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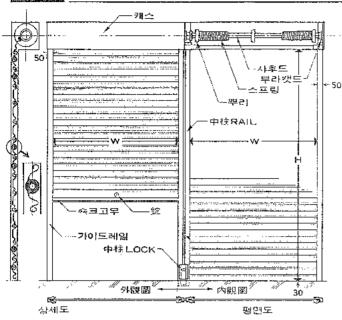
### 第三機械CO.제 3 보일러제조원

**3** 37 6011 39 245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용암동 9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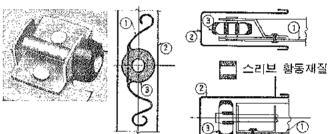


### 동아섯다 새時代 재設計는 新開發品으로!!



### 回轉子가 附着된 샷다의 특징

- ① 샷다의 승강시 상하 작동을 원활혀 해준다.
- ② 샷다의 작동시 레일(RAIL)과 스랏드(SLAT)의 접촉할 때 생기는 불쾌한 마찰음을 제거한다.
- ③ 샷다의 작동시 레일과 스캇드의 접촉시 마찰을 피하고 동시에 스캇드의 피복을 보호한다.
- ④ 샷다의 송감시 작동을 하는데 힘드리지 않고 간편하게 송감작용器 한다.
- (5) 샷다 시공시 마찰이 가장 심합 곳에만 상·중·하로 구분 부착한다.
- (6) 샷타의 가격은 시중 현 단가와 동일함.
- ② 본 샷다는 실용신안 특허 등록제14009호 제품입니다.
- ③ 삿다의 수평 이동을 방지한다.
- ① 스랏드(SLAT) ② 레 일(RAIL) ③ 회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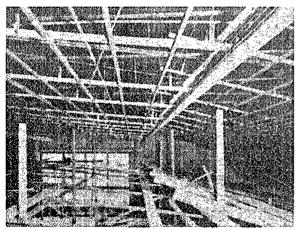
### 샷다의 새로운 資材

着色亜鉛鍍鋼板(C.C.G.I) 0 | 社?

- 特性 ◎ 色相이 아름답다.
  - ◎ 気候変化에도 変質되지 않는다.
  - ◎ 完全한 不燃製品OI다.
  - ◎ 経済的인 새로운 製品이다.
  - ◎ 무게가 가볍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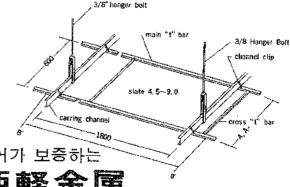
### 不燃天井軽量鐵骨天井



hanger carring chan	<b>*</b> / `	olt er pin channel clip
		<del></del>
main "t" bar	`slate spring	cross "t" bar
A-A Cross Section	B-B Cros	ss Section

Carring Channel Main "t" Ser Cross "t" Bar Carrying Joint

To the property of the property of





로 - 루 호 - 밍구의 파이오니어가 보증하는

軽量形鋼製造元 東 亜軽 金属

大邱市東区新川洞740-4

TEL 44-08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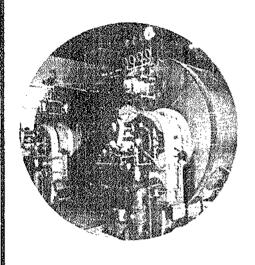
### Rocket Boiler 연료비40% 절약?

### 로켓트 보일러

工產品 品質管理法에 依한 優秀商品 指定

燃料 使用器機大會 商工部 優秀賞受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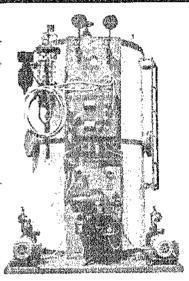
### <u>고압연</u>관식보일러(KR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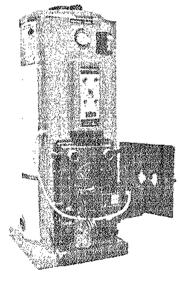
- □ Iten에서 10 ton까지 용량 어 규칙별로 다양합니다.
- □ 행기에의 한축 과 기술 성력 한 새로운 모 별로 긴 수명 과 놀라운 성 등의 보인러 입니다.
- □ 면짜식 모일다 의 신기원을 이북한 제품일 니다.

### 전자동 증기보일러 (KRS)

- □ 1000명 미만 기숙사 취사 는 20분백에 해결합니다.
- □ 직물광광 지조 세팅 증기 나라미용으로 가장 이상 서입니다.
- □ 화학반응기 살균 난방및 급방용 식품가공, 공장에 직합합니다.
- [] 미역해초등 수산물가공에 시합합니다.
- [上市적 0,2에서 0,5ton 의 신자동 소형 스팅 보일리 보 관리에 편리하고 연료, 비 40%가 절약됩니다.
- □ 전자동이므로 관리된 이 필요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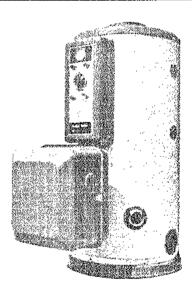
### 다목적온수보일러(KRZ)



- □ 난방광 급팅용 목욕팅 저용.
- □ 정전시 또는 오일버어 너 요참시 언탄화목및 제품을 사용한 수 있 율니다.
- □본제품은 5판에서 40 만 Kcak까지 용량이 규격별로 다양합니다.
- □취급이 간단한 one-to uch 식업니다.
- □ 내부가 완전 도금처리 된 급탕용과 동코일이 삽입된 급당 난방점왕 이 있읍니다.

### 전자동 소형온수보일러 (<u>KRQ)</u>

- □ 경이적인 보안러 기술의 쉭 셔
- □ 실제품 KRQ는 벨기예약 왕 순 가출합력 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 □ 본제공의 개발목사은 15명이 상 30정미만 40명이상 60정 미만 주택의 난방과 목욕을 해결 하는데 있옵니다.
- □본제공은 저렴한 시설바와 및박는 기봉연료비 % IP소형 오인바이너로 전기소비가 적 고 설치면적이 작은 자하실 부얼 창고등에 간단히 설치 한수 있는 것이 독진입니다.
- □ 다랑생산 기계화로 동충 타 보일러에 비해 보일러 구입 내가 30% 이상 저렴합니다.



- □ 관리읍지비가 없고 최고의 안전도 저렴한 시설비 연료비 40 %를 절약하시려면 Rocket Boiler에 문의하십시오.
- □ Rocket Boiler 의 모조품에 유의하시고 Rocket 상표를 확인하십시오.



국내 유일의 보일러 수출업체

### le e e e e e e e e

본사:경기도 부천시 도당동185 - 13

전화:(6) 5131-4

여의도 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 697 (우정빌딩308호)

전화: (782) 7373, 7387, 8757

### 韓国유리는 使命感을 갖고 精進하고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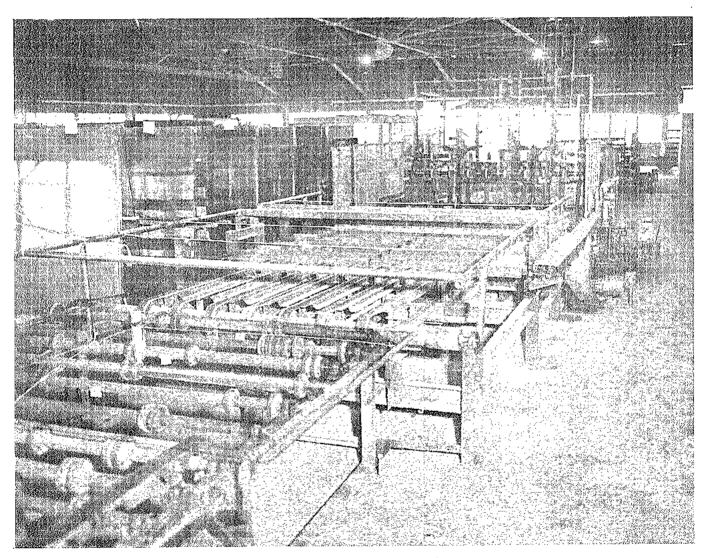
■ 여러분의 指導와 鞭撻 속에서 成長하는 韓国유리는 優秀한 製品을 生産 供給하기 為해 끊임없이 研究 努力하고 있읍니다.

### 生産製品

- 닭은유리
- ☞ 무늬유리
- 安全強化品

### 

두께 (%)	inch	mm
5	84×120	2134×3048
6	84×120	2134×3048
8	84×108	2134×2743
10	84×96	2134×2438
12	84×96	2134×2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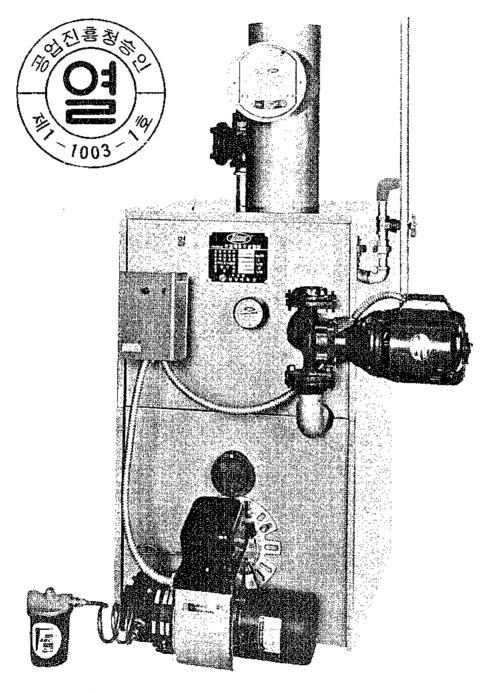
### 韓國并召工業株式會派

釜山工場: 廖南 梁山郡 日光面 伊川里345 釜山 ⑤ 4066~4070

### Cast Iron Boilers

놀라운성능 • 연료비절감 • 영구적인수명





製造元:三成製作所

异 」 南 事

저울特別市 中区 忠武路 4 街 126-1호

進洋商街 1층2동 나열 109호

TEL: 266-2807, 266-8015